

중국을 주께로

96/5,6



특집 / 조선족 교회와 선교

배매나 / 초기 한국 교회의 중국 산동선교 역사

인터뷰 / 개령교회 양옥 사역자 천레이 목사

사색연구 / 6.4 천안문 사건의 진상

중국문화 / 중국인의 변신술, 인장(印章)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592-0132, 533-5497

팩스/599-2786

메가트랜드 차이나

이동화

‘중국’

이라는 말은 본래 중심 국가, 즉 ‘세계의 중심 국가’라는 뜻이다. 중화(中華)사상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중국이 최근, 문자 그대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국이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오늘의 성공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 사상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이론은 있으나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이론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특유의 현실주의로 새로운 시장경제의 패러다임을 소화해 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1세기 벽두에 중국은 GDP 규모에 있어서 일본을 제치고, 그 다음 미국마저 따라잡아 세계 제일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 번역 소개된 존 나이스비트의 저서 「메가트랜드 아시아」가 우리의 흥미를 끈다. 그는 이 책에서 전 지구적인 세력의 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1천년기를 맞이하는 대변혁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리고 그 대변혁의 주인공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중국을 위시한 대만,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화상(華商)들, 즉 ‘화교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말하자면 존 나이스비트는 「메가트랜드 아시아」에서 중국 시대의 도래, 즉 ‘메가트랜드 차이나’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만 총통 선거 직전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화교 네트워크가 파열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 역시 ‘메가트랜드 차이나’가 역사적 대세임을 검증해 준 하나의 사례인 셈이다.

‘메가트랜드 차이나’의 조짐은 중국 교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은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곳이다. 1949년 공산화 당시, 백만 명도 안되었던 기독교인 수가 지금 6천만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는 그의 저서 「21세기 교회의 전망」에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보나 선교적으로 보나 ‘메가트랜드 차이나’의 도래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국 교회도 이제 보다 시야를 넓혀 중국 시대의 도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진 화교 네트워크가 ‘선교 네트워크’ 되는 날 세계선교는 실현될 것이며, 이것이 한국 교회 중국선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집 / 조선족 교회와 선교

- 18 재만주(在滿洲) 한인(韓人)선교의 발자취 편집부
24 이런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양명득
31 조선족 교회 이렇게 본다 천다오성
36 조선족선교의 진단과 대책 인병국



선교 나침반

- 4 선교일언 중국선교 단상 김동호
6 인터뷰 목자가 자라야 교회가 산다
가정교회 지도자 양육 사역자 천레이(陳麗) 목사 차이나
12 중국 교회 체험기(2) 약속을 기다린 형제들 메이쥡즈(梅增知)
87 궁금합니다 중국선교... 이요한



중국은 지금

- 43 교회 소식 초점 윈난(雲南)성 리장(麗江) 지역 지진피해 구호활동
67 변화하는 중국
중국의 흔들리는 가정 강성광
105 중국 동향 초점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대만 총선 이후 양안(兩岸)의 향방



인물·역사

- 46 중국선교의 발자취 방지일
내가 주력(主力)한 교회들
48 세미나 지상중계 김교철
초기 한국 교회의 중국 산동선교 역사
78 시사연구 6·4 천안문 사건의 진상

헌신의 삶

- 58 대륙성도의 간증
나그네의 눈물 에스더
62 중국선교사의 간증(12) 허드슨 테일러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
84 현지에서 온 소식
열매맺는 나무를 위하여 주성지

중국을 알자

- 70 중국의 省(5) 거대한 잠재력의 보고(寶庫)
산서성 · 섬서성 · 감숙성
- 88 중국문화 중국인의 변신술 인장(印章)
세페이루(謝斐如)
- 92 중국영화 감상 푸른 연(藍風箏) 이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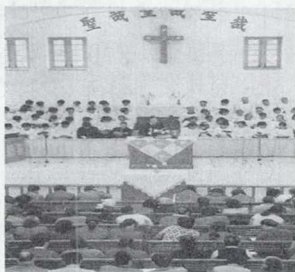


세계선교 동향

- 100 오늘날의 세계 기아 국제기아대책기구

자료실

- 110 보전기독교당(莆田基督教堂) 설립
80주년을 기념하며



※본 지의 중국어 표기는 기본적으로 외래어 한글 맞춤법 표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지명과 인명을 한문 독음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1 발행인 칼럼

메가트랜드 차이나 이동화

16 선교중국어 你是怎麼信主的? 차이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44 중국 교회 소식

55 목상의 샘

철저한 자기 인식

77 시사만평

94 중국어찬송가

耶穌愛我歌(예수 사랑하심은)

95 중국어로 찬양을

最大的事(가장 중요한 것)

96 선교 다이제스트

중국 교회의 부활

97 신간도서 『20세기 중국사』 외 2권

98 선교단신

106 중국은 지금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별채부록

‘중국을 주제로’ 기도칼럼



표지설명

중국교회에 지워진 짐을 나누려는 한국 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 짐은 그들 혼자 지기에는 무겁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이 선불리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동역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진: 푸지엔(福建)성 후이안(回安)의 여인들이 무거운 돌을 나르고 있다. 이 지역 남자들은 예로부터 멀리 집을 떠나, 고기잡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집에 머물면서 농동을 담당하였다.

중국선교 단상

김동호

'91년과 '93년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교회를 방문하였던 경험에 있다. 그 짧은 경험을 통하여 느꼈던 몇 가지를 단상처럼 적어 보려고 한다. 중국선교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감사할 뿐이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91년도에 중국으로 떠나면서, 돌아와서 할 설교의 제목을 미리 교회에 주고 떠났다. 그것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였다.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나 사람들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하였던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틀림없이 이번에 중국을 다녀오면 중국 교회를 도와야 할 터이니, 그 본문으로 그렇게 제목을 잡아 설교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나는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바꾸었다. 중국에 있는 중국 교회와 조선족 교회를 돌아보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중국의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교회가 우리를 돕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중국 교회가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뜨거운 것에 놀랐다. 그것에 비해 우리 한국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교회와 같아 보였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저들보다 나은 것은 경제력 뿐이었다. 신앙은 오히려 우리가

뒤져 있었다. 그러니 돈 몇 푼 가지고 저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였다. 우리가 저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땅따먹기 선교

중국에 교회의 문이 열리자 선교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한국의 거의 모든 교단의 목사, 장로, 교인들이 중국을 찾았다. 그리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음으로 양으로 선교비도 대어주고 하여, 중국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교파별 그리고 교단별 선교경쟁이 지나쳐서, 마치 중국에 자기 교단과 교파를 세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땅따먹기 식의 선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생각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하여 미신을 타파하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였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저들에게 분열된 교회를 심어주려고 한다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다.

'93년도에 다시 중국을 다녀오면서,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조선족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였다. 돈 몇 푼 지원하고 자기 교단과 교

파를 내세워, 중국 교회에 교단과 교파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상종을 하지 말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중국의 교회를 잘 지키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다.

북한선교 누가 할 것인가?

상하이(上海)의 호텔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값을 내가 지불하였다. 9명이 마셨는데 우리 나라 돈으로 만원 정도였다. 중국의 커피값 치고는 좀 비싸다 생각했지만, 커피값 만원이 내게는 그다지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었다. 별 생각없이 커피값을 치렀는데,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전도사님의 눈빛이 순간 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물었더니 “제 한달 생활비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자기 한달 생활비를 커피값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내는 한국의 목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과 감정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었던 것이다.

만리장성을 가기 전날 백화점에 나갔다. 일행 중 어른 목사님 한 분이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셨는데, 만리장성에 가서 바람을 맞으면 나쁠 것 같아 가족집퍼 하나를 사기 위해서였다. 물건은 많았으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품질이나 디자인이 아무래도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에 없는 물건을 할 수 없이 사신 목사님을 조금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싸지 않습니까? 한 번 입고 버려도 약값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앞의 전도사님이 대변 “저희 석 달 월급입니다.”라는 것이 아닌가!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부터 돌아오는 날 까지 거의 10위엔(元)도 쓰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물 하나 사오지 않았다. 몇 푼 안되었지만 가지고 갔던 경비를 모두 저들 교회에 드리고 돌아왔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마음을 열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 우리는 남한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시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

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열등의식이 생기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별 생각없이 하시는 말과 행동에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람들이 오면 참 편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 우리들이 중국에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선교의 문을 막고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나부터도 주머니에 달러가 좀 있고 보니, 얼마나 알게 모르게 쓸데없는 우월감이 드는지 그것을 주체하기가 참 어려웠다.

그때 나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이 이런데, 이 다음에 통일이 되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 우리 남한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인들이 북한선교에 앞장 서서 저들 앞에 나타나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뒤에 숨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였던 우리 조선족 중에 중국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일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면 별 큰 이질감 없이, 그리고 감정적인 오해와 상처없이 선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보다 중국 교회의 문을 먼저 여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북한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그때 깨달은 나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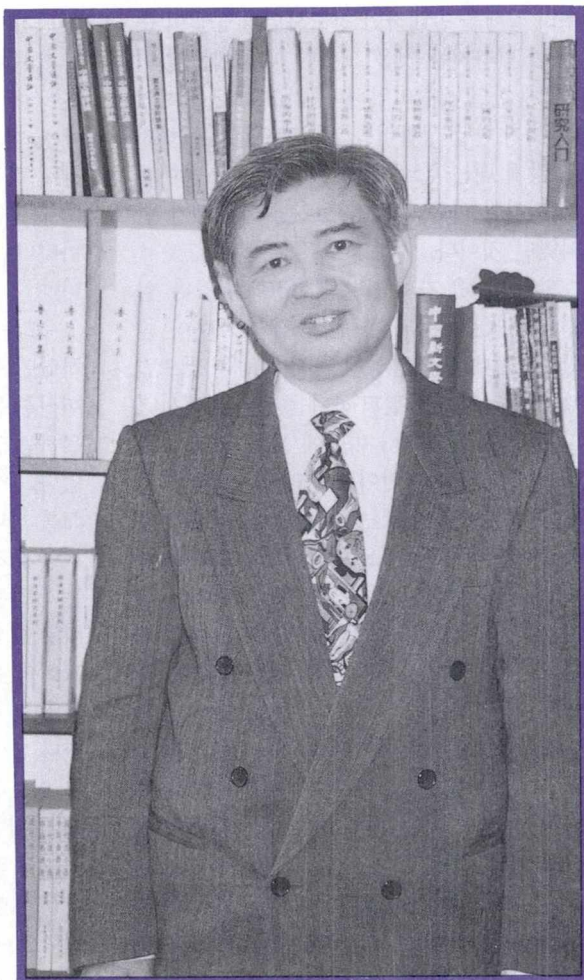
그저 몇 가지 중국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단상을 적어보았다. 그것도 중국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목자가 자라야 교회가 산다

가정교회 지도자 양육 사역자 천레이(陳鐸) 목사

차이나

대만 다오생(道生) 신학원 원장인
천레이 목사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의
중국선교사역학 전임교수로서
이번 학기에 30시간의
강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대만의 대표적인 사역자인 그는
1988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
지금까지 가정교회 지도자 양육사역을
해오고 있다.
1년에 3분의1 이상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성장의 카운슬러로,
존경받는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가정교회 지도자
양육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복음화의 총체적 방법을 조명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반 사역에 대한 심도있는
선교전략을 한국의 예비 선교사들에게
전해주었다.



중국선교에 헌신하게 된 계기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유학할 당시 'Pray for China'라는 모임에 참석하면서 중국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어느 날 풀러에 오신 중국복음선교회(中國福音宣教會: CMI) 조나단 차오 목사님께서, 강의를 통해 중국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한 전문인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미국인 친구들이 돌아와, 중국 소식을 전해준 것죠.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전이라 대만인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인 친구들은 종종 안타깝다는 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만인들이 직접 중국선교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겠군요.”

1987년 선교학 박사 과정을 마칠 무렵, 중국이 대만인의 친지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차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제 함께 대만에서 중국복음선교회와 신학교육 사역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곧장 아내와 의논한 끝에, 함께 중국선교 사역에 뛰어들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사역을 시작했을 때, 중국선교 사역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래 전 폐교되었던 다오성신학원의 리방주(李幫助)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보자마자 “혹시 이 신학원을 다시 개교할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저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88년부터 중국선교 사역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다오성신학원을 복교했고, 1989년부터 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에는 학교 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일들로 무척 바쁘고, 매 학기 방학 때는 교수진과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 지도자 양육 사역에 참여합니다.

가정교회 지도자 양육 사역에 대해

중국의 농촌, 특히 북방지역의 농촌의 경우 농사일로 바쁜 기간은 1년에 3~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모두 농한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도자 양육 사역은 대부분 이 농한기에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농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農忙下田. 農閑傳道’(농사가 바쁘면 논에 가고 한가하면 전도한다)’

보통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양육은 두 기간에 걸쳐 이뤄집니다. 겨울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 또는 4월까지가 1단계이고, 여름인 8월부터 9월까지 2단계의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훈련기간은 보통 열흘, 길면 2주 또는 1개월이며, 매일 평균 9~10시간 수업을 합니다. 10일 동안 복음서를 중심으로 신약성경 3권을 공부하고, 1년에 세 번씩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2~3년 동안 계속 양육훈련을 받게 되면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2, 3년 동안 훈련받는 대상은 바뀌지 않지만, 장소는 수시로 바뀝니다. 규모는 한 반에 약 50~80명 정도이며 150명 정도까지 모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훈련받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행정적인 면은 모두 그들에게 맡깁니다. 해외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양육 받으러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훈련하는 내용에만 신경쓰면 됩니다. 그들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열악해 보인다고 무작정 현금을 하지도 않습니다. 훈련받는 그들이 강사비는 부담할 수 없지만, 숙박비용은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마친 이들은 흠여져서 각자 맡고 있는 가정교회를 섬깁니다. 나에게 훈련받았다고 해서 ‘내 제자’, ‘내 훈련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길 따름입니다.

천레이 목사 약력

대만 국립중성대(中興大) 임학과(B.S), 중화푸인(中華福音)신학원 1회 졸업생(M.Div),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학과 박사과정 수료(Th.M.D. Miss), 대만 IVF 캠퍼스 사역 지도자 역임.
현재 대만 다오성(道生) 신학원 원장

중국 가정교회의 질실한 필요와 어려움

우선 외부적인 어려움은, 정부의 종교정책으로 인한 압력입니다. 종교집회 장소를 일일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규정과 이에 따른 압력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 기독교가 신속하게 발전되고, 신도들의 숫자가 점점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도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목자의 양육 훈련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삼자교회까지도 사역자 양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가정교회의 필요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도들을 이끌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성경 주석, 기독교 서적 등도 부족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성도들을 고려할 때 성경 역시 태부족입니다. 이외에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사설의 침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성도들의 신학적 경향

· 영성에 대해

첫째로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100% 다 인정합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예로부터 경전(經典)을 굳게 믿어온 문화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중국의 성도들로부터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믿을만합니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 신학을 믿고 주장합니다. 구원론에서 보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성도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며, 전도하는 데도 열심입니다. 병고침 등 기적을 경험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일부 성도들은, 체험에만 의지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이 없

으면 쉽게 영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정교회들이 이단사설에 빠진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삼자를 보는 가정교회의 일반적인 견해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은 삼자교회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삼자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자가 공산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정교(政敎)분리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이지,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여 삼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볼 때 삼자교회는 정부를 총지휘자이자 머리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정교회가 삼자교회를 음부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삼자교회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에게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당과 정부를 주님으로 섬기는 부정한 음부와 같다는 이야기이죠.

한국교회와 삼자교회와의 교류 가능성

기본적으로 삼자신학은 통전신학(統戰神學: 성경에 근거한 신학체계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성경을 빌어 삼자를 옹호·설명한 것이다-편집자 주)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본적 전략과 정책은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교단이나 교회와 합작할 때, 그들은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교회는 삼자교회밖에 없고 가정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한국 교회가 삼자 측과 협력관계를 맺는다면, 실제로 한국 교회가 전체 중국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선교사역은 극히 드물고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적인 시각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시각에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삼자교회와 관계를 맺어 성경을 제작한다든지 신앙서적을 출판하여 중국내에 배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 생각에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공식적인 통로로 전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삼자교회 보다는 가정교회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좋을 것입니다. 가정교회와는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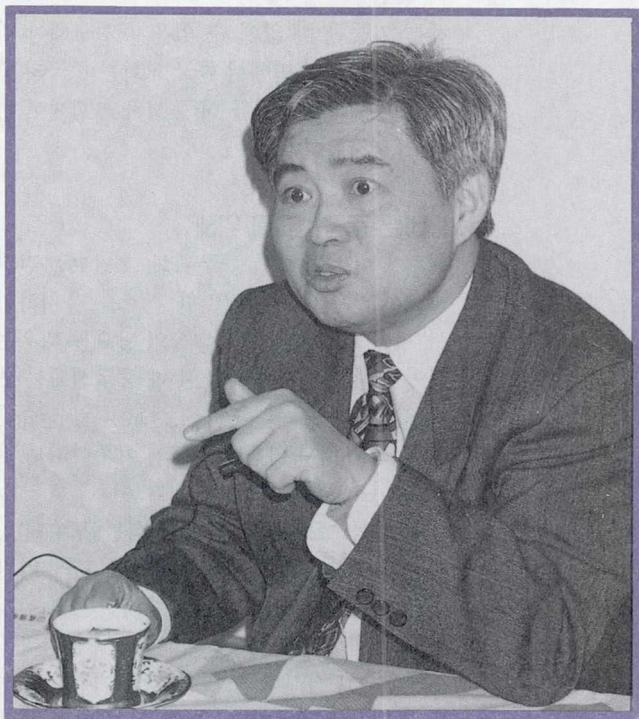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해

궁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열심과 공적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라고 생각하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한국 교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중국선교 역시 타문화권(Cross-Culture) 선교이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의 학습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아직 배움의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학생이 배울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목사, 성도들이 중국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비행기표 한 장 사 갖고 중국에 들어가서, 말을 하지 못해도 아무 조선족이나 통역으로 내세워 설교하면 '중국선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중국이 광대한 복음의 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선교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과연 그런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아직 배움의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학생이 배울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방법이 합당한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한 뒤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중국선교를 하려면 우선 먼저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선교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중국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미리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전의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생각해온 중국인들에게,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과거 서양 선교사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오

해를 가능한 한 없앨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중국과 중국선교에 대한 연구를 더 중시하고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중국선교를 위해

현지에 이미 세워진 중국 교회, 그리고 관련된 중국선교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제가 볼 때 중국선교는 오랜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긴 안목으로 볼 때 중국 교회를 도우려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중국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어, 어릴 적부터 중국어를 배우게 하고,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도 중문학과를 추천해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문화와 중국어에 대한 이해와 실력을 완전히 갖추면, 그 때 가서 선교현장에 뛰어 드는 것이 중국 교회에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중국선교에 종사하는 선교단체들이나 중국인 교회(화교교회)를 인력,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도 중국선교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복음화 상태를 볼 때 가정교회의 선교사역은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발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다방면에서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키워서, 장래 중국선교를 감당할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선교단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선교단체들이 부흥할 때 한국 교회도 이에 영향받아 선교의 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오성신학원은 한국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중국어를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신학공부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의 한국 학생이 우

리 신학원을 졸업했으며, 지금 6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지도자 양육 시역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한국 교회의 신학적 소양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신학교육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양육을 할 때 통역을 세워 한국어로 하게 되면, 의사소통상 오해가 생길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선교사가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언어’입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를 양육할 때는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양육받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한다는 등의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란 특수 상황에서, 선교는 은밀히 행해져야 합니다. 해외에서 온 우리를 공개하면 할수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교회를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하는 꼴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공안국에 체포당할 경우, 외부인과 접촉했다는 것은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기의 교파 세력을 확장하려는 교파주의, 또는 지교회를 중국에 세운다는 태도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들을 위한’ 양육을 하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미리 알고, 그에 맞는 내용을 준비하여 가르치며 그들과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는 1950년부터 교파주의가 없어졌습니다. 해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자기 교파, 교회를 앞세우면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마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만 교회와 신학교의 중국사역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현황

기본적으로 대만교회와 신학교는 중국(대륙) 복음화에 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만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동력도 약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대만 독립사상이 팽배해짐에 따라, 중국에서 무력으로 대만을 침범할 기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인터뷰를 한 며칠 후에 중국이 대만을 향해 미사일 훈련을 하였다-편집자 주). 그러므로 대만 교회의 성도들이 중국에 대해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동포를 사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교회가 중국선교를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신학교는 우리 다오성신학원에서만 전적으로 중국선교를 하고 있고, 그 밖에 C.E.S(中華福音神學院)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

저는 저의 온 식구가 중국선교 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결혼한 지 30년째 되는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배필이며, 중국선교 사역에 있어 저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큰딸도 중국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신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 나이 57세입니다. 앞으로 저의 생명이 다할 날까지 중국선교에 헌신할 것입니다. 중국선교는 결코 독불장군 식이어서는 안 되며 '팀워크'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더 많은 젊은 사역자,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잘 하는, 팀워크에 능한 사역자를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빈곤학생 보조에 관한 호소

중국 동북에 위치한 ○○공대는 국가 전체의 15개 중점대학 중의 하나로, 대학생, 석사생, 박사생 등 15,000여 명의 재학생이 있다.

보통 대학생 한 명이 식사비로 한 달에 200~300위엔(元)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학교의 통계에 의하면 재학생의 36%가 100~150위엔 정도의 빈곤 생활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약 1,500명 정도가 한 달에 100위엔(한화 1만원) 이하의 생활비로 점심 한끼만 간단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학교 안에 설치된 '희망공정(希望工程: 빈곤아동과 학생들을 돕는 중국의 국가적 복지 프로젝트)'에서 각 과별로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학업성적이 좋은 극빈 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졸업 때 값은 조건으로 50위엔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현지 한국인을 중심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한 학생에게 한 달에 100위엔씩 40여 명을 우선 1년 간 후원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첫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진 ○양은 돈이 없어 우선 학교 인의 간이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는데, 뼈가 잘못 붙어 계속 고생을 해야 하는 형편이고, 만성백혈병에 걸린 ○군은 형편이 닿지 않자 병원 치료를 아예 포기하고 기공(氣功)으로 병 치료를 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나마 대학이라는 교육혜택을 입고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식량사정이 비교적 좋은 편인 중국에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주린 배를 안고 격심한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이 중국 각지의 농촌 출신인 이 학생들의 가정에서는, 보통 2,000위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도 자랑스럽게 대학생이 되는 자녀를 후원하나, 다달이 필요한 식비와 책값 등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누구보다도 가정형편을 잘 아는 이 학생들은 가정교사로, 육체노동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거리에서 일을 구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중도에 엄마의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생각나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온 가족의 만류로 마음을 다져먹고 공부를 하여 반에서 1등을 한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많은 번민 끝에 신경쇠약증, 혹은 간염에 걸려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한 번 식사하는 돈이 가난한 이들에게 한 달 동안의 식사 보조비가 된다면 한 달에 한번쯤은 이 형제를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후원 운동은 PWM(해외협력선교회)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 562-5635 김영숙씨께 문의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린 형제들

메이쥙징즈(梅增知)

사도 바울도 배가 3번이나 부서 지는 난관을 겪었다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온 어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중국에서는 당신이 계획했던 일이 꼭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반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은 수시로 발생한다.”

이러한 결론은 아마도 중국의 교통 문제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열차와 비행기의 연착은 다반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아무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내가 홍콩에서 모 시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중도에서 임시 착륙을 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승객이었기 때문에 그저 비행기 안에서 6시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1시간 동안 줄을 서서야 겨우 택시를 탈 수 있었다. 원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는 20여 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은 교통 체증이 매우

심해서 1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못했고, 우린 할 수 없이 택시에서 내려 짐을 등에 지고 걸어 갈 수밖에 없었다.

힘든 것은 나중 일이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교통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엉망이 된 것이었다. 나는 원래 이번 여행 중에 마(馬) 형제와 모 시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그도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로 한 것이다. 내가 탄 비행기가 연착했을 때, 나는 마 형제의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연착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비행기에 대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소식을 알 수 없었다. 비행기가 떠났는지, 중도에 다른 지역에 착륙을 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저 한가지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마 형제와 나는 계획보다 이틀이나 늦게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에게 왜 우리의 여정이 순탄하도록 도와주시지 않냐고

세 차례의 귀국 친지 방문에서 보고들은 바는, 지도자 훈련사역을 위해 중국에 간 메이쥙징즈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의 생활과 민심은 그의 펜으로 생생하게 살아나서 중국의 사회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독자들에게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편집자 주]

원망하였고, 그 때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나에게 대답해주셨다. 사도바울도 세 번씩이나 배가 부서져서 하루 낮 하루 밤을 바다에서 표류했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뭐 별거라고 감히 하나님에게 ‘반드시 순탄한’의 특권을 바랄 수 있겠는가?

중국문화 속으로 파고드는 종교 사상

매번 신화(新華)서점 앞을 지날 때면, 들어가서 어떤 살 만한 책들이 있는지 보고 싶어진다. 중국의 책값이 싸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의 색채를 띤 책들을 해외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서점에 들른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전에는 모두 일률적으로 마르크스 레닌·마오저등의 저서들만 있던 사회과학, 철학류 서가에, 지금은 상당부분 각종 종교서적들이 꽂혀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서적들은 가장 눈에 잘 띄고 찾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책들, 특히 기독교와 관련있는 서적들은 모두 철학류 중에서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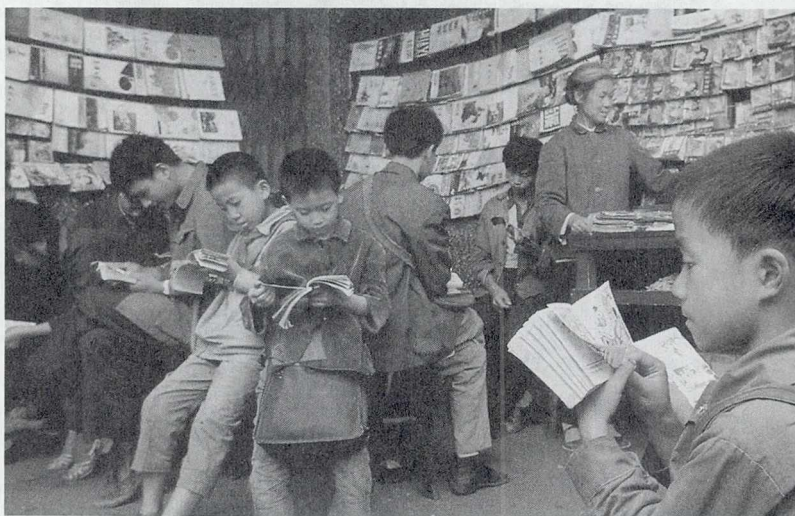
몇 권 살펴보니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고 객관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만약 해외에서 이런 책을 발간했다면, 완전히 복음적인 사역자 훈련 서적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한 형제가 말하길, 며칠 전 원후이바오(文匯報) 부록에 ‘예수가 보고도 고개를 저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문장이 실렸다고 한다. 그 글의 저자는 요한복음 8장 7절의,

예수가 간음한 여자를 잡아온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말씀을 인용했다. 즉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이 오늘날 거리에서 벌어진다면, 아마도 예수가 말씀을 다 마치기도 전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여자를 먼저 때려 죽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예수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고개를 저으며 탄식할 뿐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저자는 성경 이야기를 적절한 비유로 들어 소개했고, 현대의 황폐해진 도덕 기풍을 독자의 눈앞에 그

하길, 자신들은 교회가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주를 잘 섬기지 않는 목사 및 장로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일대의 교회는, 삼자회가 관리하는 집회처소 아니면 ‘중생과(重生派)’ 혹은 ‘호함파(呼喊派)’라는 이단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진리 면에서 이러한 잘못된 교리는 받아들이 수 없다고 했다.

이 순박한 자매들은 그저 자신들이 처한 가능한 조건하에서 힘써 주를 위해 일할 뿐, 스스로 독립적인 가정집회를 조직할 수 있는 용기는 낼 수 없던 것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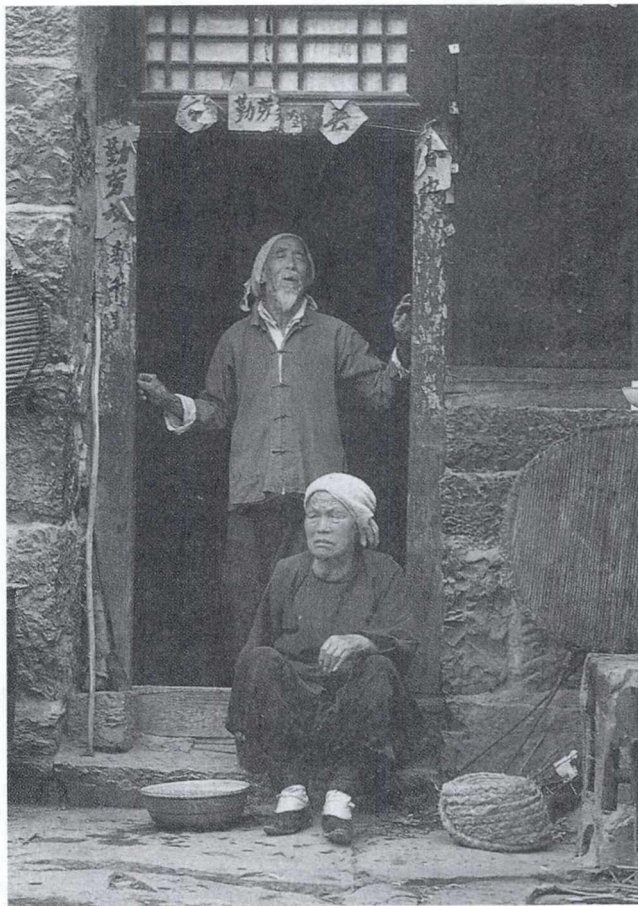
중국 각지에는 이러한 거리의 서점이 많다. 종교 서적을 통한 선교는 확실히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려내고 있다.

갑피를 잡지 못하는 신도들

내가 모 현(縣)에 갔을 때 대부분 중년 부인으로 구성된 한 무리의 신도를 만났다. 그들이 나에게 말

들의 고민을 대했을 때, 나 역시 그들을 인도할 좋은 방법이 없어, 그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일을 할 때 우선 주를 기쁘게 하도록 하고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봉사하면 주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였다.

이렇게 신도들이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는 것이 결코 그 한 지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청상(淸香) 자매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다

지난 번 친지 방문으로 중국에 왔을 때 청상 자매가 하늘 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5년 후에 다시 돌아 오겠다는 약속을 그녀에게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나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나에게 청상 자매를 소개해주었던 뤼(羅) 형

제는, 내가 집에 돌아온 후, 몇 통의 편지를 계속 보내와 날씨가 풀리면 다시 그곳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자고 제의하였다. 마침 내가 그때 다시 중국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뤼 형제와 약속한 시간에 모시 역에서 만나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청상 자매의 고향은 매우 궁벽하고 가난한 지역이다. 열차도 개통되지 않았고 도로도 발달하지 않은 아주 낙후된 지역이다. 우리들은 차를 타기도 하고, 여러 지역의 형제 자매를 만나기도 하면서 이틀이 지난 후에야 겨우 그 현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 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루 종일 우리

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뤼 형제는 누가 방문할 것인지 그들에게 미리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몇몇 형제 자매들은 틀림없이 내가 올 거라고 단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내가 예전에 5년이 지나면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난 몇 년 동안 마음 속으로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도 나를 잊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당시 어느 마을에 가든지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두 몰려와서 나의 손을 꼭 잡고 하는 말, “메이 선생님, 5년 후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요?”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자매는 다시 온 나를 보고는 기뻐서 눈물을 닦고 흐느끼며, “좀 더 일찍 오셨어야지요.”라고 했다. 그리움과 질책이 담긴 이 말은 내게 위안이 되기도 했고, 죄책감을 느끼게도 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은 내가 예전에 몇 년도에 왔었는지, 그때 내가 전한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로 이런 만남이, 주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격려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한다.

청상 자매의 마을에는 복음 전도에 매우 열심인 한 전도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치광이 저우(周) 씨’라고 불렀다. 그가 미친듯이 전도에 열심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마을 전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며, 사찰이나 미신적인 풍습은 이 마을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미치광이 저우 씨는 청상의 할아버

지뻔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칭샹이 지금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녀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나 또한 그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안타까워하며 나에게 귀뜸해주었다. 칭샹 자매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의 오빠는 장가갈 처지가 못되자 자기 여동생을 상대방에게 시집보내는 조건으로 결혼 예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지겠지만 그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칭샹은 여러 번 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가게 되었는데 정말 원치 않는 일이라며,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의 적지 않은 농촌의 청년 신도들이 칭샹과 비슷한 처지로 어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할까?

미치광이 저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 되었지만, 이 작은 마을에 전해진 복음의 불길은 여전히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주위의 마을도 자주 이곳으로부터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다른 마을에서 온 한 형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지난 번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때 이 마을에 찾아와 집회에도 참가했다

고 말했다. 당시 그가 살던 마을에는 단 한 가정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그는 그 마을의 집회 책임자를 맡고 있고, 약 70~80명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이번에 형제 자매들이 언제 다시 오냐고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지난 번 약속을 못 지킨 것을 교훈 삼아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 속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주님, 5년만큼 길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10년 간 천 배 성장한 교회

장 형제는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역자로서, 평범한 공장의 노동자이다. 소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심방하고 성실하게 사역하였기에, 고등교육을 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80년대 초에 그는 퇴직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그곳에는 집회 처소가 한 군데도 없었다

고 한다. 장 형제는 우선 나이 지긋한 형제 한 명과 자매 한 명을 찾아 이렇게 셋이서 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반년 후 집회에 모인 신도의 수는 4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8, 9년 전 내가 그곳에 한 번 찾아갔을 때, 집회처소에는 신도들로 가득했다. 대략 3, 4백 명 이상 되어 보였다.

이번에 장 형제를 만나 그곳 상황을 물었더니, 현재 집회처소가 20여 개나 되고 고정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5, 6천 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체 현의 신도는 1만 명 이상이고 지금 여러 곳에 예배당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장 형제는 언제 한번 그곳에 들 수 있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선불리 시기를 결정해서 말하지는 못하였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 글은 <守望中華> 115기 “回國探親見聞(三)”을 번역한 것으로 필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번역 / 정희정·자원봉사자



현재 부흥하고 있는 H성의 한 노천에서 열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복음을 듣고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길이 일고 있는 중국에서, 천 배 성장하는 교회는 곳곳에 세워질 것이다.

你是怎麼信主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두 집사가 서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다.

韓執事：李執事，你從小跟父母到教會，我很好奇你是怎麼接受主的？

Hán zhíshì : Lǐ zhíshì, nǐ cóng xiǎo gēn fùmǔ dào jiàohuì, wǒ hěn hàoqí nǐ shì zěnmē jiēshòu zhǔ de?

한 집사 : 이 집사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다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李執事：我升高中那一年，參加夏令會時遇見了主。

Lǐ zhíshì : Wǒ shēng gāozhōng nà yì nián, cānjiā xiàlínghuì shí yùjiàn le zhǔ.

이 집사 :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그 해,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韓：發生了什麼事呢？

Hán : Fāshēng le shénme shì ne?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李：夏令會最後一天，我去禱告室靈修，神的話光照我，使我明白 原來我也是個大罪人。

Xiàlínghuì zuìhòu yì tiān, wǒ qù dǎogàoshì língxiū, shén de huà guāngzhào wǒ, shǐ wǒ míngbái yuánlái wǒ yě shì ge dà zuìrén.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실에 가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나 역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韓：原來上教會跟信耶穌不見得是同一回事。

Yuánlái shàng jiàohuì gēn xìn yēsū bú jiàn de shì tóngyī huìshì.

알고보니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똑같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李：沒錯，得救的確據是很重要的。

Méicuò, déjiù de quèjù shì hěn zhòngyào de.

그럼요,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好奇 (hào qí): 궁금하다.

高中 (gāo zhōng): 고등학교.

遇見 (yù jiàn): 만나다.

發生 (fā shēng): 발생하다, 일어나다.

禱告室 (dǎo gào shì): 기도실.

接受主 (jiēshòu zhǔ): 예수를 영접하다.

夏令會 (xià lǐng huì): 하계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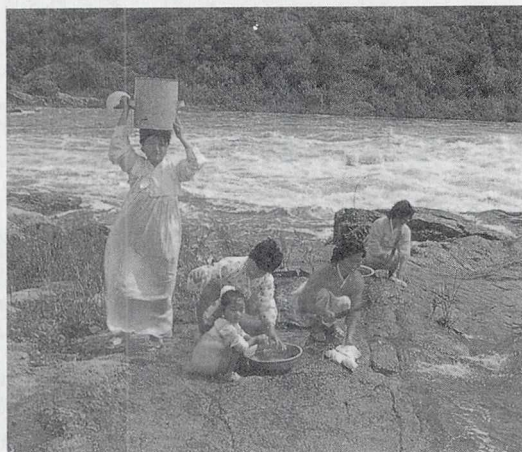
靈修 (líng xiū): 묵상하다.

光照 (guāng zhào): 비추다, 깨닫게 하다.

得救的確據 (dé jiù de què jù): 구원의 확신.

특집

조선족 교회 와 선교



중국 만주(滿洲) 한인선교와
산둥(山東)성 선교로 시작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80년대 말과 '90년 초, 동북삼성 조선족선교로
다시 그 맥을 잇게 된 지도 어언 6, 7년이 흘렀다.
그간에 수많은 선교사가 여러 모습으로 건너가
수고하였고,
지금도 각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역의 허와 실 및
조선족 교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불같은 열심과, 민첩한 손과 발로 대변되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특히 조선족선교는
이제 한번 냉철한 머리와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될 필요에 직면해 있다.
여기, 만주선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족과 조선족에게 비쳐진 조선족 교회와
그 선교의 실상을 소개한다.
보다 창의적인 조선족선교,
나아가 중국선교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재만주(在滿洲) 한인(韓人)선교의 발자취

편집부

오늘날 조선족 교회의 뿌리인 만주 한인 교회는, 당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한국 교회에 의해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형성되었다. 비록 서양선교사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만주의 우리 동포들은 기독교를 통해 당시 일제하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민족의식을 키웠으며, 오히려 국내 교회보다도 더 순전한 신앙의 싹을 틔웠다.

재만주 한인선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조선족선교를 재조명하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 글은 1949년 이전까지의 만주 한인선교 역사를 다루고 있다. 우선 한민족 만주 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기독교 전파과정을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와 한국 교회 선교의 두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최초 선교라고 할 수 있는 만주선교의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고 교훈을 찾는 것은, 오늘날 중국족 교회를 새롭게 함은 물론, 한국 교회를 되살리는 새로운 처방이 되며, 한국 교회에 맡겨진 중국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유익한 교훈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한민족의 동북 이주

만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중국의 동북부 지역 일대를 가리킨다. 중국인들은 이 지역을 동북삼성(東北三省: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이라 불렀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만주로 통칭하였다. 또한 압록강 대안(對岸)을 남간도(南間島), 두만강 대안을 북간도 혹은 동간도라 불렀고, 봉천성(奉天省: 지금의 랴오닝성) 일대와 길림성 남부를 합하여 북만주라 불렀다.

만주로의 이민이 시작되는 19세기 후반 우리 나라는, 정치적인 혼란과 이와 때를 같이 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은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온갖 고난과 위험을 무릅 쓴 중국 이민을 결심하게 된다. 중국이 결코 이 민생활에 유리한 곳은 아니었지만, 여러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중국 동북부

를 개척하면서 생활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당시 한민족의 중국 이주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경제적 원인

한말과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이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조선 후기에 계속된 흉년과 탐관오리들의 탐학으로 인하여, 평안도, 함경도 등 북부 지역 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두만강, 압록강 대안으로 월경(越境)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강압적인 금지정책을 썼으나, 후에는 방관하였으며,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자 적극적으로 이주민 보호에 나서기도 하였다. 조선이 일제에게 강점되는 1910년에 이르기까지, 생존을 위한 이주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10년 이후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만주 이주의 새로운 양상이



출렁이는 물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가는 조선족 아낙네들. 1세기 전,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강 건너 만주로 이주했던 우리 민족의 파란 많은 역사를 보는 듯하다.

나타났다. 1908년 일제가 조선합방 후 일련의 식민지 재편성을 위한 토지수탈 정책(1912~1918)을 강행함에 따라, 세습적 경작권을 빼앗기고 생활의 터전을 잃은 경상도, 강원도 농민들의 이주가 급증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이민들이 중국 동북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되었다.

정치적 원인

1910년 이후 3·1 운동을 전후하여 국내에서의 항일 독립투쟁에 제약과 한계를 느낀 민족주의자들은,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추진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확보하고자 만주로 건너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많은 종교인들도 동북지방으로 와서 적극적인 항일 구국(救國) 투쟁을 벌였다. 기독교 교회와 단체, 학교 등이 독립운동의 연락 및 활동 기지로 사용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도 끈질긴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중국의 관내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만주에서의 항

일투쟁은 중공과 합동으로 진행한 공산 진영에 의해 지하운동으로 계승된다.

종교적 원인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계였는데 이들은 청교도 신앙과 개척정신을 강조하면서, 당시 한국의 고난에 찬 현실을 영국에서 고난당하던 청교도들의 입장과 비교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한국의 신도들 가운데 새로운 신대륙 만주를 찾아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한인들이 이주한 동북 지역에 종교적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특히 북간도 지역 등에 이러한 한인 새 촌락이 많았다. 한 기록에 의하면 “심산구곡에서도 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으며, 구세동(救世洞)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조합하여 토지를 사고, 동명을 구세동이라하고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후에 각각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신촌락을 형성하여 동명과 교회명을 기독교식

으로 명명한 예는 이외에도 영생(永生)동, 낙원(樂園)동, 명신(明信)동, 희망(希望)촌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에 관한 소식이 국내 교계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어 만주와 간도로의 지속적인 이주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말에서 일제에 이르는 기간 동안 행해진 정치·경제·종교적 원인에 따른 이주 결과, 만주에는 해방 직전까지 약 21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던 한민족사상 최대의 해외 이주집단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만주선교의 개척과 한인 교회의 형성

생존과 개척을 위해 불굴의 투지로 노력하였던 재만 한국인들은, 이역에서의 생활에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평안을 갈구하면서, 각종 종교에 적극적으로 귀의하였다. 이중 기독교는 가장 유력했던 종교로 만주 사회에 자리잡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韓人) 대상 선교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줄기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서양 선교사들이 만주에서 직접 전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한국 교회의 줄기찬 만주 선교이다.

서양 선교사들의 만주 선교

만주의 한국인들에게 처음으로 선교를 시도한 인물은, 스코틀랜드 전국 성서공회의 대표자로 중국 산둥(山東)성 지부에 와 있던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이다. 그는 1865년 토마스(R. J. Thomas)목사를 한국에 파견하였으나, 토마스 목사는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 사건으로 순교하였다. 윌리엄슨은 토마스의 생사를 알아보고 한국의 사정을 알기 위해, 1867년 만주에 왕래하는 한국인들에게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접촉하면서 성경과 전도문서를 나누어주었다.

다음으로는 역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인 존 로스(John Ross) 목사가 1871

년 가을, 동만주 선교탐사 여행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1873년 만주의 링커우(營口)에 자리잡고 1874년 10월 경, 한국인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반장(半莊)의 고려문(高麗門)을 방문한 후 한국인 선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1876년 5월 두 번째로 고려문을 방문한 그는, 의주 출신의 이응찬을 만나게 된다. 그에게서 로스는 한국어와 한글을 배웠고, 이응찬은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다. 이응찬은 이후 로스 목사의 동료인 맥킨타이어(John Macintyer)의 누가복음 번역을 도왔으며, 1876년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아 만주의 개신교인이 되었다.

같은 해 로스가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되었다. 그후 1880년에는 맥킨타이어가 지도하는 조선인 성경반이 30여 명의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부터 백홍준, 서상륜, 김청송 등이 매서인(賣書人)이 되어, 국내와 만주 증안현 등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하였다. 만주에 돌아와 활동하던 로스 목사는 1884년 증안현의 조선인 촌락을 방문하여 75명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증안현에 만주의 첫 조선인 교회가 설립되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1862년 원산에 선교지부를 설치하고, 1898년에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두 선교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함경남북도, 간도, 북간도 일대의 선교사업을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맡게 되었다. 간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교사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의 구례선(具禮善 Robert G. Grierson)이다. 그는 1902년 함경도를 경유하여 북간도와 블라디보스톡 일대에서 전도하였다.

1906년 이후에는 선교사 부두일(富斗一 W. R. Foote), 박결(朴傑 A. H. Barker), 서고도(徐高道 W. Scott), 민산해(閔山海 S. Martain) 등과 국내 전도목사 최관환 등의 적극적인 전도로 각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1906년 노일 전쟁 당시, 간도의 이주 한인

들이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 때 선교사들은 그들의 치외법권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신도들을 보호하였다. 한국인 선교에 종사하던 선교사들은 국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종교 비정치화 중용으로 인하여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재만 한인 교회와 관계가 깊은 캐나다 선교부의 재만 선교사들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신앙적, 인도적 양심에 따라 배일적 태도를 분명히 갖고 한국인들의 항일운동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기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북간도, 서간도를 비롯한 만주, 소련 지역까지 확대되자, 국내의 3·1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제는 1920년 간도에 군대를 출동시켰다. 일본군은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재만 한국인을 학살하였으며, 특히 당시 항일운동의 본산지였던 교회와 단체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에 선교사들을 비롯한 재만 한인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본군의 비인도적 만행을 일일이 조사하여, 한국 내의 선교사들과 미국의 각 선교부를 비롯한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며 규탄하였고, 일제 당국에도 강력히 항의하였다. 선교사들은 피해를 당해 좌절해 있는 재만 한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고 구제하여, 이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에도 헌신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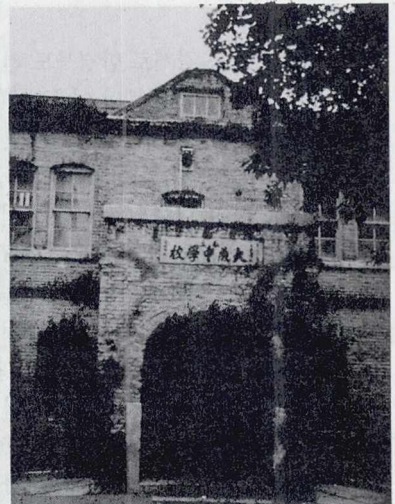
국내 교회(장로교)의 만주선교

국내 교회의 만주선교는 1900년 경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선교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는 1920년대이다. 특히 이 시기는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감리교에서는 선교회가 조직되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장로교의 동만주선교 만을 다루기로 하겠다.

1920년대 들어 만주선교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장로교는 남만노회(南滿老會), 간도노회(間島老會)를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재만 한인 교회는



위 사진: 연길(延吉)을 가로지르는 부르하통강.



조선족 교육의 요람이었던 대성중학교 건물

100년 역사의 용정(龍井) 명동촌. 민족 시인 윤동주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1920년대 이후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남만노회

남만지역은 본래 영국 장로교의 선교지였던 곳으로, 압록강을 경계로 평안도의 맞은편에 해당하던 지역이다. 1913년 선교사 2명이 통화(通化)에서 중국인 교회를 빌려 사경회(查經會)를 개최한 이래, 신자가 급증하여 700여 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1921년 노회가 조직되었을 때는 34개의 교회와 3,327명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다.

당시는 3·1운동 이후 일제의 토벌로 인한 환란과 기근으로, 심한 경제적 곤란을 당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각 교회는 부흥하고 연보하는 힘도 진보되어, 각 교회에서 타 지역으로 전도인을 파송하여 전도하는 등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다(1922년 남만노회 보고서). 이 지역은 불과 1년 만에 피선교지에서 선교지로 바뀌었으며, 1923년의 교인 수는 5,101명으로 증가하였다.

간도노회

간도는 두만강을 경계로 함경북도 건너편 지역을 말하는데, 1845년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많은 조선인들이 거주하였다. 1906년 중국인 단진(單金)이 조선인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다량의 전도지와 책자를 구입하자, 이에 도전받은 장로교는 간도지역에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한다.

1906~1911년까지는 북간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되는 교회 성장의 황금기였다.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 체결되어 한민족 이주가 급속도로 이루어져 106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주해 온 신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려 24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3·1운동 직후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막심한 피해를 당한 간도지역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1922년 간도노회를 결성하는 줄기찬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간도노회는 1925년 동만노회로 개칭되었는데, 이것은 중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조선족 교회는 부흥하고 연보하는 힘도 진보되어, 각 교회에서 타 지역으로 전도인을 파송하여 전도하는 등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다

국인들이 간도라는 명칭을 마치 한국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무척 싫어하였으므로 중국인들의 민족감정에 대한 배려로 고친 것이었다.

선교의 방법

한국 교회의 만주선교는 외국 선교부의 국내 선교와 마찬가지로 네비우스 방법에 입각하여 시행되었다. 먼저 국내에서와 같이 선교부 간에 지역을 분할한 후, 선교사들의 광범위한 순회 전도와 철저한 자립 선교를 병행하였다.

지역 분할

만주선교가 본격화되면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선교구역을 할당하여 여러 차례 조정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충돌이 선교 경쟁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하였다.

순회 전도

장로교는 남만 대전도회를 조직하여 순회전도를 실시하고, 각 교회에서 전도인을 세워 선교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감리교도 이와 마찬가지로었는데, 이것은 교역자의 부족 때문이었다. 당시 소수의 선교사들이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순회 전도가 가장 적합한 선교방법이었던 것이다.

자립 선교

일제하 장로교 총회 전도부에서는 산동선교를 제외한 모든 설립된 교회에 대해, 정치·교육·보급 일체를 자립하도록 하였다. 재만(在滿) 한인 교회의 경우, '자기가 새로 집을 건

축하여 예배당으로 바친 일, '농장을 배치하여 새로운 이주민을 안정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는 일, '노회 산하 목사의 월봉을 다 자당(自當: 자기부담)한 일' 등이 총회록에 자주 보고 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의 자립적 신앙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재만 한인 교회들은 자립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 목사·선교사들의 생활비, 예배당 건축비 마련을 위해, 개인의 귀중한 재산을 헌납하고 가옥을 내놓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자립 정신은 선교 초기에 국내 교회에 재난이 발생하자, 오히려 구제헌금을 국내로 보내던 일로도 알 수 있다.

또 만주 한인 교회의 선교에 대한 투자 역시 국내 교회를 앞서고 있었다. 1922년 당시 국내 교회의 교인 1인당 전도비가 평균 10전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남만노회의 경우 22전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볼 때 이들의 자립도와 선교에 관한 열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교역자들을 양성하여 전 만주에 대한 선교를 담당하려던 것이었다.

봉사 선교

1910년대 북간도의 한인들은 무척 미개하고 경제적으로도 최악의 낙후된 형편속에서 생존해야 했다. 보건 위생은 커녕, 병이 들면 집을 치거나 굶거리를 할 정도였으므로, 질병에 의한 사망율은 출산율을 초과하였고, 유아 사망률 또한 높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가 경영하던 연길현 용정촌의 제창병원은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대식 의료기관으로서 한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병원의 설립은 1914년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 바커(Barker) 부부가 용정촌 동산에 내주하여 선교사업을 전개한 데서 시작되었는데, 은진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등 교육 사업과 병행하여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선교부의 부속사업으로 시작한 제창병원은 일반인에게는 실비 진료, 빈곤자에 대해서는 무

료 진료를 실시하였고, 먼 지역을 순회하며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의료선교도 감당하였다.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광복 이전까지 재만주 한인들의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는 가장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1930년대 중엽의 통계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의 기독교 신자는 무려 4만여 명에 달하여 전체 한인 종교인수의 63.1%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중국으로 이주했던 한인들이 차츰 귀국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종교인사들과 반 수 이상의 신도들도 만주를 떠났다. 당연히 재만주 한인 기독교 신자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더욱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에 따라 이 지역 한인들의 기독교 신앙활동도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 만주 한인 교회는 조선족 교회로 변모하고 그 역사적, 민족적 명맥은 희미해지게 되었다. 또한 이후 문화대혁명으로 한인 기독교 신자들은 다시 한 번 큰 수난을 겪어야만 했다.

참고자료

김형석, “재만 조선인교회와 중국선교” 『중국을 주께로』 1992. 7/8

김형석, “1920년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만주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연구』 제9호. 1986. 8

하기중, “연변지역 선교고찰에 관한 소고” 1995.

강인규, “1920년대의 반기독교운동을 통해 살펴본 기독교” 『한국기독교사연구』 제9호. 1986. 8.

채현석, “재만주 한국인교회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연구』 제3호. 198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 기독교문사, 1991

이성륜, “한인교포의 역사적 배경과 교회사” 한국중미기독교교회.

이훈성, “중공내 교포에 대한 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7

이런 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이 본 한국 선교사

양명득

배경

중국의 조선족 교회가 문화혁명 후인 70년대 말부터 교회당을 되찾은 이래로, 그리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된 이래로, 많은 외국의 한인 방문객들, 특히 한국의 교회 관계자들이 동북삼성을 방문하고 있다.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이들의 단기적인 방문이나 장기적인 체류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은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려, 주변에서 회자되거나 혹은 소문으로 더 부풀려져 동북삼성에 떠돌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필자는 좀 더 정확한 선교사들의 존재와 선교 활동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례를 모으는 것이 기본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고, 한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생명이자, 첫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일차적으로 수집하고, 한두다리 건너 전해진 이야기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무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동북삼성에서 모아진 이야기가 150여 개 되는데, 이 정도면 1차 자료가 되리라 생각되어 몇 가지 각도에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51개의 자료에서 선교사들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이 42개로 28%를 차지하고, 나쁜 이야기들은 84개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5개는 좋은 사례도, 나쁜 사례도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좋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와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그 외에 중국에 살면서 핍박받는 모습이나 선교사가 자기를 찾는 모습도 몇 개 있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이야기들 중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중국 전반에 대한 선교사들의 무지에서 오는 실수들이고, 그 다음으로 돈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자질 문제, 교파 문제, 일꾼 조종 문제, 이성 문제, 신비주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교회 일꾼 자신들의 문제가 차례로 드러났다.

필자는 이런 일차 분류의 자료를 중국에 있는 한 젊은 목회 지도자들의 모임(중국 현실상이 모임의 이름을 밝힐 수 없음)에 내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룹을 나누어 토론하게 하였다. 먼저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다음, 그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고, 마지막 단계로 한국 교회 선교에 대한 그들의 권면을 쓰는 과정을 밟았다. 권면을 쓰는 단계에서 '한국 교회에 드리는 호소문'까지 작성되어 교계 신문에 발표하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중국 교회의 현실상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남게 되었다.

이 글은 수집된 150여 개의 선교 사례와

젊은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이하 교회 지도자들)과 토론한 내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선교사들의 무지

단기 여행으로 중국에 오는 교회 관계자들이나, 장기 체류를 하는 선교사들 중에서 빠른 시일에 열매를 거두려는 열심과 조급함이 중국의 상황에 대한 무지를 낳고, 만날 때 여러 가지 보기 흉한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민감한 정치 문제를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예, 삼자교회를 비방하며 지하교회만 찾는 모습,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소개하는 사람, 중국이 한국의 60년대와 비슷하다는 등의 피상적인 비교로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을 주고 떠나는 선교사들의 언행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해와 공부가 있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무조건 들어오는 선교사들로 인해 일어나는 사례들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미리 그 지역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민 13장)을 지적하였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 미리 답사하고 공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닐 때마다, 그 지역의 회당 지도자나 동역자들과 관계를 맺은 것도 그 지역에 대해 먼저 알고자하는 노력으로 이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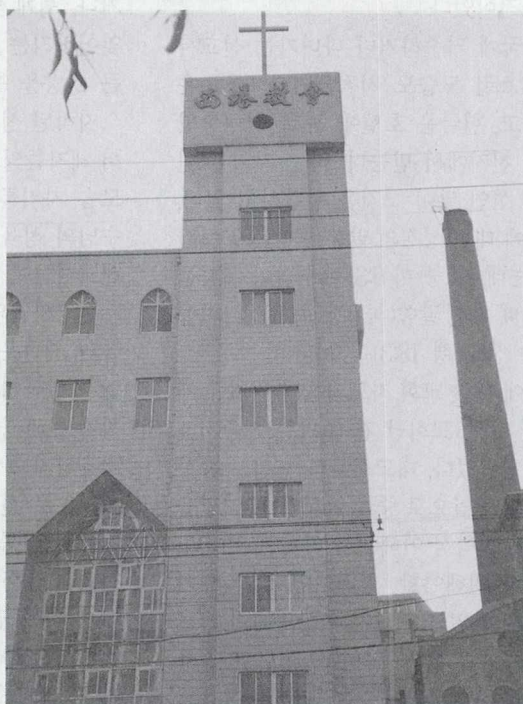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교사를 보내는 총회 선교부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후보들에게 중국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고 현지 적응 훈련을 시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사회주의와 삼자원칙에 동의는 못할지라도, 그 배경을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권고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지역 교회와 관계를 맺어 협력하되,

지역 교회의 일꾼들과 경쟁하거나 대항하는 일이 없도록 권면하였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지적은, 중국은 목사들이 와서 마음대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될 수 있으면 직업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들이 들어와 중국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돈으로 인한 혼란

현재 한국 교회가 막대한 선교 자금으로 중국의 조선족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보통 교회당 건축비용, 일꾼 봉급 지원, 복지와 교육기관에의 투자,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러 오는 선교사들의 여행 경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중국에 공식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이유로, 장기 거주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중국에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의 생활비나 경비도 선교비의 한 몫으로 지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재작년 새 예배당을 신축한 심양 서탑교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로 교회당 건축 지원과 일꾼 봉급 지원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이 곳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 교회당 건축 현금이 나 일꾼 월급을 주면서 자기 교단과만 교제하자고 하고 있다. 또 지역 일꾼 중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돈을 쥐, 지역 일꾼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 또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큰 건물을 먼저 세워주어 '운전사도 없는데 차만 사주는' 경우 등이 돈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염려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오는 많은 선교사들의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한다'는 발상과, '물질적 축복이 곧 하나님 사람의 표증'이라는 신학적 사고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가정에서 드리는 처소교회를 열등한 것으로 보아, 어서 빨리 큰 교회 건물을 세워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대교회지향병이지 성경적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거나 다녀가는 선교사들의 사치스런 모습도 지적되었다. '용돈은 택시에 주고, 현금은 호텔에 하고, 성령충만은 백두산 천지에서 받는다'라는 지역 교인들의 조소 섞인 말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돈 문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많은 곳에서 인용되었는데, 그 중 마 6:3,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눅 9장, 마 10장), 바울의 자비량 선교(행 18:3) 등이다.

돈 문제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중 제일 강렬한 것은, 교회당 건축 지원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대교회보다는 선교 중심의 처소교회가 앞으로 중국 교회의 참 역할을 감당한다는 신학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꼭 돈으로 지원해야할 형편이면, 그 지역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와 상의하여 그들이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현금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다.

또 선교사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중국 사람의 수준에 맞게 살면 좋

겠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예로 선교사가 택시만 타고 다니거나, 식모를 두거나, 비싼 보약이나 골동품 등을 사는 모습이 열거되었다. 또한 조선족 교회만 도우려고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한족 교회들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였다.

일꾼들 봉급 주는 문제는 뒤에 가서 독립된 장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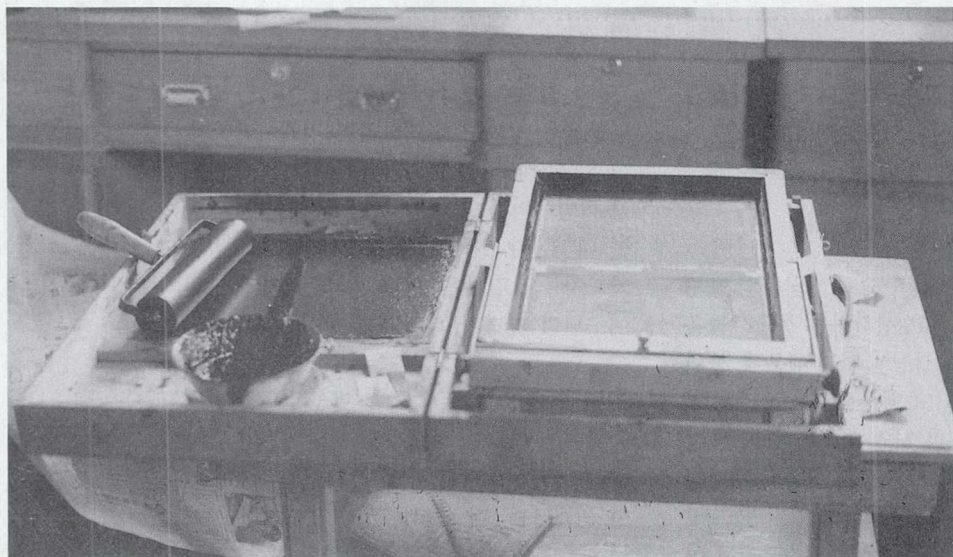
선교사들의 자질

일부 선교사들의 자질 문제의 심각성을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그들의 언행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행이나 사업을 하러 왔으면서 선교하러 왔다고 하는 경우나, 중국의 음식이나 화장실 등에 대한 경멸적 태도, 자기 자랑을 계속하는 모습,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반말 비슷하게 하는 말투 등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중국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이, 그저 자기 교단의 신학만 고집하거나, 쉽게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 등이 이곳 지역 교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지적된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성육신(빌 2:8), 그리고 갈 6:14 등이 선교사들이 표상으로 토론되어졌다.

선교사들의 자질 문제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지적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서 먼저 한국에서 목회에 실패했거나 목회지를 찾지 못해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총회나 선교단체에서는, 목회를 원만히 잘하는 목회자 중에 선교적응 훈련을 거쳐 협력 동역자를 파송해야 한다는 권면이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는 일방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보겠다는 열심보다는, 함께 중국 속에서 생활하며 대화 형식의 교제를 통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작은 약속이라도 했으면 반드시 지켜



조선족 교회는, 말씀으로 지도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자질과 인격을 갖춘 사역자를 원한다. 심양 서탑교회에서 사용하는 등사기. 성경과 서적들이 부족한 중국에서 이러한 등사기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된다.

야 하고, 못 지키게 되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여, 지역 교인들 간에 선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권면이다. 토론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의 결론은, 무슨 예수님같은 인격의 선교사를 욕심 내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인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그런 동역자들을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교파간의 문제

중국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하나의 협의회를 이루어 교회 일치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된 교회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전통간의 공통점을 서로 구하고 다른 점은 일단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교회의 이런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 한국 선교사들 중에는, 자기가 속한 교단과 교단 신학의 우월성, 심지어는 절대성을 주장하여 중국 교회 일꾼들 간에 긴장을 싹트게 하는 요소를 만들기도 한다.

중국의 어느 한 교회를 지원해주고, 그 교회가 한국의 자기 교단 소속이라는 의식을 주입하거나, 그 교회가 한국 교단의 지교회 혹은 어느 노회 소속 개척교회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그래서 타교단의 선교사나 다른 신앙 전통을 지닌 중국 교회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며, 한국의 그 교단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방문단들은 꼭 그 개척 교회를 순찰하는 연례 행사를 하고 있다. 중국 교회의 삼자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제국주의적 선교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동역자 관계이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내용(고전 3:5~9),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유대인 전도자들인 야고보, 게바, 요한과 교제의 악수를 하며 협력하는 모습(갈 2:9)이 그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자기 교단 배경을 가지고 중국에 오면 일단 자기 교단의 신학만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신앙의 전통과 신학도 듣고 배워, 성령이 역사하시는 깊은 모습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또한 중국 교회가 어떤 동기에서 교회 일치를 하였는지 중국의 종교 정책을 이해해야 하며, 처소교회들을 상대로 한국 교회의 교세 확장을 하려는 죄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복

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선교사들의 이방성과 편협된 신학으로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꾼 조종의 문제

동북삼성에 있는 조선족 교회 일꾼들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들은 그들을 가르치려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일꾼을 조종하려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실 지역 일꾼들 중에는 정규 신학 공부는 고사하고 성경 학습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중국의 일꾼들을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이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적지 않다.

교회당 건물을 지원하면 보통 그 교회 일꾼의 봉급까지 줌으로 관계를 지속하는데,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선교사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교회 행사를 모두 관리하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처소교회까지 관할하려는 모습이다. 세례와 성찬은 물론이고 강단에 설교자를 세우는 일까지 선교사나 그 선교사의 교단에 국제전화로 상의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찾은 성경의 권면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막 10:45),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바울의 권고이다. 개척 교회에 대한 바울의 목회는 기도나 사랑이었지, 그들의 자치권까지 빼앗으려는 모습은 없었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중국의 일꾼들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봉급을 일체 중단해 달라고 호소한다. 그 봉급이 끊어지면 생활이 당장 곤란해 질 수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의 모습을 이루겠다는 결단이기도 하였다. 꼭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 중심교회 지도자들과 토론을 거쳐 그들 스스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재정 지원을 자랑하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는 지역 교회 일꾼들을 섬기고 협력하려는 정책이어야지, 그 위에 군림하여 자기들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식민주의적 발상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한 마디로 토론에 참가한 젊은 지도자들의 결론은, 선교사들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성 문제

중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남자들인지라, 선교사를 비방하는 이야기 중에 이성 문제가 꼭 따르는데, 필자가 수집한 사례들은 소문에 비해 적은 숫자였다. 한 두 가지의 사건이 부풀려져서 동북삼성에 떠돌아다닌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문제가 극히 몇 선교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은 전체 선교사들에게 심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교회 안에 지금은 남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70년대 후반 교회 문을 다시 열었을 때는 거의 여자들인지라, 선교사들이 주로 여자 일꾼들과 상의를 하게 되는 형편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주로 길 안내자로 여자를 세웠다가 오해를 받거나, 양말을 삼아 함께 다니면서 받는 의심, 한국 남자들의 부드럽고 예의 있는 모습에 자기 남편을 비교하여 생기는 가정불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선교사로 들어와 함께 사는 경우, 혼자 있으면서 여자 식모를 두는 경우, 믿지 않는 남편과 갈라서라는 권면, 그리고 일부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 차별 제도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 등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곳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에게 주는 권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보냈고(눅 10:1), 여성들을 높이는 예수님의 모습(마 15:28, 26:13), 부부가 함께 선교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독신인 바울도 동역자는 많았지만 이성 문제는 없었고, 믿음의 아들은 있어도 양말을 삼은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성 문제에 대한 지도자들의 권면은, 결혼한 선교사는 되도록 부부가 함께 와야 하고, 독신인 경우에는 길 안내를 여자 한 명에게 부탁하지 말며, 또한 여자 식모를 두지 말 것과, 중국의 가정 생활을 존중해 생활 습관이 다르더라도 인정해 주며, 기본적으로 서양이나 한국 사회와 다른 중국의 남녀 관계에 대한 문화를 이해할 것 등이었다.

신비주의 문제

현재 중국에는 자생적 신비주의와 외국에서 들어 온 이단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이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을 통해 들어온 단체도 적지 않다. 과거 10월 종말론을 대표한 이단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정통 교단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도 신비주의와 기복 신앙을 주입시킴으로 조선족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을 빚고 있다. 방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 최면술이나 기공을 이용한 신비주의, 안수를 통한 은사 집회, 미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선교사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는 보통 교회 안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인들 중 기존 교회에서 이탈되어 나가는 경우도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지적인 성경 말씀은 먼저, 축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고,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고전 12:10), 물질의 축복이나 병고침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결과로서 진정한 치료자는 예수님이고, 재림에 대한 가르침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는 삶이지(마 25:1~13)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권면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을 잘 가르치고 방언, 병고침, 예언 등을 너무 강조하거나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중지하고, 종말론으로 위협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격리시키

는 것보다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었다.



지역 일꾼들의 문제

마지막으로 중국 조선족 일꾼들의 자체적인 문제도 다루어졌다. 처소나 교회 일꾼들 중 의식주 문제를 선교사들에게 의탁하려는 태도나, 현금이나 지원 액수에 따라 강단을 내주는 모습, 교회 건축을 위해 외국 선교사들만 찾아다니는 행태를 비롯하여, 신학적 바탕이 부족해 선교사들의 말은 모두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선교단체의 교회 건축 지원을 타교회에 연결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으려는 태도 등이 토론에 참가한 교회지도자들 스스로에 의해 지적되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석으로, 자족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바울(딤후 6:8), 게하시의 욕심(왕하 5장)과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행 5장), 그리고 일꾼됨의 기준(딤후 3:8~13)을 설명하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 스스로의 자각은 먼저, 개별적으로 주는 돈은 일체 받지 않고 그 돈을 교회에 헌금하도록 하며, 교회 건축을 교인들의 힘과 기도로 하도록 도와 외부에 손별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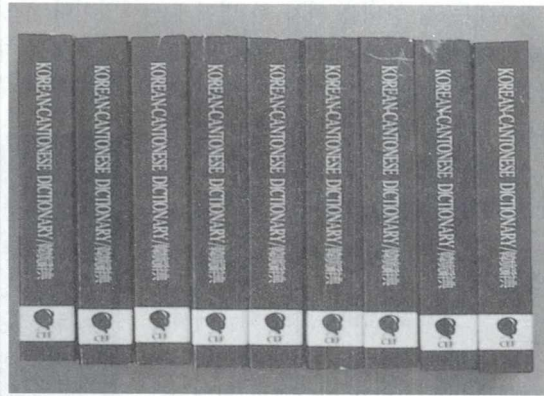
또한 일꾼들을 선택할 때 성경의 기준에 따라 섬기는 자를 선택하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여 선교사들의 혹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갖춘 일꾼을 키우는 제안이었다. 중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흥시켰는데,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지지 않겠느냐는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결언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 관한 사례를 모으고 또 기본 자료를 가지고 젊은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중국의 처소교회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애증을 강하게 느꼈다. 사랑이라 하면 물질적 도움이나 신학 지식에 대한 존경에서 오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중국 밖에 사는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 세계 선교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과, 또 중국의 한구석인 동북에까지 찾아와 손을 잡고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눈물여린 애정이라 하겠다. 반면 중오라 함은 돈과 시장의 논리로 조선족 교회의 순수함을 더럽히고 동료 일꾼들의 마음까지 빼앗아 편을 가르게 하는 데서 오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절규이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지역 일꾼들 사이에 교차하면서도 중국과 중국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선교동역자들로 인하여 지금도 그들은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21세기로 들어가는 중국에서의 선교는, 동경 위에 놓여 빛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형체는 없지만 맛으로 느껴지는 소금의 역할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광둥어 사전(韓廣辭典) KOREAN-CANTONESE DICTIONARY

전진휘(全進輝)편저, 670쪽,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출판부
가격 18,000원(선교단체, 개 교회 단체주문시 15,000원)

한국어린이전도협회에서 한국 최초로 광둥어 사전을 집필, 출판하였다.

홍콩에 거주하는 한 선교사의 7년 여의 각고 끝에 소개되는 이 사전에는 2만여 개의 광둥어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북경어 외에는 중국내륙의 방언들에 대해서 거의 소개된 바가 없다. 사실 중국 내에는 150여 개의 방언이 있으며 북경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12억(1995년 현재) 중에 7억 5천만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외의 사람들은 지방방언을 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2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만 8개나 되며, 그중에서도 광둥어는 중국 5대 방언 중의 하나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광둥어를 쓰고 있는 광둥성이 중국의 30개 행정구역 중 경제소득과 외화수입이 가장 높다는 점이며, 둘째는 지금까지 중국선교에 있어서도 광둥성이 교두보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편자는 늘 광둥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광둥어 습득에 지침이 될만한 소사전이라도 편찬하는 일이야말로 여러 면에서 급선무라고 생각해왔다..."(편자의 한광사전 서문 중에서)

구입처/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출판부 매장

TEL: 02)393-7117 ~8, FAX: 393-2077

본 사전의 판매 수익금은 중국선교, 특히 광둥성과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조선족 교회 이렇게 본다

-한족 가정교회 지도자가 본 조선족 교회-

천다오성(陳道生)

조선족 교회에 대한 진단

조선족 교회는 한족 교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신앙생활의 자유도 한족보다 더 보장받고 있으며, 생활 수준도 훨씬 높다. 교인들의 지적 수준도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교회의 영성, 헌신, 제자도 등은 한족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 교회가 건전한지, 아니면 타락하거나 변질되고 있는지는 그 교회의 영성을 살펴보면 진단할 수 있다. 조선족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의 타락은 바로 사역자들의 타락을 의미한다. 중국 교회는 사역자들의 신앙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선족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은 타락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알 수 있다.

돈을 사랑한다.

일부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주로 중심 처소 사역자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돈을 밝히는 듯하다. 그들의 생활은 교인들보다 윤택하며, 축재(蓄財)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한 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사역을 하는 동기는 대부분 선교비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동북삼성 지역을 중점으로, 조선족 선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목회자, 선교사 등 많은 이들이 수 차례 이 지역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한 결과, 조선족 교회는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교회, 그 중에서도 한족 가정교회가 조선족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 글은 한동교회 인병국 목사가 논문 작성차, 1995년 말 중국 모 성(省)의 한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이 교회의 영수(領袖:지도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녹취, 정리한 것이다. 이 지도자는 어느 가정교회 지도자보다도 조선족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지도자는 한 마디로 조선족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로 진단하고 있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의 주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견을 제시하리라고 본다. 사실 그의 의견이 조선족 교회에 대한 모든 한족 교회의 의견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조선족 교회를 우려하는 그의 따듯한 지적과, 조선족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족 교회의 발전과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본지는 현재 과열된 조선족선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로 제자리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싣는다. 보안상이 가정교회 지도자의 실명이나 교회, 지역은 명시하지 않는다. [편집자주]



교회의 영적 건강은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올바른 목자가 세워진 교회는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조선족 교회와 한족 교회의 동역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보완하는 협력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를 얻기 위한 경우가 많다. 적어도 선교비가 끊어질 경우 사역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비일 비재하다. 주의 일을 하다가 선교비를 받는 것과, 선교비를 받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조선족 교회가 분열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역자들이 저마다 자기 교회를 세워서 선교비를 풍성히 받으려는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신앙과 말씀의 괴리

일부 사역자들의 경우,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이 괴리되어 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설교한다 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진리에 굳게 서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긴다

조선족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고 있다. 성령은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생각은 교회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자기 부인과 헌신이 부족하다.

어떤 사역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영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조선족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원인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교회가 무분별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조선족선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데에는 조선족 교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좀 더 지혜롭고 절제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에 임했다면, 조선족 교회는 보다 건전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성숙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조선족선교에서 범한 실책은 무엇인가?

조선족선교에 너무 집중했다.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조선족의 규모에 비해 한국 교회의 선교 규모가 지나치게 컸다. 조선족이 동북삼성(東北三省)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한국 교회는 조선족선교에 지나치게 많은 선교사들을 투입했다. 그뿐 아니라 한국 교회 목사들의 조선족 교회 방문도 지나쳤고, 너무 많은 선교비를 제공했다. 이는 조선족이 한국인의 동족이라는 점 때문에, 중국선교가 전략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

되었다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언어적인 장애 때문에 한족선교는 하지 못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거의 없는 조선족선교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가 조선족선교를 통해 북한선교의 거점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조선족선교에 임했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선교의 열매를 추구했다.

조선족선교에 참여한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원했고, 이로 인해 물질이 다른 것보다 앞선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제대로 올바르게 선교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쉽게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선교비를 앞세워 기존 교회의 사역자들을 매수하다시피 한 경우가 많이 생겨난 것이다.

선교비를 앞세워 자기 교단의 교회를 이식하였다.

돈 앞에 강한 사람은 별로 없다. 선교비를 앞세워 조선족 교회에 접근하여, 자기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이식하거나 후원 교회의 지교회가 되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조선족 교회의 교회 정치(교회 정책, 관리, 치리 등)에까지 개입하게 되었고,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 목사나 선교사들의 동역자가 아니라 고용인이 되고 만 것이다.

역량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다.

현지에서 조선족선교에 임하는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적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제대로 선교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적고, 선교훈련을 받았다 해도 조선족 교회의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배양하여 차세대 지도자로 세울 만한 역량을 갖춘 선교사는 희귀한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은 조선족의 정서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의 조선족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선교적 차

원에서 조선족 교회에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목회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최근 조선족 교회들에게 발생한 문제점은 대부분 선교사와 한국 목사들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에 선교비를 주지 않고 개인에게 선교비를 주었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선교비를 줄 때 선교비를 받는 개인은 선교사나 후원 교회와 주종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선교비를 받게 되면 사명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사역에 임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 상황을 보는 교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만들어 선교비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은 개인에게 선교비를 주는 한 계속될 것이다.

개인이 아닌 교회 자체에서 선교비를 관리하게 되면 사역자들은 타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 선교비를 줄 경우에도, 그 교회가 선교비를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관리능력이란 돈을 회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선교비를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을 말한다. 선교비를 관리할 영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교회에게 무작정 선교비를 주는 것은, 교회를 파멸시키는 독약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영성이 성장한 이후에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이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영성이 뒷받침되면 선교비 때문에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족 교회의 회복 방안

조선족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가? 아니다. 조선족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회복될 수 있다. 조선족 교회가 처음부터 타락하거나 변질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선족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조선족선교를 하는 한국 선교사와 목사들이 다 철수해야 한다.

한국 선교사와 목사들이 조선족 교회에 깊이 관여하고 사역하는 한, 조선족 교회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조선족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데는 교회 자체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한국 선교사와 목사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선교사, 목사들과 연계되어 주의 일을 하는 조선족 사역자들은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편이다.

만약 한국 선교사와 목사들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머무른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한다 해도 조선족 교회가 올바르게 서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사와 목사들이 조선족 교회에서 철수할 때만이 조선족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나올 것이다. 그러나 설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교회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당분간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길만이 확실하게 조선족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족 가정교회와 교통(Communication)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가 한족 교회와 교통할 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깊은 교인들과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서로 교통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깊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아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성이 깊지 못한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고 영적인 감화를 받아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조선족 교회의 한족 선교

한국 교회는 조선족을 통해 한족 선교를 할 비전을 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 나의 의견으로는 조선족 교회가 한족 선교를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가능하고, 어느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선족 교회가 신중하게 한족에게 접근한다면 제한된 영역에서나마 한족 선교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선교

대다수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조선족이 주체가 되어 한족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인근 지역의 한족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조선족 교회가 있다. 조선족 교회의 한족 선교는 A성에서 왕성한 편이고, B성이나 C성에서도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만약 조선족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면 인근 지역에서의 한족 선교는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성(省)을 넘는 한족 선교

조선족들이 다른 성(省)에 가서 한족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선족 교회가 성을 넘어서 한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성에 가서 한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다는 실제 사례를 본인이 접해 본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교회 안에, 성을 넘어 한족에게 선교하려는 헌신자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 그들을 잘 훈련하여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 배양하고, 타 성 선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한족에게 전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족 가정교회와의 동역을 통한 한족선교

조선족 교회가 한족 교회와 교통하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지만, 동역하여 한족선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조선족 교회와 한족 교회가 협력하여 한족선교

에 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선족 교회와 한족 교회가 팀을 이루어 한족선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족과 한족 간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 등으로 한족 교회가 실시하는 사역자 배양을 같이 받기 힘들 것이다.

또한 조선족 교회 사역자의 영성이 한족 교회 사역자의 영성에 미치지 못한다. 한족 교회 사역자들은 조선족 교회 사역자를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부터 조선족 사역자들을 배양한다 해도, 그 때가 되면 한족 교회 사역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갖게 될 것이고,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중국 변방 회교권에 선교사로 가 있을 것이다.

한족의 민족적 우월감이 조선족 사역자의 지도를 거부할 것이다. 한족 교회가 한국 선교사나 목사의 지도는 받아들이지 모르지만, 조선족들이 자신들을 양육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족이 조선족보다 생활 수준 면에서는 뒤떨어진다 해도, 그들의 자존심, 중화사상의 벽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조선족 교회와 한족 교회와의 동역은 실현 가능한 협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 정치는 상호간에 간섭하지 않고 교통과 필요한 영역에서의 동역을 모색하고 추구해야 한다.

한국 선교사와 목사의 통역 자원

중국 가정교회는 한국 교회의 선교사와 목사들과 교통하고 동역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어 구사 능력이 약하고, 설사 중국어를 잘 구사한다고 해도 사역자를 배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들의 중국어가 문법적으로는 맞는다 해도, 현지 용어에 익숙치 못하고 표현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 등 많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사나 목회자가 한족 가정교회의 지도자 양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장(浙江)성의 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만찬 광경.

조선족 통역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 통역자들의 통역 실력은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중국어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신학적인 용어나 성경 내용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동시통역도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조선족들의 통역은 그러한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직접 한족 사역을 하기에 앞서 조선족 통역자 배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조선족 통역자들도 선교사의 설교 및 강의를 통역하는 가운데 실력을 키워 한족선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陳道生/○○성 가정교회 지도자

조선족선교의 진단과 대책

인병국

들어가는 말

조선족 교회는 하나님이 중국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하여 예비하신 비장의 그릇이다. 한국 교회가 조선족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중국선교와 북한선교의 거점을 확보하고 선교의 동역자를 얻는 데 크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중국선교와 북한선교의 거점과 선교의 동역자를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족선교는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와 북한선교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성패에 큰 영향을 주는 선결 과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 한국 교계에 조선족선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이 퍼져가고 있다.

그동안 조선족선교가 부정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 홍콩주재 중국 선교사 김웅삼은, 5년 이내에 조선족선교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한국 교회에게 과거를 반성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보다 더 잘 해보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야지,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조선족선교는 현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도전은 선교적인 현실에서 오는 것인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전환점에 선 조선족선교를 진

단하고 미래를 조망해 봄으로써, 조선족 교회, 한국 선교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조선족선교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조선족선교의 현주소

조선족선교는 조선족 교회와 한국 선교사, 그리고 한국 교회의 조선족 사역을 진단해 봄으로써 총체적인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단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못하고 필자의 통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조선족 교회의 선교적 진단

조선족 교회는 공인교회인 삼자교회(비준받지 못했더라도 삼자교회와 교통하는 처소는 삼자교회도 포함)와 비공인교회인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족 교회가 분포되어 있는 동북삼성의 각 성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지린(吉林)성(연변조선족자치주 포함)은 삼자교회가 강하고 가정교회는 약한 반면, 헤이룽장(黑龍江)성은 삼자교회는 약하고 가정교회는 강하다. 랴오닝(遼寧)성은 삼자교회는 막강하고 가정교회는 미약하다. 조선족 교회에 대한 진단은 일반적인 것이기에 모든 개별적인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 조선족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과거 조선족 교회의 성장은 가히 놀랄 만한 것이었다. 삼자교회나 가정교회 할 것 없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팔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느리게 성장하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촌 교회들은 대부분 아주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으며, 심지어 쇠퇴하고 있는 곳도 있다. 도시교회들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팔목할 만하지는 않다. 그러나 공단이 들어서는 도시 근교에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족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가정교회는 물론 삼자교회까지 전도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다.

조선족 교회는 삼자교회나 가정교회 공히 성숙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역자들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선교비에 의존적이며 교회 운영에도 미숙한 점이 많다. 일부 교회에서는 분열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 교회는 한족선교를 준비하고 있거나, 초보적 수준이지만 수행하고 있다. 물론 삼자교회는 한족선교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어떤 가정교회에는 한족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거주지 근처에서 한족을 전도하여 교회를 개척하기도 한다.

한국 선교사의 사역은 어느 수준인가?

한국 선교사들이 조선족선교에 기여한 점은 팔목할 만하다. 초창기 재미교포 선교사들이 조선족 교회의 재건과 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지만,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실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 선교사들의 조선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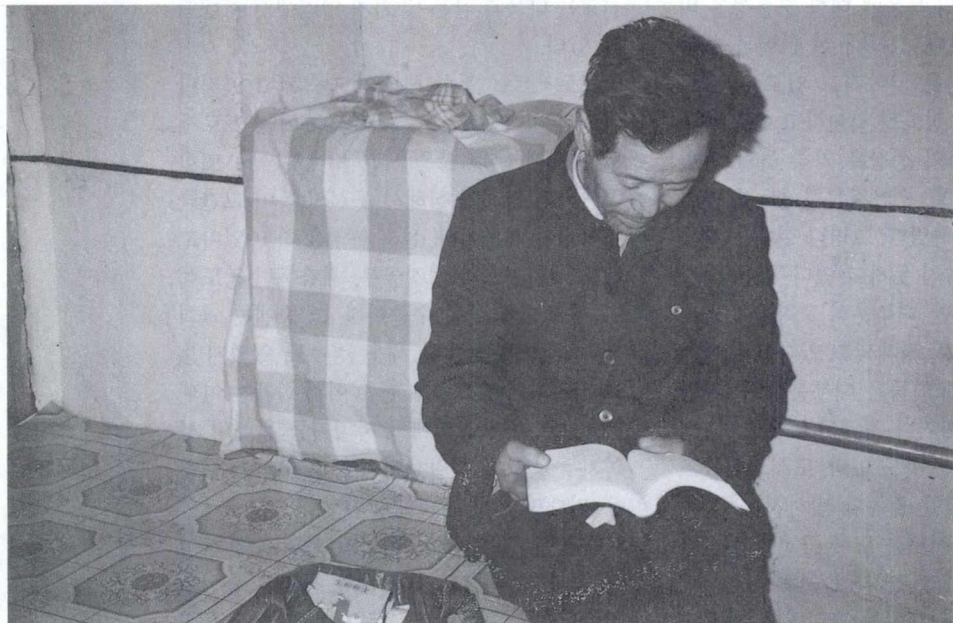
선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한 사역이 지속되고 있지만 선교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는 프로젝트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또한 공안국의 감시가 심해서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졌기 때문이다. 설사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개인전도와 성경공부, 제자훈련 정도이고 개 교회를 돕는 수준이다. 그 중에는 교회를 개척하여 든든히 세운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지 현재는 아니다. 물론 여러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예비 사역자들을 모아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그 수준은 기대만큼 높은 편은 아니다.

특정한 경우, 조선족 교회 사역자 훈련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훈련 사역은 중심교회(처소)를 중심으로 훈련자의 추천과 훈련 장소, 경비의 조달을 자체적으로 해결케 하고, 선교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부분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연결된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에 참여하는데,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사역자 훈련을 한다고 해도 현지 수준과 부합되지 않거나, 선교사의 자질 부족으로 아니함만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

조선족 사역자와 함께 한족선교를 하는 경우도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한다. 이 경우는 주로 조선족 가정교회의 사역자들이 개척한 한족 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이다. 조선족 사역자를 앞세워 한족 가정교회에 가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조선족 교회에 선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목회적으로 접근하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선교비로 인해 가만히 있지만, 조금 지나면 선교사와 현지 교회 사역자들 간에, 또는 사역자들 상호간에, 교인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분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현지에서 행한 사역자 훈련과 집회 인도 등은 말씀의 공급이 부족한 조선족 교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 미쳤다고 본다. 사역자를 통해 전달받은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조선족 성도

한국 교회의 조선족선교 사역

한국 교회의 조선족선교는 목사들이 현지에 가서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일과 집회를 인도하는 일, 그리고 예배당 건립과 사역자 생활비 제공 등으로 나타난다.

목사들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현지에서 행하는 사역자 훈련은 조선족 교회에 기여한 점도 있는 반면 피해를 끼친 점도 있다. 어느 중소 교단에서는 거의 월 1회씩 거교단적으로 팀을 이루어 현지에 가서, 처소를 인도하는 집사들을 대상으로 성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디오 성경대학을 실시하면서, 목사가 연 4회 이상 방문하여 사역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 1회 내지 2회 정도 현지를 방문하여 사역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기 사역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기는 하나, 훈련대상자의 선발, 강의하는 목사들의 신학적 자질, 훈련의 지속성, 현지 실정과 괴리된 교재 사용, 훈련의 경비 등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대만이

나 홍콩 교회의 목사들이 한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기 사역자 훈련과는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들이 현지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익함보다 해악이 더 컸다고 생각된다. 설사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다 해도 조선족 교회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목사, 저런 목사들이 방문하여 집회를 함으로 교인들의 귀만 높여놓고, 신앙적으로 혼돈에 빠지게 하여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만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조선족 교회를 위해 예배당을 많이 지어 주었다. 때로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지만, 예배당을 지어줌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조선족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한국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생활비 제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선교인양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 사역자들에게 사역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족선교의 전망

조선족 교회는 정체 내지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장래는 사역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족 교회의 사역자들은 지금 우려할 정도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다. 처소를 인도하는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처소 사역자나 중심처소 사역자로 기대되는 차세대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사역자들의 영적 침체와 영성의 고갈이 교회의 침체와 쇠퇴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사역자들이 선교비를 받기 위해 일할 때, 그들의 사역의 동기는 소명이 아닌 단순한 직업으로 변질되고, 사역이 직업이 될 때 사역자들의 영성이 메마를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교회 역시 돈 버는 기업이 될 때 쇠퇴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역자들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 권위가 세워질 수 없으며, 존경받지 못하는 사역자에게서 진정한 지도력은 나오지 않는다.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에 빠지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역자들의 역량 부족도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더 심각한 것은 사역자와 교인들 간에 사역적 역량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기 사역자 훈련이나 집회에 사역자와 교인들이 별 구분 없이 참여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보다, 한국 교회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이 교회에 없고 주님께 없다면, 어

찌 교회가 성장하겠는가?

내적인 요인 못지 않게 외적인 환경도 조선족 교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세속화, 경제적인 향상, 도시화, 집거(集居) 형태에서 산거(散居) 형태로의 전환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전환없이 이대로 간다면, 조선족 교회는 정체에 빠지거나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선교에 개입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조선족선교의 과열과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중국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크다. 소수민족의 동태에 민감한 중국 정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쑹(Tibet)족과 위구르족 그리고 조선족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세 민족이 중국의 상황이 변할 때 독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국 정부는 한국 교회의 조선족선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게 조선족선교를 자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등 유사시에, 조선족들이 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독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요직을 조선족에서 한족으로 바꾸었으며, 인구 구성 비율을 한족 우위로 전환시키기 위해 한족들을 자치주에 유입시키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조선족은 연변에서도 하나의 소수민족 정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 어떤 세력이든 반정부 세력이 되거나 하나로 결집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조선족선교를 하고, 조선족 교회에 개입하는 것을 곱지 않게 본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중국 정부가 조선족 교회에 대하여 한족과는 달리 느슨하게 해주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한족 교회와 같이 조선족 교회를 통제했다면 한국 교회가 그나마도 조선족선교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중국 정부의 묵인 내지는 약간의 방임하에 조선족선교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가 조선족 교회와 선교에 개입하면 조선족 선교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삼자교회와 연계하여 은밀하게 진행해온 사역자 훈련도 길이 막히게 되고, 신학교에서 행해진 강의 참여도 금지될 것이다. 가정교회 사역의 길이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선족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연변자치주에서는 가정교회가 집회를 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주변 국제정치의 전환기에, 중국 정부의 조선족 교회와 선교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와 북한선교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조선족선교의 실패는 중국선교에 대해 염증을 내게 할 것이다. 조선족 교회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를 감당할 마음이나 먹을 수 있었겠는가? 조선족선교도 실패하면서 중국선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급한 한국 교회는 중국선교도 포기하거나 사명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북한선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선족선교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조선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 살아온 2,000만 북한 동포들을 복음화할 수 있겠는가? 조선족선교의 실패는 조선족선교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한국 교회의 선교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 올 것이다.

조선족 교회 회복을 위한 제언

조선족 교회는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동족이요, 믿음으로는 형제교회인 조선족 교회는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이제 한국 교회는 조선족 선교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해야 조선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거나, 알지만 그렇게 할 엄두를 못내는 것 뿐이다.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은 분발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의 미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사역자들에게 달려 있다.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은 이제 분발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의 여건보다 10배나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돌보아 주는 이 없어도 꿋꿋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족 가정교회를 보면서 조선족 교회는 회개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은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립하고자 애쓰는 교회에게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조선족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당장은 좀 힘들지만 자립할 수 있다. 농촌교회는 좀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립의 장애물은 예배당을 갖고자 하는 마음과 사역자의 생활비 문제이다. 예배당, 그것도 큰 예배당을 갖고자 할 때 자립은 요원하다. 예배당을 꼭 건축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없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믿는 자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생활비 역시 자신이 직접 벌어서 써야 한다. 삼자교회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삼자교회가 되어 한국 교회에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가정교회도 선교비를 기대하지 말고 자비량할 때 자립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마 6:33, 빌 4:19)

한국 교회는 조선족선교의 실패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선교에 실패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조선족의 정체성 즉 민족의식으로는 한민족(韓民族)이지만, 국가의식은 중국인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2) 조선족 교회가 중국 교회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의 연장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 3) 조선족 교회가 처한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4) 공인교회(삼자교회)와 비공인교회(가정교회)의 문제에 있어 조선족 교회는 한족 교회와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5) 선교의 동기가 감상적이고, 종교식민주의적 선교동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 6) 조선족 교회에 대한 정확한 선교적 진단이 없어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육성에 그 목표를 두기보다 전도와 교회개척에 두고 있다.
- 7) 선교적 접근이 아닌 목회적 접근을 하고 있다.
- 8) 각 성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 9) 선교사, 선교단체, 후원 교회간 협력의 부재로 불필요한 중복과 경쟁, 낭비와 부작용이 심하다.
- 10) 자질 미달의 선교사들이 많다.
- 11) 현지 조선족선교 브로커와 국내 중국선교 브로커들이 농간을 부리고 있다.
- 12) 조선족선교를 지도할만한 선교 전문가가 없다.

조선족 교회가 토착교회, 동역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섬겨야 한다.

조선족선교의 목표는 조선족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자립, 자양, 자전의 중국 토착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토착교회만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족 교회로 하여금 한국 교회와 한족 교회, 소수민족 교회, 북한 교회와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역하는 교회만이 한족선교와 소수민족 선교, 북한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조선족 교회로 토착교회, 동역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여, 함께 한족선교와 소수민족 선교, 그리고 북한선교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역량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조선족선교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숙하고 선교적 역량을 갖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그에 앞서 역량이 부족한 선교사는 선교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켜 재파송하거나 소환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나 한족 교회가 한국 선교사의 퇴거를 요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한국 선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한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선교적 역량을 갖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조선족선교가 성공하고 조선족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 교회는 조선족 교회가 건전한 토착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숙하고 역량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누가 선교적 역량이 있는 선교사인가?

- 1) 조선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쳐 헌신할 장기 선교사
- 2)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선교사
- 3)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비전과 지도력을 갖춘 선교사
- 4)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신학적 소양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선교사
- 5)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과 동역하기 위해 독불장군 아닌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성격의 선교사
- 6) 조선족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정직도와 성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
- 7) 후원교회와 선교단체의 감독을 받고 선교 전문가의 자문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선교사 등이다. 바로 이런 선교사가 조선족선교를 위한 바울과 바나바이다.

사역자 단기 훈련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역자 단기 훈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있는 목회자들이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만들고 교수법을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적어도 2년 정도의 기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현지화된 교과과정이 수립되고, 교과과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단기 훈련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국내에서 다각적인 선교협력의 선행되어야 한다.

예배당 건축과 조선족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조선족 교회에 시급히 필요한 예배당은 이미 어느 정도 건축되거나 마련되었다고 보아도 된다. 그리고 한족은 생활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데, 왜 조선족만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가? 물론 경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겠으

나, 근본적으로는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조선족 교회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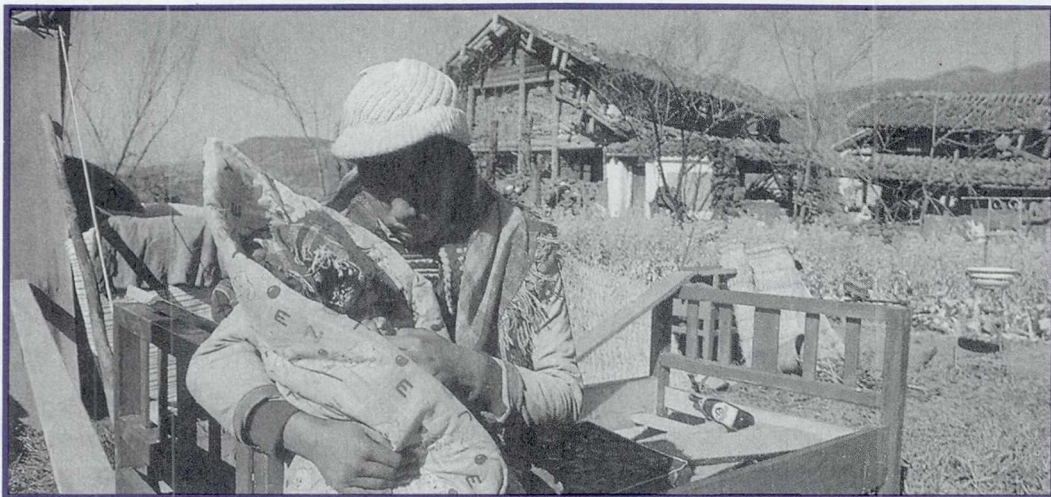
맺는 말

조선족선교는 전체적으로는 실패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면도 있다. 다만 부분적인 성공이 전체적인 실패를 반전시킬 수 없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족선교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교회는 조선족선교의 목표를 바르게 수립하고, 역량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해야 한다. 과감하게 과오를 시정하고 심기 일전하여, 중국과 북한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장의 그릇인 조선족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고, 그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중국선교와 북한선교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는 역량있는 선교 헌신자들을 육성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선교를 위해서는 적어도 1만 명의 역량있는 한국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는 선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예배당을 지어주고 사역자들의 생활비로 드러졌던 선교비가 중국선교사를 훈련하는 일에 드러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창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조선족선교, 그리고 중국선교에 임하는 한국 교회에 절실히 요청된다.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아연실색한 모습. 갓난아이를 안은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있다.

원난(雲南)성 리장(麗江) 지역 지진피해 구호활동

리장 지역 피해현황

1996년 2월 3일 일어난 지진으로 245명이 사망하고, 4,000여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긴급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500만 명에 달하는(그 중 55%는 소수민족들이다) 사람들이 집을 잃어 노천생활을 하고 있다.

35만 가구가 집을 잃었으며, 그외 50여만 가구도 심하게 파손되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정도라고 한다.

4명의 애덕기금회 대표들이 비행기와 트럭을 이용하여 리장에 도착하였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전화선은 불통이고 산길, 다리 등이 두절됨으로 말미암아 복구활동이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성 정부와 군대가 모든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속속 리장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리장 외곽 30km 쯤에 조그만 공항이 있으며, 쿤밍에서 리장까지 트럭으로는 꼬박 이틀 이상을 달려야만 한다. 그럼에도 지금 리장 지역은 범죄행위 없이 매우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불, 외투, 약품 등은 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기온은 밤에는 영하 6℃까지 내려간다.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혹시라도 비나 눈이 와서 기온이 영하 10℃로 갑자기 떨어지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있다. 3만 톤 이상의 곡물이 유실되어버렸다.

애덕기금회의 구호활동

2월 12일 저녁, 리장에서 13km 떨어진 찌구마울은 애덕기금회가 보낸 1,200톤의 솜이불을 제공받았다. 간단한 기도회를 가진 후에 4명의 현지 자원봉사자들에게 원난성 기독교협회의 애덕기금회 실무자가 이불을 전달하였다.

찌구마울의 상황은 호전되었다. 그러나 후양산 나시(納西)족 마을의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는, 애덕기금회는 모든 구호활동을 이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다. 애덕기금회가 이 지역에서 부딪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침구 / 쿤밍의 애덕연락사무소는 일주일 이내에 이 지역으로 1,600장 이상의 이불을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다.

피난처 및 교실 / 18,000㎡에 달하는 텐트가 애덕기금회에 의해 쓰촨성으로부터 도착하였다. 이 텐트는 구조팀과 환자들을 위한 숙소로 쓰일 것이다. 겨울방학이 끝나는 3월 1일 이후에는 이것들이 임시 교실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 시설들의 사용 우선순위는 소수민족들에게 주어진다.

식량 / 일부가구들은 이미 구호 식량으로 생활하고있으나, 대부분의 가구들은 머잖아 식량이 바닥날 것이다. 지방 정부는 봄이 돌아와 식량지원이 끊어질 것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 나시족들은 곡물을 단지에 담아서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량들이 그들의 집과 더불어 유실되어버린 처지이다.

이 글은 애덕기금회 해외연락사무소 발행 <중국 교회> 96년 3·4월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삼자교회

성장하고 있는 푸강(阜康)교회

티엔산(天山) 자락에 위치한 신장(新疆) 푸강시 교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해방 초 푸강에는 집회처 한 개와 10여명의 신도뿐이었고, 문화대혁명 전에도 신도는 백여 명 뿐이었다. 현재 복음의 열기가 편만해져 수천 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많은 도시와 마을에 교회가 생겼다. 형제 자매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읽기, 기도, 전도에 힘쓰며 맡은 일과 영성훈련을 잘 해내고 있다.

매번 농한기가 되면 성탄절과 설날을 이용해 부흥회가 열려, 형제 자매의 영성에 큰 진보가 있어 왔다. 매년 6월 세례식이 거행될 때면,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푸강의 형제 자매들은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있다.

이우(義烏)교회 100주년 경축

저지양(浙江)성 이우교회는 '95년 9월 29일,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1895년 복음이 들어온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1,755명의 신도와 16곳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근 십수년 이래로 교회는 부흥되어 현재 6,800명의 세례교인과 40곳의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다.

장시(江西) 성경양육반 개최

장시성 양회는 작년 10월 2일부터 18일까지 상라오(上饒)현 교회에서 6개월 기간으로 단기 성경양육반을 열었다. 이것은 '93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성경반인데, 각 시의 현 책임자 70여 명과 그 밖에 몇 명의 신도가 청강생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양육반은 교회의 양육사역을 통해 신도의 신앙의 질을 높이고, 이단을 식별하여 이단의 전파를 억제하려는 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딩(武定)에 지진, 교회 현금

작년 10월 24일, 윈난(雲南) 우딩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손실을 입혔다. 동시에 우딩의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파위(發窩)와 완더(萬德) 두 향(鄉)에 있는 20여 개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졌거나, 반 이상 무너진 상태에 처해 있다. 신도의 대다수는 이(彝)족, 마오(苗)족과 리쑤(傈僳)족이며, 5,000여 명의 이재민과 소수의 사망자를 냈다. 현재 성 전체적인 구제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기독교인들도 교회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신장(新疆) 빈곤 지역의 신도에게 성경 무상공급

난징(南京) 애덕(愛德) 인쇄소가 변경 지역 가난한 신도들에게 무상공급하기로 한 성경

1,000여 권이 이미 '95년 초에 신장 우루무치(烏魯木齊)시에 전해졌다고 한다. 우루무치교회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신장 각지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했다.

각 교회 경로예배 개최

'95년 11월, 중국 각지의 많은 교회에서는 한 주일을 정해 경로 감사예배를 드렸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행사를 이미 몇 해 동안 계속하고 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초대하여 위로하고 주님의 평안과 복음을 전하였다. 경로예배에서는 주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다. 또한 청년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가정과 이웃의 노인을 공경하였는가를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감사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였다.

장시(江西)성 양회 '희망공정'에 공헌

장시성은 '희망공정'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서, 이번에 취학 기회를 잃은 많은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장시성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그다지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공정'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 성 양회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데, 이양(弋陽)현 치공(漆工)읍의 한 소학교와 자

매결연을 맺고,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보내주었다.

영육간에 복받은 젠서(建設)촌의 성도들

허난(河南)성 내이상(內鄉)현 다치아오(大橋)향 지엔서(建設)촌은 신도가 68가구 350명으로 마을의 거의 반수가 크리스천이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 빈곤 지역이었으나, 1992년부터 현대 기술을 농사에 응용해, 비닐하우스 재배 등으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현재 마을 전체가 풍족해졌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이 2,500여 위엔에 이른다고 한다.

<天風, 96. 1. 2월>



매서운 한파같이 몰아닥친 압박

작년 12월, 연안 일대를 제외한 중국의 대부분 지역은 추운 겨울로 접어들었다. 일년 내내 신도들을 양육하며 농사일을 돌보아야 하는 농촌의 전도인들에게 있어, 특별히 겨울은 양들을 양육시키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다. 근래 여러 곳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9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 복음사역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원래 긴장 지역인 안후이(安徽)나 허난이 더욱 긴장되는 것 외에, 환경과 사상이 비교적 개방적인 상하이(上海)에서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심문을 당하고, 재산 몰수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염려를 더하고 있다.

전도인 심신의 압박 크다.

6만여 명의 신도를 책임지고 있는 안후이성의 한 전도인이, 작년 8월 어느 회의에 참석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당시 매우 위독한 상태였으나, 각지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병세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

집권자에게 순복해야 하나?

베이징, 텐진의 교회 중 최근에 '정부의 집권자에 대해 어디까지 순복해야 하는가?'라는 화제가 유행하고 있다. 복음을 전파하거나 집회, 설교 등을 하는 것은 성경말씀에 근거할 때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삼자에 등록하는 문제나 세금 문제 등의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없어 혼란을 느낀다. 더 우기 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행해지는 집권자들의 악행, 횡령, 강탈 등에 대해 이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른다.

소리없는 세계에 전해지는 복음 - 농아 복음사역

"농아도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이들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중국의 전체 농아들 중 만 명만이 전국 약 7백여 개의 농아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취학, 취업 등의 권리를 무시당해 왔다. 교회 내에서도 환경의 제약과 전문가의 부족으로 이러한 특수한 사역을 전개할 방도가 없었다.

근래 화둥(華東) 지역의 사역자들은 농아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농아 복음화 사역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현재 전문 수화반을 개설하여, 농아 복음화 사역에 사명을 가진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다.

맹인들에 대한 사회복지도 매우 열악한데, 점자책 공급처가 단 한 군데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맹인들에게 복음 점자서적 및 녹음 테이프를 제공하기란 무척 어렵다. 맹인 복음사역은 장소와 설비의 부족이라는 어려움 외에도, 어떻게 각지의 교회에게 이 특수한 사명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느냐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中國與福音> 9기

내가 주력(主力)한 교회들

방지일

.....
**“노천(露天) 전도로 시작한 중가와(仲家窪)교회를 중점 목회
 자발적 헌금으로 교회당 건축. 한 전도인에 의한 큰 시련...
 기도로 수습. 내리 불는 불, 강하면 올려 불는 불을 흡수.”**

노회 산하, 대회 산하 등 여러 교회가 다 내가 일한 교회임에 틀림 없거니와, 그 가운데 내가 중점적으로 목회한 교회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리하여 개척하여 세운 중가와교회를 택하였다. 이는 칭다오(靑島)시 변방에 있는 공세민들의 지방에 세운 교회였다. 노천 전도를 시작하여 작은 방 한 칸을 빌어,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여전도사를 그 방에 살게 하면서 시작한 교회이다.

장봉존(張鳳尊) 장로라는 비교적 유력한 분이 그 지방에 땅이 있었다. 천여 평되는 땅에 사방으로 집을 짓게 되었다. 작은 방을 지어 수십 세대가 들게 하였는데, 세를 놓아 자기의 생업을 삼았다. 이분과 합의가 되어 그 땅 중간에 교

회당을 짓기로 하였다. 본시 그 공터는 노천 전도를 하던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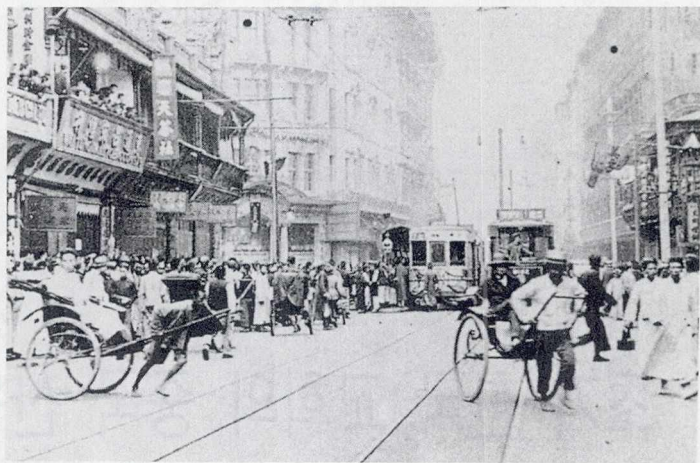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부터,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노천 집회라도 예배시에 헌금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몇 분 위원을 택하여 헌금 관리도 하게 하였다. 아직 집사나 기타 제직을 택할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당을 짓는 데도 자체로 다소를 불문하고 헌금하게 하였다. 이 액수를 가지고는 물론 생각도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인원을 동원하고 기증부터 하라고 400평 교회당의 기증예배를 드렸다. 근방의 다른 교회에서도 너무나 기특히 생각하여 기증예배 때 많이 참석하여 후원하였다. 정세선(鄭世先) 목사 같은 분은 자발적으로 자기 교회와 또 친지들을 통해 적지 않은 헌금을 해왔다.

하루는 먼 거리에 정 목사가 지나가기에 “정 목사, 세세(謝謝)” 했더니, 자전거를 돌려 내게로 다가오면서 그 말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제 상급을 받았느니라.

나는 여기서 안 받겠어.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받겠어.” 하
여 웃은 일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완공이 되었고, 차차 성장
하여 두 번이나 증축하였다. 가난
하여 끼니를 굶던 이들도 많았는
데, 믿은 다음에 생활이 펴나가고
또 윤택하게 되니 교회의 인상이
그 빈민촌에 아주 좋아졌다.

이 교회는 내가 지방 순회하는
외에는 중점적으로 강단을 친히
지킴은 물론, 조직도 우리 모 교회
대로 해본 교회였다. 권찰구역을
나누고 권찰들이 가정을 방문케
하고 보고케 하는 등 조직망을 가
지고, 언제나 교인들의 실태를 일
목요연하게 교역자가 알도록 기
록했다. 남녀 전도사는 이에 순응
하여 교인들을 돌보게 되니, 교역
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온 교우
가 다 동원되는, 살아 움직이는 동
적(動的) 교회라고 평판이 나게
된 것이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한 토막의
귀한 체험을 한 바 있다. 한 3개월
동안 내가 교회를 떠나 있던 때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교계에는 혼
히 자유 전도인이라 해서, 좀 안된
말로는 일없이 교회를 찾아 다니
면서 집회 혹은 간증을 한다는 이
들이 있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나
이 많은 부인 한 분과 앞 못보는
소경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자유
전도인을 자칭하여 왔다고 한다.
그 때 남전도사는 병중이었고 여
전도사만 있었는데, 이 두 분을 받
아들이기로 허용하여 집회를 했
다. 성경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나
자기들의 체험한 바를 달변으로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은 모두 도
취되었다.



도취가 되자 상호 쌍방이 과열
이 되었다. 하나님과 직접 전화통
화를 한다고 야단 법석이 난 모양
이다. 남전도사가 병이 나아서 와
보니, 기현상을 이루어 떠들며 각
각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서 혹 넘
어지고 뒹굴기도 하고 야단 법석
인데, 자기로서도 어찌할 수 없었
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통화도 못
하는 전도사는 징계를 받아 병이
났다는 등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
다.

내가 돌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
었다. 주동 역할을 한 사람들을 치
리(治理)해야만 했다. 매우 조심
스럽게 처리할 단계였다. 너무 순
조롭게 성장하던 교회가 큰 시련
을 겪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연
치리나 기타 말로는 다른 말을 하
지 않기로 하고, 여러 주요 직원들
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통 불은 올려 불으나 신령한
불은 내리붙여야 한다. 지금 신령
한 불인 듯 하나 올려붙는 현상이
되었으니, 이를 교권으로 끄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가 쪼
개지는 현상이 있기 쉬우니, 이제
라도 내리붙는 불이 세계 불으면
올려붙는 불은 거기 흡수된다. 이
제부터 더 깊이 기도하면서 지도

**교역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전 교우가 다 동원되는, 살아
움직이는 동적(動的) 교회라고
평판이 나게 된 것이다.**

급의 제직들이 신령한 불을 일으
키자!”

이런 방향으로 한 3개월 간 내
가 직접 집회를 정성껏 하면서 영
적 분위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로, 전도사들이 능히 저들
을 영적으로 포섭하고도 남을 만
큼 불을 붙이자, 그 아래로 붙던
불은 흡수되고 말았다. 과거의 잘
못을 환원하게 된 기쁨을 가진 바
있었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 목사, 전 중국 산둥성 선교사.

초기 한국 교회의 중국 산동선교 역사

김교철

들어가는 말

금번 세미나에서는 산동선교 역사(1913~1957) 중 선교정책에 관련된 몇몇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된 부분을 나누려고 한다.

초기 한국 교회 가운데 장로회는, 1913년에 중화민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실질적인 타문화권 선교를 시작하였다. 비록 규모 면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으나, 그 내용을 연구하면 할수록 배울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타문화권 선교를 시작한 1913년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 30여년 정도 된 초창기의 한국 교회에게 있어, 장로회가 총회를 창립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지 수년이 경과된 때였다. 국가적으로는 주권을 상실하여 식민지배를 당하던 시기였고, 교회는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시기로, 서양선교사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던 때였다.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제1회로 평양에서 개최되어 임원이 선출되었는데, 회장에 원두우(언더우드) 선교사, 부회장에 길선주가 선출되었다.¹⁾ 언더우드가 초대회장에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로서는 대단한 명예에 속하는²⁾ 것인지는 몰라도, 조선장로회 총회가 설립되면서까지 서양선교사가 조선장

로회의 총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도 서양선교사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완전한 자치(自治)로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12년 창립총회에서 선교사 파송 청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13년에 박태로 목사가 첫 선교사로 지목되어 산동(山東) 선교지를 방문하였고, 1913년 가을 세 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이 중국 산동성으로 파견되어 사역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3인의 선교사에 이어 방효원, 홍승한, 박상순, 이대영, 김순호(여선교사), 방지일 목사가 산동성으로, 그리고 최혁주 목사가 만주국으로 각각 파송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였다.³⁾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일했던 의사 김윤식, 주현칙, 안중호와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조소임, 리영애 그리고 선교회 학교 교사 편순남 등을 들 수 있다.

일제하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중화민국 산동성과 만주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사업을 수행하였는데, 본 세미나에서는 만주국 선교는 다음으로 미루고 산동성을

2)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우리나라 근대화와 선교활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p. 236.

3)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홍승한 선교사에 대한 연구물이 「중국을 주계로」에 실려있다.

1)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대일회회록, (1912), p. 6. 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함.

중심으로 하여 그 선교정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책’이란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선교단체는 자신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란과 어려움이 조만간에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데니스 레인은 말한 바 있다.⁴⁾ 그는, 선교회가 해체되거나 소속 선교사들이 실망하게 되는 한 가지 큰 이유는, 분명한 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말한다. 일제하에서 조선장로회 선교사들이 선교지 중국에서 40년 이상 지속성있는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한 가지 역시 분명한 선교정책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론

초기 조선장로회 선교사들은 모두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였고(여선교사 제외), 동일한 신앙고백과 신학적 배경을 지닌 자들로 동일한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 선교사 선발에 있어서 선교사 후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총회가 적임자를 선발하였고, 본인이 수락케 되면 선교지로 파송을 하였다.⁵⁾

현지교회(교단)와의 관계

배 경

조선과 중국 등지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은 모두 백인 선교사들이었고, 조선과 중국은 그들의 선교지였다. 1912년 조선장로회 총회가 조직되고 선교사 파송이 거론된 후에 총회전도국은 선교사 한위럼(W. B. Hunt)으로 하여금 선교 가능 지역을 조사토록 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한위럼 선교사는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선교사 등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조선 교회의 선교사 파송문제를 협의, 긍정적인 답을 얻어 귀국, 보고하게 된다.⁶⁾ 선교사를 파

송하기 전에 선교 가능성을 미리 조사하면서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협조를 구하였던 것이다.

가능성 있는 반응을 얻어 귀국한 한위럼 선교사에 이어, 1913년 선교지 허가를 얻기 위해 2명의 조선인 목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1913년 5월 박태로 목사와 김찬성 목사가 산동으로 건너 가게 된다.⁷⁾ 조선장로회 총회에서 일치가결로 산동선교를 결의하기는 하였으나, 피선교지 산동지방 문제에 있어서 중화예수교장로회 화북대회와 교섭하여 선교지 허가를 얻기 위해서 잦던 것이다.⁸⁾

2명의 조선 목사가 산동을 방문한 때는 마침 3년 만에 1차씩 있는 화북대회 회집 시기이었기 때문에, 조선총회가 파견한 2명의 목사는 조선 교회의 산동선교를 화북대회에 제출하게 되고, 반대의견도 나왔으나 화북대회는 일치가결로 조선 교회가 산동에 선교하는 것을 허락한다. 당시 조선장로회는 총회를 조직하였으나, 중국장로회는 대회가 최고의 기구였으므로 산동대회의 허락을 구하였던 것이다.

조선장로회는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이, 피선교지 교회와 무관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허락과 협조를 얻은 후에 선교사 파송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조선 선교사들의 소속문제

화북대회의 허가를 받은 후 1913년 가을, 세명의 목사 가정을 산동 래양(萊陽)에 파견하

5) 객안련에 의하면 선교사로 선택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나 1920년대부터는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객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박용규, 김춘섭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p. 212.

6) William N. Blair, “Mission Work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KMF, VOL. XI, (1915), p. 190.

7) 예수교회보, 대정2년 7월 1일자.

8) 방효원, “산동선교에 대하여”, 개자씨, 제66호, (소화 12년 2월), p. 30. 조동진 목사는 총회선교부의 정책부재의 세 번째는 선교현지에 대한 사전 조사나 중국 교회와의 협의없이... 라고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자료집, p. 71.

4) 데니스 레인, “선교사와 선교단체” 도문갑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3), p. 27.

였으나, 조선선교사들은 여전히 조선 교회에 그 소속을 두고 있었다.

1915년 가을, 잠시 귀국한 김영훈 목사는 선교사의 소속을 중국노회로 옮기는, 즉 이명 문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중화민국장로회 노회하에서 일을 보려면 이명증서가 있어야 그 곳 노회에도 참석하고, 사역하기에도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장로회 총회는 선교사 이명문제를 류안(留案)하였고 1916년에 중화민국 산동독회(노회:필자 주)에서 선교사를 이명하라는 공함(公函)을 받게 된다.⁹⁾

선교사의 이명문제를 류안하고 있는 조선 총회에, 산동노회는 편지를 보내어 선교사가 이명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조선총회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름을 옮기지만 조선총회와 단절된 관계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미국선교사들도 같은 상태로 중국노회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¹⁰⁾

선교사의 소속문제에 있어서 조선장로회 총회는 미국선교사들의 소속방식을 알게 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즉 이명은 허락하지만 중국 산동에 있을 때에는 중국노회의 회원이 되고, 귀국할 때에는 구장을 불문하고 조선총회원이 된다는 것이다.¹¹⁾ 조선선교사들의 소속이 중국노회로 옮겨지기는 하나,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노회원이 되고 조선에 올 때는 조선총회원이 된다는 조건을 첨부한 것이다. 당시 조선선교사들만이 특별하게 이명해 간 것이 아니라, 미국선교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이명을 하였던 것이다.¹²⁾

1916년 9월, 선교사 이명문제가 가결된 후부터 조선선교사들은 그들의 소속을 중국노회로 이명하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노회원이 되어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은 산동노회와 교동노회원으로, 또는 노회장으로 활동하였고 중국노회에 영향력있는 인물이 되었다.¹³⁾ 조선선교사들은 중국노회로 이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조건부로 이명한 것이다. 선교사직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조선

총회 내 소속노회로 다시 이명을 하였고, 중국 내에서는 산동노회에서 교동노회로 이명하기도 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은 중국노회로 이명하여 노회일을 같이 보면서, 별도로 조선선교사회를 조직하여 선교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선교사회는 1919년에 조직되었다. 조선선교사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조직하되, 회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선정하여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 일반사무를 처리하였다. 조선선교사회는 매년 회계보고서 그리고 선교회에서 1년 내 행할 사건과 총계표, 목사와 사모의 개인으로 행할 사건에 대한 보고, 익년도 예산 등을 작성하여 조선장로회 총회에 보고하였다. 조선선교사회의 주요안건들은 조선총회에 보고되었고, 허락을 얻은 후에 중국 측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할 안건들은 중국노회에 제출,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노회로 이명하여 노회원이 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조선선교사회가 존재하여 선교사업을 진행하였고, 중국노회와는 별도로 조선선교회는 하나의 조직으로 인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1919년 선교지역 확장과 함께 기존 중국 교회들까지 맡게 되는데 외국인교회와 중국측 노회와 두 곳 대회와 교섭한 결과였다.¹⁴⁾ 미국 선교사들의 관리하에 있던 각 교회가 대표자를 파송하여 조선 목사가 목양하는 것을 환영하는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

1921년 11월에 산동, 교동노회가 남관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북장로미션회, 교동노회와 교섭, 허락으로 산동성 즉묵지역이 조선선

10) IBID., p. 77.

11) IBID., pp. 45~46.

12) 조선 선교사들의 이명문제에 관하여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출고, “한국 장로교회의 중국 선교역사 연구-1913~1921년을 중심으로”, 중국선교III, (인천: 도서출판 청심당, 1994), pp. 32~35.

13) 조선선교사들이 중국노회에서 노회장 등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14) 총회록, 제9회, (1920), p. 9.

9) 총회록, 제5회, (1916), p. 21.

교회 선교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다.¹⁵⁾ 조선선교회는 미북장로선교회의 관할지역을 넘겨받기 위하여 미북장로선교회와 교동노회의 허락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인계받은 시설들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중국 교회들이 선교회에 예속되어 완전한 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자가 미국선교사에서 조선선교사로 변경된 것 뿐이라 하겠다.

1922년 겨울에 교동노회에서는 오산위 지방을, 산동노회에서는 사와박 지방을 조선선교회 관리하에 두기로 힘써 말함으로 부득이 인수하기도 하였다.¹⁶⁾

조선선교회는 1933년에 이르러 조선선교회 선교구역으로 한 개의 노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산동대회의 승인으로 1933년 5월에 래양구회(노회)를 성립하였다.¹⁷⁾ 조선선교회는 산동성 청도시 근방에 교회 설립을 위해 청도 미북장로회 선교당국과 교섭하여 1938년 11월부터 청도구역을 신설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¹⁸⁾

조선선교회(조선선교사회)와 산동노회, 교동노회 그리고 1933년에 성립된 래양노회, 미북장로 선교회와 선교사들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사업을 펼쳐 나갔다. 중국 산동주재 미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조선 주재 서양선교사들이 조선 교회의 중국 산동선교에 직접 관여하여 여러 모로 도움을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산동 선교지 선정에서부터 선교정책 결정, 선교지 확장 등에 직접 관여를 한 것이다.

중국 산동성 선교정책(조선선교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초대회장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의 책 “The Call Of Korea”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교활동의 초기, 거의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섭리로서 일반적으로 독특하다

고 말하는 방식을 채택토록 하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세계 여러 곳의 선교사들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던 방식이었다. 단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나라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이의없이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데 있다.”¹⁹⁾

1890년 6월 중국 산동성에서 선교하던 존 리빙스톤 네비우스(John L. Nevius)의 조선 방문의 결과로, 조선 주재 서양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을 위한 주요전략으로 네비우스가 제시한 선교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의 저자 콕안런(Charles Allen Clark) 선교사는 네비우스 정책의 중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①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널리 순회하며 전도함.

②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됨.

③ 자전(自傳):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된다. 모든 개인과 집단(소수 그리스도교인의 모임)은 회문이법에 의해 사역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한다.

④ 자치(自治): 모든 그룹은 선임된 무보수 영수(領首:지도자)의 관할을 받는다. 순회 교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을 받는다. 순회 집회시에는 교인들을 훈련시켜 훗날 구역, 지방, 전국의 지도자가 되게 한다.

⑤ 자립(自立):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당을 소유한다. 각 그룹은 창립되자마자 순회 조사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한다. 학교조차도 부분적인 보조금을 받도록 한다. 이것은 설립될 당시에만 필요하다. 개교회의 목사에게 외국의 자금으로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

16) 총회록, 제12회, (1922), p. 89.

17) 박상순, “산동선교의 과거와 현재”, 신학지남, 제17권 제6호, (1935. 11), p. 30.

18) 총회록, 제28회, (1939), p. 37.

19) H. G. 언더우드 저, “한국개신교수용사”, 이광린 역, (서울: 일조각, 1993)

15) 총회록, 제11회, (1922), p. 94.

⑥ 모든 신자는 그룹 영수와 순회 조사 아래서 조직적인 성경공부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수와 조사는 성경연구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⑦ 성경적 형벌을 통해 엄격한 징계를 실시한다.

⑧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연합한다. 아니면 최소한 영역이라도 분리한다.

⑨ 법정 소송 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⑩ 민중의 경제문제에서 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도움을 준다.²⁰⁾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채택과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조선 교회는 발전하게 되었는데, 언더우드는 네비우스의 자립운영 정책에 대해 언급한 글에서, '네비우스의 자립운영 정책이 그의 선교지인 중국 산둥지방에서는 적절한 시행이 없었으며, 같은 선교부에 소속한 동료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 계획과 정반대되는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다.²¹⁾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조선 선교정책 결정에 큰 도움을 준 네비우스의 선교 사역지 산둥성에 조선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이다.

곽안련 선교사는 그의 글에, 산동의 북장로교(U.S.A.) 선교회가 조선선교사들에게 청도로부터 100마일 정도 떨어진 내륙인 래양현 주변의 교회와 일부 영역을 넘겨주는 데 동의하여, 3명의 조선선교사들이 건너가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²²⁾

초기 3인의 조선선교사들에 의하여 산동 래양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후, 산동의 중국 교회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중국 교회와 전혀 동떨어진 어떤 교회를 설립하려 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약간의 혼란과 흥분이 일어났다고 한다.²³⁾ 곽안련 선교사에 의하면 이러한 의심이 일어난 부분적 이유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수행할 때 한국의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정책을 사용한 데 있다고 말한다.

조선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선교지인 산동 래양으로 건너가서, 그 초기부터 얼마나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하여 선교사업을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기록이 빈약하여 잘 알 수 없으나, 1917년 이후 파송된 선교사들에게서는 그 증거가 많은 곳에 나타나고 있다.

산동에 주재하며 서양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한 황색인종 동양 선교사인 조선선교사들이 산동에서 선교하게 되면서 사용한 선교원리, 즉 선교정책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선교사를 파송하고 실무를 담당하던 총회전도국의 위원들은 조선 주재 서구 선교사와 조선인 목사들이었다. 1914년도에 조선장로회 총회전도국 위원 중에 서양 선교사의 명단을 보면, 한위림, 라부열, 마누덕, 곽안련, 오월번, 군례빈 등 위원 7명 중에 6명이 선교사였고 조선인은 장로 1명뿐이었다.

1915년에는 조선인 6명, 선교사는 방위량 1인이었고, 1916년에는 선교사 마포삼열, 언더우드(언더우드는 1913년 회록 부록명단에 포함), 안의와 선교사(1914년 회록 직원명부)가, 1917년도에는 선교사 배유지, 공위량, 마로덕(마누덕), 라부열 등이 전도국 위원으로 총회 선교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²⁴⁾

총회전도국 위원이었던 선교사 곽안련이 그의 글에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수행할 때 한국의 네비우스 방법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21) 이광린, OP. CIT., p. 133.

22) 곽안련, OP. CIT., p. 212. 곽안련은 선교지역 배정의 주체의 하나로 북장로교 산동선교부를 언급했다.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84), p. 95. 곽안련의 글에 래양현 주변의 교회를 넘겨주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불확실하다. 1919년 이후부터 교회를 넘겨 받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3) 곽안련, IBID., p. 213.

24) 총회록, 제2회, (1913), p. 63.

총회록, 제3회, (1914), 직원명부, p. 1.

받고 현장에 가서 그 정책을 사용한 것"을 언급한 바, 조선 주재 서양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선교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 성장하는 조선 교회 출신 조선선교사들에게 네비우스의 사역지 산동에 가서 그 방법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방효원, 홍승한, 박상순, 이대영 등 조선선교사들이 그들의 신학교 은사이자 조사시절부터 동역하였던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은 즉 조선에서 실시되던 네비우스 선교방법이었고, 그 정책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사가(韓國教會史家) 김양선 목사는 그의 저서 『한국기독교사연구』에서, 산동선교의 선교정책은 '한국의 그것을 거의 답습하였고'라고 기록하였다.²⁵⁾ 총회전도국 위원이었던 광안련은 그의 책에 조선장로회의 중국 산동선교를 다루면서 제12장에 "네비우스 선교정책 시험"이라는 제하에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선 주재 서양 선교사 가운데는 조선장로회의 산동선교를 하나의 선교정책 시험이라는 시각으로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마로덕 선교사 역시 조선선교사들이 조선 내지에서 실시되는 원리대로 시행키 위해 노력 중이며 진보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조선 내지에서 자동·자당·자유하는 교회같이, 산동 조선선교 지방에서도 되기를 바라되, 일보씩 점점 진보하는데 연보에 대하여 중국인 조사 월급을 자당(自當)하기 위하여 우리 선교사들이 일년 일이차씩 공의회(公議會)를 개하고... 대회(大會)에 완전한 자유는 각 교회의 자당(自當)·자동(自動)하는대로 되는 것을 분명히 교하니라"²⁶⁾

중국 산동선교사였던 방효원 목사 역시 중국산동에서 자립 정신을 가르쳤다고 하였으며, '조선선교는 중화의 선교방침을 개혁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방효원 선교사의 글을 좀 더 읽

어 보자.

"우리 조선선교회로서는 초신시대로부터 자력 정신으로 지도를 하여, 교회와 같이 교회당을 자력으로 건축하며 기타 일절도 자력으로 지지하게 되니 타선교회 교회나 선교회는 기적적이라고까지 하게 되었다."²⁷⁾

조선선교사들은 조선선교회 담당지역을 널리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사경회 개최, 그리고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교회사역자 등을 배출하였다.²⁸⁾ 조선선교사들은 술선수범하여 전도활동에 나섰고, 중국인 전도인들과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조선선교회 관할지역 내의 다수의 중국인 교회들이 자력으로 교회당을 건축하기도 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 산동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조선의 선교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그 지방의 다른 교회들은 주로 옛 방식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었기에, 옛 방식에 길들여진 중국 교회들을 선교지역 확장 허락과 함께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²⁹⁾

광안련 선교사가 정리한 '옛 방식'의 특징 중 몇 가지만을 살펴보자.

- ① 어떤 커다란 선교 지부에 위치한 선교사는 전도자들을 고용하여 현지에 파송하며, 스스로는 자주 나가지 않는다.
- ② 선교사가 자금줄을 쥐고 있을 경우 자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단순한 독립의 형식이나 갖출 수 있다.
- ③ 대부분의 읍과 마을에서 집회치는 외국의 자금으로 사거나 임대한다. 일꾼이 외국의 자금으로 고용되어 이 집회처들을 관할한다. 지교회에 세워진 그러한 유급 일꾼들은 줄어드는 보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을 경우

26) 마로덕, "조선예수교장로회 중국선교사업시찰사황", 신학지남, 제4권 제3호, (1922), pp. 503~504.

27) 방효원, "산동선교에 대하여", 계사씨, 제70호, (소화 12년 6월), p. 36.

28) 줄고, "초기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중국) 교회지도자 양성문제 고찰-중국 산동 래양화동 성경학교(역사)를 중심으로-", 1996년 1월 중국선교연구협회 제17회 중국선교역사세미나 강의안 참조.

29) 마로덕, OP. CIT., p. 503. 참조하라

25)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3), p. 109.

가 많다.

④ 한국에서 확산된 네비우스 정책의 그것과 같은 성경공부 제도가 없다. 일반적인 조직적 가르침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다. 성경의 권능에 충분히 의존하지 않는다.

⑤ 징계가 느슨하다. 교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가기 쉬운 곳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려한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이다.³⁰⁾

조선선교사들은 선교지부에서만 머물러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포도(布道)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19년 선교지역이 확장될 때, 옛 방식에 의하여 길들여진 중국 교회와 전도인들을 맡게 되면서 중국 전도인들의 월급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교지역 확장결정이 나기 전인 1919년 가을, 조선장로회 총회에서는 선교사 구역을 더 얻은 후에 전도인 15인 세우는 경비로 대양(화폐단위 :필자 주) 2,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부결되었다. 당시 총회 전도사무국장 겸 부회계는 윤산온(Dr. George Shannon McCune) 선교사였고, 사무국원 가운데 서양선교사 한 위럼, 방위량이 포함되었다.

1919년에 '조선식'대로 하도록 부결된 중국 전도인 봉급문제는³¹⁾ 1920년 5월 윤산온의 중국 산둥·연대 방문, 선교사업에 관한 사항 타협으로 지방보조비라는 항목이 신설되고, 중국 전도인들에게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선교사들이 중국 전도인들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하여, 옛 방식과 조선에서 시행되는 방식 즉 네비우스 방식과의 절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에게 월급을 받는 중국 전도인들과 중국 교회가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중국 전도인들에게 재정보조한 것을 보면, 1921년부터 1935년까지 당시 돈 2,000원에서 3,300원이 연간 보조되

었고, 1935년 후반기부터 1942년까지는 1,400원에서 1,000원 범위 내에서 해마다 재정보조가 이루어졌다.³²⁾ 조선선교사들은 조선장로회 총회전도국의 허락을 결국 득한 것이 되어 중국전도인들의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것이다.³³⁾

선교지역 확장과 중국 전도인 월봉문제로 예산이 급증하게 되어, 당시 조선의 경제여건상 이를 감당치 못하게 되자, 홍승한, 이대영 목사가 선교지에서 소환,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조선 주재 선교사들은 중국 산둥 조선선교사들에게 조선의 선교방식을 희망하였고, 산둥 주재 타국 선교사들도 조선선교사들을 주목하여 보곤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1918년부터 산둥에서 선교한 박상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 선교회는 산둥에서 창시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이 아니요, 벌써 50여 년을 많은 금전과 노력을 비(費)하여 경영하던 미국북장로회 소속 교회 몇 곳을 인계하였다. 그래서 재래의 습속 그 제도를 대래하게 된다. 우리들도 그네들 선진의 유법을 많이 참고하는 점도 있었으나 개선할 점도 불무하였다. 이런 변동에 대하여는 재래교역급 교인들에게 불만을 여하는 사가 종종 있다. (例如: 보조비 축소, 교인 부담 증가 등) 또한, 우리 주위에 있어서 동업하는 선교사들은 혹 우리 사업 운전 방식 중 무슨 특이한 것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점, 즉 중목의 주목처가 된 것이 심히 거북하였다. 그리고 우리 전도부급 총회는 당지 교회가 급속히 자립, 자영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환경에 포위된 우리의 사업은 그리 특이한 숫자적 고도의 성적이 보여지지 않는다.

31) 객안련, “장로교회사전취집”, (평양: 기신사, 1935), p. 103.

32) 줄고, “초기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교회개척-선교지 교회 건축과 현지 전도인(교역자) 재정 보조문제를 중심으로(1913~1942)”, 선교교회 6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개동교회 해외선교위원회, (1995. 10.), pp. 2~6.

33) 줄고, “1917년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 중국을 주제로, 1996년 1/2월호, p. 82.

30) 객안련, OP. CIT., pp. 45~46.

하겠으나, 과거 십수년의 된일을 비교하면 숫자적으로 만도 얼마큼 증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마지 않는다.”³⁴⁾

박상순 목사는 중국 산둥에서의 조선선교사업이라고 하여 남달리 특기한 방침과 요법을 해득한 것이 있노라고 과언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선선교회의 중국 산둥선교는 조선에서 시행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곽안련은 조선장로회의 중국 산둥선교를 옛 방식에서 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좋은 모델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곽안련은 다음의 질문을 산둥선교와 연관하여 답하고 있다.

질문: 옛 방식에서 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답변: 제12장(제목: 네비우스 선교정책 시험-해외선교사역: 필자 주)이 부분적인 답변을 줄 것이다. 12장에서 산둥의 한국인들이 어떤식으로 사역을 행했는지 설명한 바 있다.³⁵⁾

조선선교사들이 중국 산둥에서 선교하면서 조선방식을 시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분명하나, 옛 방식과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옛 방식을 일부 수용, 점진적으로 보조를 축소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국 교인들에게 불만을 사는 일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 가운데 방효원 목사는 조선의 방식을 강조한 편이라 하겠고, 박상순 목사는 때와 장소에 맞추어 조종 운전, 즉 남달리 특기할 만한 방침과 묘법을 가지고 선교하였다고 해도 과언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대영 목사의 경우는 즉묵에 선도당 건축시, 조선 교회에서 막대한 돈을 모금하여 중국 교회를 건축하여 교회 건축에 있어서 옛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선교사들이 조선장로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중국 산둥에 이식하려 한 점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교회를 아모조록 본국 교회와 같치 조직하기로 단념작정이오며”³⁶⁾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경공부하는 법, 조선 교회를 본받아 법으로 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³⁷⁾

조선선교사들이 동일한 지역에서 선교사역에 임하였으나, 선교담당 지역을 구분하여 공동 협력사역을 한 것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하겠다. 조선장로회가 중국 산둥성에 파송하면서 현지 교회에 소속되게 하는 토착교회 설립에 그 목표를 두고, 목회자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선교한 결과 다수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1933년에는 중화민국 산둥대회 내에 새로운 노회, 래양노회가 조직되어 산둥대회 가운데 한 노회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중화민국 산둥성 선교에 있어서 현지 교회, 교단과의 관계와 토착교회 설립을 목표로 한 조선선교회와 조선선교사들의 선교방법과 원리를 중심으로만 살펴보았다. 선교재정 정책과 선교사 자녀교육 정책, 안식년 제도 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³⁸⁾ 새 방식에 의하여 길들여지고 훈련된 조선선교사들이, 옛 방식으로 선교가 진행되던 지역인 중국에 들어가 새 방식대로 선교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특히 중국 산둥성은 새 방식을 조선 주재 서양선교사들에게 전달해 준 존 네비우스의 선교사역지였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 새 방식과 옛 방식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사역하였던 것이다. 조선선교사들이 얼마나 선교원리를 바로 인식하고 사역에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35) 곽안련, “한국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p. 356.

36) 방효원, “중화민국산둥성 래양선교보고”, (경성: 조선예수교서회, 대정 9년), p. 14.

37) 길선주, “중화민국산둥성 래양성전도형편”, 기독교신보 1918년 9월 4일자.

38) 선교사 자녀교육에 관하여서는 좋고,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교육문제 역사적 고찰(1913~1957)” 1995년 12월 중국선교연구협회 제16회 중국 선교역사세미나 강의안 참조.

34) 박상순, OP. CIT., pp. 30~31.

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네비우스가 조선 교회에 전해준 그 원리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며 배워야 할 부분들이라고 본다. 분명한 선교원리나 정책없이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나가 선교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

전호진 교수는 그의 책 『한국 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 서구 선교사들은 구방법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립원리를 발전시켰다. 그런데도 한국 선교는 그들이 버린 방법을 다시 주어서 사용하는 격이 되고 있다.”³⁹⁾

초기 한국 교회, 조선장로회는 서구 선교사들의 지도와 협력으로 중화민국 산둥성에 새로운 방법의 자립원리에 입각한 선교방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여, 좋은 선교적, 역사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옛 방식에 의해 구성된 중국 교회와 교인들을 인계받기도 하면서, 때론 옛 방식을 수용하되 새 방식을 접목해 나가는 형태로 사역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중국 교인들에게 불만을 사는 일도 종종 있었으나, 성경학교 설립을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과 전도, 교회개척을 통하여 귀한 선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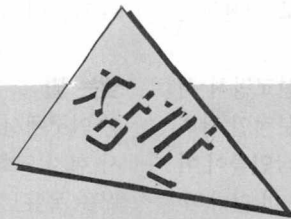
또한 중국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현지 노회으로 이명, 소속되어 동역의 좋은 실례를 남겨준 것이다. 물론 초창기(1913~1916, 가을)에는 이명치 아니하고 사역을 하기는 하였으나, 1916년 이후 이명하여 현지 노회에 적을 두고 사역을 하였고, 본국 총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노회원으로 적을 두고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현지 노회와 무관하다든지 또는 현지 노회에 회원권도 동시에 갖는 이중등록 등은 심사숙고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초기 한국 교회가 중국 산둥선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남겨 준 선교의 유산들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하고 살펴서, 배울 점은 계승하고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초기 장로회가 중화민국 산둥성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이 세미나를 마치려 한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2월 26일 중국어문선교회가 주관한 ‘중국선교 정기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하여 실은 것이다.

김교철/ 선교사,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연구원



중국상식!

4개의 기본 원칙

1979년 3월,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주의의 길, 프롤레타리아 독재, 중국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이란 ‘4개의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4개의 기본 원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강조된다.

39) 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서울: 성광문화사, 1993), p. 185.

철저한 자기 인식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찌니라. (눅 17:10)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나의 지식은 곧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죄를 짓는다. 이기심, 교만 등등...

사람이 만약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는 곧 크게 고함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은 자기를 아는 데 있다. 또한 필히 자신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알면, 우리는 더욱 자기를 버리고 곧 주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면, 자신이 대단한 줄로 여기고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교만하며 연약하고 가련한 것인가!

다음은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이다.

정상일 때는 적고, 비정상일 때가 많다. 순종할 때는 적고, 불순종할 때가 많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적고, 우둔할 때가 많다. 지혜로울 때는 적고, 어리석을 때가 많다.

주를 갈망할 때는 적고, 주께로부터 벗어날 때가 많다.

은혜에 감사할 때가 적고, 원망할 때가 많다. 찬미할 때는 적고, 슬퍼할 때가 많다.

믿고 맡길 때는 적고, 회의에 빠질 때가 많다.

다시 말해서 승리할 때는 적고 실패할 때가 많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아폴로’ 우주선을 탔던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보잘 것없이 작은 지구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가련하고 보잘것 없는지 깨닫고, 세상에 속한 자신의 허영과 앞날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복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사람의 이름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의 내면에는 두려워할 만한
자기 자신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나(옛생명)’인 것이다.

‘명예’의 본질이 육체로부터,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도 자기를 떠나서 다시
자신을 볼 때 인간의 보잘 것 없음과 가련하고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 뒤에는
자기에 대해 실망하게 된다. 자기의 무능력함, 실패하고 가련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한 연후에
비로소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더욱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편집자 주: 이 글은 홍콩 CMI(中國福音會)에서 출판한 묵상집 「晨光」 중에서 한 문장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번역/ 이민선·본지 편집기자

나그네의 눈물

에스더



모든 것을 드렸다. 그 후부터 지금 까지 나는 예수님의 큰 사랑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스런 마음으로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것은 환상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과거인 동시에 추악한 상처로 얼룩진 과거이기도 하다.

엄격하면서도 자상하신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나를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어 주셨다. 외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문학과 음악을 감상하도록 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이 세상에 대해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 열두 살 때 '늑대왕'이라는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쓴 적이 있다. 이 책은 늑대 무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늑대들이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사람은 동물보다 한 차원 높은 생물이다. 늑대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돕는데 사람인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라고 내 느낌을 적어 독후감을 썼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를 보

나는 불교에 탐닉해 본 적도 없고, 공산주의의 충실한 숭배자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기독교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다. 22년 동안 줄곧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은연중에 낭만주의와 이상주의적인 해탈을 꿈꾸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한 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 앞에 무릎꿇고

고, “늑대와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다. 늑대들은 흉악하고 잔인한 들짐승일 뿐이다”라고 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유사 이래로 사람들이 행한 추악한 일들 중 많은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나는 굶주린 듯이 공부에 열중했다. 현실주의자 졸라(E. Zola)로부터 낭만주의자 위고(Victor M. Hugo)에 이르기까지 문학을 통해, 인간들 사이의 희로애락, 만남과 이별, 진실과 허상에 대해 점차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으며,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이상향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상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류의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때 기독교는 내 안중에 없었다. 나는 단지 인간의 비극적 본능에 의거하거나, 온둔하고 도피할 따름이었다. 당시 나는 맹목적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 진리를 찾아 헤맸다. 마음이 갈급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여덟 살 이전의 삶은 행복했다.

'89년,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나는 도무지 교실에 얽매지 않아 공부에 열중할 수가 없었다. 몰래 천안문 광장으로 가서 대학생들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이 차량을 가로막는 것을 보았다. 그 때 그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들이 어디를 가든 나는 계속 따라다녔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흥분된

마음을 털어놓으며 어머니와 열띤 논쟁을 벌였다. 수많은 질문 중에 미처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는, “당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공산당원이야. 내가 속해 있는 당에 대해 비평할 수는 없다.”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나는 너무 흥분해서, “이 빌어먹을 공산당은 참 운이 좋군요. 어머니 같은 당원이 있으니까”라고 말해버렸다(결국 어머니는 나의 뺨을 때리셨다).

6월 3일, 우리 학교 고3 학생들 중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천안문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백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다. 그 넓은 천안문 광장에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조국의 미래를 걱정했고, 민주주의와 애국주의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도대체 우리들의 황제와 그의 신하들, 자손들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 것인가?

한 순간, 뭔가 번쩍하며 모든 것이 정적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천안문 광장에는 온통 흩뿌려진 선흥색 비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얼마 후엔 이것들마저 사라졌다.

나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고, 얼마 후 '90년도 대학입시를 치렀다. 그 때 내 마음 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 이곳을 떠나 정의와 진리가 인정받는 세계로 가고 싶었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휴지통에 버린 그 때는 내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 역시 세상의 더러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까지 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매우 유능한 엔지니어이셨는데, 그는 내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한 무역업자를 찾았다. 그는 다년간 공산당 교육을 받고 '78년에 출국했다가 '80년에 귀국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당간부가 부정축재한 돈을 이용, 거짓으로 합작을 하고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의 출국을 보증해 준다는 교환 조건으로,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건축해 주기로 하였고, 나도 그의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출국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다만 내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국 회사 측에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인물의 딸이니 출국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만 보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약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비로소 출국 보증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1년 동안의 기대는 더 큰 실망의 시작에 불과했다. 한번, 두 번, 세 번..., 대사관에서는 계속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이러면서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는 기다림에 지쳐 시들어갔다.

나는 회사에서 타자부터 시작해 팩스와 기술 자료 등을 번역하고 계약서와 기타 문서들을 작성

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작성한 문서 중 반은 가짜였다. 1만 달러짜리 물건을 20만 달러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끊고, 싸인도 멋지게 모방했다. 나는 미친 듯이 일했고 사장이 사기치는 것을 도와줬다.

되어갔다. 당시 회사에서 함께 일 하던 몇몇 아가씨들은 사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출국할 방법을 찾았다. 결국 나도 뽀뽀스럽게 그의 유혹어린 암시를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내 출국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폭염 속에서 필사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

낄 수도 있다(역자주)라는 병까지 앓게 되었다.

당시 나는 겨우 스물한 살의 꽃다운 나이였다. 그러나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고, 별이 총총한 하늘을 뚫고 바라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 꿈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대로 죽을 수



장승원 그림

나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아직도 마음 속에 양심이 남아 있는나고... 그러나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양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걸만 번지르르한 국가 간부들이 몇백 달러를 위해 나라의 이익을 팔아먹는 것을 보거나, 현(縣)의 관리와 서기들이 모여 자기들이 농민들을 능수능란하게 속이고 모욕한 것에 대한 모험담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의분으로 가득했으나 나도 점차 그들과 함께 히히덕거리게 되었다.

나의 영혼과 인격은 점차 상실

마득히 잊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배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출국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나는 급속히 타락해갔다. 더이상 2년 전의 정직하고 순결한 그 소녀가 아니었다. 술에 취하고 돈을 물 쓰듯 하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랬다. 무절제한 생활로 몸 또한 망가졌다. 자신을 보호할 줄도 몰랐고, 이해도 부족했다. 반년 동안 두 번이나 산부인과를 들락거렸고, 메니에르증후군(내이(內耳)의 혈관성 변화를 주로 하는 특이한 질환으로서, 현기증, 이명, 난청을 수반하며 발작을 일으

는 없었다. 하잘 것 없는 유학의 꿈을 위해 내 청춘을 바친 것이 역울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92년 7월 나는 사장의 명의로 본사에 외국 연수를 허가해 달라는 팩스를 띄웠다. 생각지 않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난 비밀스럽게 일을 추진했고, 가슴 한 구석은 기쁨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다. 드디어 B-1 비자를 손에 쥐었을 때 나는 기뻐 미칠 지경이었다. 아무 것도 아닌 이 비자 하나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내 즐거움이 조금씩 사라져 갔단 말인가?

지금 나는 정말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내 청춘을 무너뜨린 것이 너무나 미워 한순간 찢어 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으나, 조심스레 다시 집어 넣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탁한 숨을 깊이 내쉬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비행기는 나를 싣고, 수많은 고통으로 얼룩진 조국과 동포로부터 떨어져, 구름이 가득한 하늘로 드넓은 바다로 날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친구의 도움으로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발견하였다. 결국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 문을 열어 놓았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딸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처절하게 통곡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과 고통스런 마음에서 흘렸던 눈물이, 나중엔 나의 죄로 인한 회개의 흐느낌이 되었고, 후에는 기쁨의 눈물로 변했다.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상처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진실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실체를 보았다.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 내 영혼은 새로 태어났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 행복, 사랑을 얻었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시 48:14)

스물두 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신 지금, 난 너무 행복하다. 비록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사랑은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도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나와 줄곧 함께 하셨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려는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난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구속받았다는 무한한 기쁨에 잠겨든다. 가장 진실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전능왕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

이 간증을 쓴 필자는 베이징 태생으로,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서 연구 중이다. 이 글은 <海外校園> 제5기 “行人派”를 번역한 것으로 <海外校園>의 승인을 받았다.

번역/ 신호정·자원봉사자

중국어문선교회 자료실 이용 안내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는 중국 기독교·정치·경제·사회·역사·소수민족·선교전략 등에 관련된 정기 간행물, 논문, 각종 세미나 강의안, 단행본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열람하길 원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직접 오셔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대출은 불가능).

♣ 연구부에서 열람실 파티티엄 자원봉사자와 간사를 찾습니다.

PC 통신을 통한 중국 관련기사 스크랩(PC통신을 갖고 계신 분은 집에서도 가능),
중문연구자료 번역, 도서 정리 등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서 자료 정리 및 본로작업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의 간사 연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02)533-5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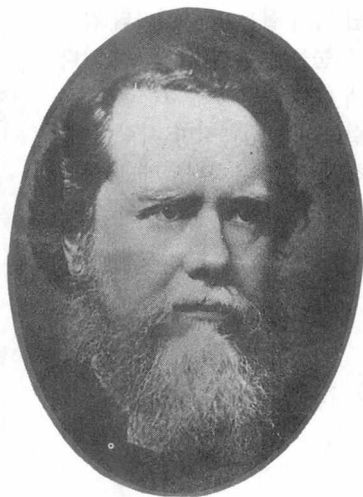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

허드슨 테일러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상하이(上海)에 남겨둔 약간의 돈을 제외하고, 내가 중국에서 갖고 있던 돈 전부를 내 하인이 훔쳐간 것이다. 그는 내 재산을 가지고 항저우(杭州)로 도망쳤다.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물건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를 법적으로 처리하자면 조금도 어렵지 않다.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 좀도둑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온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내가 법대로 그를 처리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될 것이다. 결국 한 영혼을 어떻게 40파운드 짜리 짐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지금 즉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격려하였다.

닝보(寧波)에 있을 때 존스 씨(Mr. John Jones)를 알게 되었다. 그는 파이커 의사와 함께 중국선교회를 대표하면서 닝보에 머물고 있었다. 산터우(山頭)에 갈 수 없게 되어, 난 닝보로 가서 그들의 사역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떠났다. 이튿날 오후, 존스 씨

와 나는 상하이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큰 도시인 송강(宋江)에 이르렀고, 나는 육지에 올라가 제방과 성문 입구에 몰려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라고 제의하였다.

함께 배에 탄 중국인 승객 가운데 비교적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외국의 여러 지역을 다녀본 사람으로, 영국에도 가보았고, 거기서 자칭 ‘피터(베드로)’라고 하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나는 그가 복음을 들은 적은 있지만, 아직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저녁, 나는 그와 함께 그의 영혼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한 적이 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매우 신중하게 들었고, 심지어 감동받아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결국 구원의 열매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는 우리와 친구가 되길 진심으로 원했고, 내 설교를 즐겨 들었기에 난 매우 기뻐했다.

육지에 닿기 전, 나는 중국 친구와 함께 선실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전도지와 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뭔가 ‘퐁당’하고 물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바깥으로 달려가 주위를 살펴보니 피터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서서 바라보고만 있을 뿐, 누구 하나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결이 위로 솟아올랐으나, 마침 강풍이 일어 배는 빠르게 전진해 버렸다. 낮은 강물줄기 위로 아무 일도 없는 듯,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나는 뜻을 내리라고 하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를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지만, 그는 흔적조차 없었다. 걱정과 혼란 속에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이 어선 한 척이 보였는데, 배에는 마침 어망이 달려있었다. 이 어선이 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쳤다. 나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배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쪽으로 어망을 내려 주시오. 방금 사람이 빠졌어요!”

“안 되겠소” 그들의 대답이었다.

“안 되고 되고가 어디 있소!” 난 마음을 졸이며 소리쳤다.

“사람이 강에 빠졌단 말이오! 사람이!”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자기들은 고기 잡느라 바쁘다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고기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부탁이니 이쪽으로

오시오. 그럼 내가 당신들이 며칠 동안 잡을 고기 값보다 더 쳐서 사례를 할 테니 빨리 오기만 하시오!”

“얼마 줄 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흥정할 때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오시오. 은화5원(당시 영국 돈 약30실링)을 주겠소.”

“너무 적어요. 20원만 주면 어망을 내리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없는데..., 어쨌든 빨리 오시오. 있는 것 다 줄 테니!”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확실하진 않지만 14원 정도 있어요”.

비록 배는 느릿느릿 움직였지만, 결국 그들은 와서 어망을 내렸다. 1분도 안되어 실종된 사람을 건져 올렸다. 그러나 어부들은 떠들썩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을 회생시키기 위해 애쓰느라 시간이 지연되어, 그들이 요구한 돈을 빨리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를 내포한 비참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 중국 어부들은 과연 이 불쌍한 중국인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도 없



장승원 그림

는 것일까? 그들의 손에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그를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들려있었다. 단지 원하기만 했다면, 그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이켜 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지적했던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어 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재수가 없었을 따름’이라며 넘어갈 일인가? 한 영혼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것은 큰 죄가 아니겠는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고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고, 당신에게도 명령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 “아뇨, 제겐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 고기 잡느라 바빠서 영혼을 구하러 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소를 사야 하고, 혹은 막 결혼해서, 혹은 재미있는 어떤 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머지 않아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각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선으로 혹은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불순종한 죄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잠 24:11-12)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시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분이 바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계시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번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그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고, 또한 기쁨을 소유하도록 하신다.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시험에서 승리하는 기쁨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자. 감춰진 일이 모두 드러나는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큰 복을 말이다! 그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1857년 가을, 내가 닝보에 머무른 지 1년이 지났다. 이 가운데 계속 나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는 작은 사건을 경험하였다. 그 일은 미국장로교 북선교회(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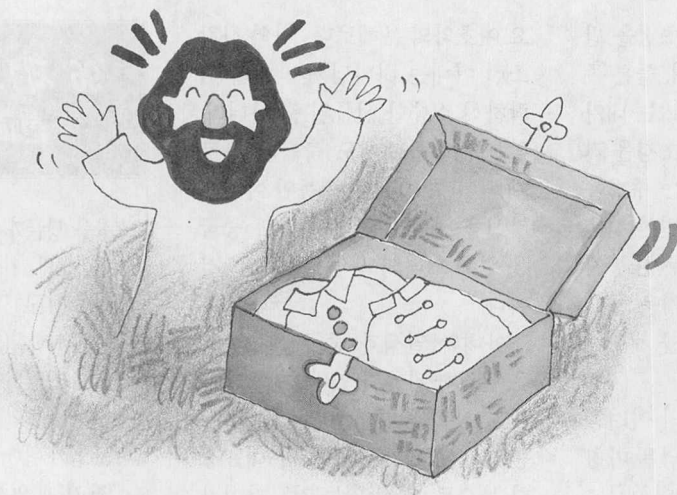
North)의 쿼터만 목사(Rev. John Quarterman)가 매우 심한 천연두에 걸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병중에 있는 그를 간호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볼 수 있었던 것이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

원래 천연두 환자를 간호하며 입었던 옷은, 남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한 번 입으면 버려야 했다. 그러나 당시 내 수중에는 새 옷을 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기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잃어버린 지 오래된 옷상자 하나를 되찾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옷상자는 재작년 초여름, 산터우를 떠나 상하이로 여행할 때 번즈 목사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마침 이 옷들이 때 맞춰 도착한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하여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였다. 약 2개월 후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1857년 11월 18일

‘많은 사람이 보기에, 나는 매우 가난한 자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만일 내가 다른 처지에 있었다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의 공급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었을 것이



장승원 그림

다.

월요일 아침, 가난한 사람들이 전과 다름없이 우리 선교회에 아침을 먹으러 왔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고아, 과부, 눈먼 자, 저는 자, 무의탁 빈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우리 선교회에 200파운드의 재

정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새해가 가까워오자 물자가 다시 부족하게 되었다. 1858년 1월 6일, 나와 존스 씨에게 남은 돈은 1원 뿐이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간구했다. 집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한 끼 아침 식사나 될 정도였고, 점심은 어디서 어떻게 때워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양식을 살 돈은 없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한참 생각 끝에, 물건들을 내다 팔아서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정작 팔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중국인들이 사고 싶어할 만한 물

건들이 없었던 것이다. 만일 양식이 허락했다면 우리는 이 때 외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일이고, 또한 그동안 우리들이 지켜온 정책과도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니, 중국인들이 살 만한 물건이 딱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로였다. 없애기가 너무 아까웠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의 새 주인을 찾으러 집을 나섰다.

한참 건다가 강변에 도착했다. 거기서 강을 건너갔다 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막으셨다. 다리는 이미 어젯밤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나룻배를 타야만 건너갈 수 있었다. 뱃삯은 한 사람에 2원인데 우리들이 가진 돈이라고는 1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이대로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존스 씨의 부

인과 아이들은 친구의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나간 뒤였다. 물론 존스 씨도 초청 받았지만, 그는 내가 혼자 굶는 것이 안되어 초청을 거절하였다고 했다. 우리는 주방을 살살이 뒤졌다. 달리 변변한 것을 찾지 못하고, 코코아 가루 한 봉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다. 어쨌든 배를 채우게 된 것이다.

그런 후 다시 우리들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을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들이 무릎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영국으로부터 편지가 들어있는 편지 한 통을 받았던 것이다.

때마다 적절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매일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이제 14일 후면 나의 결혼식이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셨다. 그 후로도 수년 동안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은 단련을 받았고,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

우리 부부의 결합처럼 이 복을 받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실례도 드물 것이라 생각된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상급이

요 여호와와 은혜로다.' 나의 사랑스런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12년 동안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과 중국을 위해 그녀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다.

아내의 일생과 중국선교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녀의 아버지 사무엘 디어(Samuel Dyer)는, 런던선교회의 초창기 대표중 한 분으로, 열심 있는 전도자이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분이시다. 1827년 그는 말라카 해협(말레이반도 서남 연안일대-역자 주)에 도착하였다. 그는 16년간 페낭(Penang) 섬과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인을 위해 부지런히 사역하셨다. 또한 그는 이 기간에 아주 귀한 중국식 금속활자 인쇄기를 제조하셨다. 1843년 일생을 마감하신 그는, 그의 마지막 꿈이었던 중국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복음이 중국에 전해지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의 꿈을 계승하였다.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위에 그도 큰 몫을 한 셈이다.

아내와 내가 결혼할 당시, 그녀는 '닝보에서 친구 알데시(Miss Aldersey)와 몇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선교사역에 참여한 바 있기 때문에, 내게 아주 귀한 도움이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96 제1회 인천지역 선교세미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인천지역 해외선교단체 연합회(약칭 인·해·연)가 구성되었고, 금번에 인천지역 교회와 청년, 학생들의 선교비전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96 제1회 인천지역 선교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 시

1996년 5월 6일(월)~7일(화) / 저녁 6:30~10:00

주 최

인천 해외선교단체 연합회

주 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행 13:47)

강 사

정민영 선교사(GBT), 이현종 목사(예수세계선교회) 및 각 회원 선교단체 실무자

장 소

주안장로교회 제1교육관

회원단체

개척선교부(GMP) / 성경번역선교회(GBT) / 예수세계선교회(JWM) / 인천의향선교회 /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등록비

1차 12,000원(4. 25) 2차 15,000원(5. 4) 당일 등록 18,000원

문의 및 등록처

032)435-6777(JWM), 032)863-0681(GBT), 032)435-2886(GMP)

악도



중국의 흔들리는 가정

강성광

중국인은 예로부터 '가족'을 중시해온 민족이다. 그러나 개방 이후 현대화, 산업화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중국의 가정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본 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중국의 가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흔들리는 중국의 가정을 위한 '전문 가정 사역자'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를 기대하며...

【편집자 주】

중국의 새로운 가정

우리 집에는 나를 닮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주 만나는 중국인들에게 우리 가정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억제 정책으로, 농민과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한 자녀밖에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중국인들에게, 아들만 둘 가진 우리 가정은 더욱 더 부럽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런데 요즘들어 중국에는 아들 많은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과는 다른, 이상한(?) 젊은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을 일컬어 소위 '딩크(Dink)족'이라고 한

다. 맞벌이로 수입은 많으나 자녀가 없는 부부들을 지칭하는 신생어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경제가 발달한 도시지역, 그리고 대졸 학력 이상의 젊은 지식인들 가운데 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원후이 바오(文匯報) 기사에 따르면, 상하이에 있는 10만 쌍의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 근 8천 여 쌍의 부부중 20쌍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200쌍의 부부는 결혼 2년 뒤에 아이를 갖기로 했다. 사실상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 또 조사에 의하면 1985년도에 졸업한 29명의 상하이 대학생중 27명이 기혼자인데, 그중 7명에게만 아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기를 낳아 양육할 만한 시간과 정력이 없고, 또 성취욕이 강하여 아이를 낳아 기를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

이다.

둘째는 이와 전혀 반대의 경우로, 너무 가난하여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도시에서 소학교에 다니는 학생 1명에게 들어가는 총 지출이 최소한 1개월에 200~300 위엔(한화 2~3만 원) 수준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가정 총 수입의 50% 이상이 아이 한 명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가정이 허다하다.

우리 가정과 가깝게 지내는 한 젊은 부부는 “아기를 낳아서 기르게 되면, 부부간의 애정과 사랑을 빼앗길 것 같아 아기 낳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딩크족’ 가정의 부부 관계는 대부분 화목한 편이고, 두 사람의 사업적 성취도도 높은 편이다. 이들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하여 부유한 편으로, 적지 않은 덩크족 가정이 고급 가구나 전자 제품을 갖추고 살고 있다.

중국의 여성들 중 특히 학력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 가운데 대학 졸업자의 1/3만이 아기를 원한다고 한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교제해 오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부부도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일부러 아기를 갖지 않는다. 부인은 대학 강사(중국에서 대학 강사의 수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수입이 적은 편이다)이고, 남편은 개인회사 부사장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 가정은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집에 가보면 적지 않은 가전제품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것



단란한 가정의 모습. 그러나 개방 이후 현대화, 산업화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중국의 가정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집 아이들은 예뻐하고 좋아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이와 같은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밖에 만혼(晩婚)이라든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또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만약 아기를 낳은 후에 이혼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 두려워 아기 낳기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덩크족 현상으로 인해, 중국의 폭발적인 인구성장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반면, 또다른 학자들은 지식인들의 자녀가 점점 줄어들어 중국인의 인구질이 급강하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험결혼 · 계약결혼 · 시험이혼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가정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점차 새로운 결혼 문화가 출현하고, 그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즉 요즘의 젊은 지식인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시험결혼 혹은 계약동거가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젊은층에서 만연하고 있는 풍속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전역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니 놀랄 일이다.

중국 가정문제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시험결혼 및 동거가 실제 결혼 숫자의 1/3이나 되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90% 가까이 된다고 한다. 중국의 현행 결혼법상 이것은 위법이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중국 우한(武漢)시 사회학연구소의 연구원인 시아방신(夏邦新)과 그의 부인 왕추이윈(王翠云)은 둘 다 가정문제 연구 전문가이다. 이들 부부는 그들 가정의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대학을 졸업한 그들의 아들도 최근 2년 동안 여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교육이 본래부터 아주 전통적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가정교육 외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도 있다면서, 현대 지식인들은 계약결혼을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현상의 결과 낙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부부 학자는, “계약결혼 및 동거를 하지 않는다고 낙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저우시 중산대학(中山大學)의 사회학과 주임인 차이화짜이(蔡禾在)는 광둥(廣東)성의 사회학계에 영향력 있는 교수이다. 이 젊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근래 들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으며, 사회의 자연적인 변화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최근 중국에는 또다른 형태의 새로운 가정 문제가 출현하고 있는데, 바로 ‘시험이혼(試離婚)’이다. 정식으로 이혼수속을 하지 않고 양자 합의하에 일정 기간 별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정식 이혼을 하거나 다시 재결합하여 사는 것이다.

현재 중국 여러 도시에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젊은 부부들, 특히 지식층 부부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런 상태

에 있다. 이들의 생활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이다.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가정문화의 가치관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서양의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강하다.

심각한 청소년 문제

우리 가정과 가까이 지내는 중국의 한 가정에 15살짜리 중학생이 있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도 술을 즐겨 마신다.



최근 중국의 청소년 가운데 알콜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다. 엄격한 규율에 따라 치료를 하는 마약중독자 교화소 내부. 대부분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약 2억 명의 청소년(7세~15세)중 약 8천만 명 정도가 술에 취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알콜 중독과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2천만 명이나 되고, 나머지 청소년들도 술과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는 요즘들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일으키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베이징(北京)시 모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11%가 크든 작든 술을 마시고 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 중 거의 100%가 술을 마셔본 적이 있고, 그 중 80%는 아예 술꾼이라고 한다.

5명의 고등학생이 합세하여 한 청년을 때려 중상을 입힌 일이 있는데, 이들은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싸움을 벌였다. 이런 현상은 가정의 영향과 사회의 분위기가 미성년 술꾼들의 음주·음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우리 나라 청소년들과 같이 전자오락을 좋아한다. 중국의 전자오락은 내용이 폭력적이고 불건전할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베이징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27%의 어린 학생들이 전자오락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당국이 휴일 외 평일에 학생들이 전자오락실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중국은 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더이상 전통 유교 문화권의 보수적인 영향이나 사회주의의 간결한 정치·사회 문화에 묶여 있지 않다. 중국의 가정은 급격한 개방과 사회 변혁의 회오리, 또한 만연된 개인주의와 성도덕의 혼란 가운데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사회 및 가정 구조의 변천과 함께 ‘한 가정 한 자녀’ 문제는 가정 문제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강성광/ 중국 선교사

거대한 잠재력의 보고(寶庫) 산서성 · 섬서성 · 감숙성

산서 · 섬서 · 감숙 3개 성은 근대에 있어 중국의 정치 ·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및 서아시아와 중국 중원(中原)을 잇는 교량의 역할, 그리고 문화 교류의 현관 역할을 수행하였던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이 지역은 동부 연해 지역에 비해서 경제력도 떨어지고, 각종 기간 설비도 부족하고 발전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과 광활한 토지 자원을 갖고 있어,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산서 · 섬서 · 감숙 3개 성은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중국 경제발전 정책을 타고 나름대로의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다.

산서성(山西, 晉, shanxi)



위치: 화북(華北) 평원의 서쪽에 펼쳐진 황토고원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허북과 하남, 서로는 섬서, 남으로는 하남, 북으로는 내몽고 자치구와 접하고 있다.

면적: 150,000만km²

인구: 2,979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199명/km²

민족: 한족이 전 성 인구의 99.7%를 점하고 있다. 소수민족으로는 회족, 만족, 몽고족, 조선족, 장족, 티벳족, 묘족, 위구르족, 요족, 토족 등 34개 민족이 있으며, 이 중 회족이 비교적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생산액: 2,941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省都)-태원(太原: Taiyuan)

· 6개 지급시-태원(太原), 대동(大同), 양천(陽泉), 장치(長治), 진성(晉城), 삭주(朔州)

· 6개 지구-안북(雁北), 혼주(忻州), 진중(晉中), 여양(呂梁), 임분(臨汾), 운성(運城)지구

· 그 밖에 7개 현급시, 96개 현, 2개 자치현으로 나뉘어 있다.

기후: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서 연평균 기온은 5~15℃이다. 1월 중에는 -12~2℃, 7월 중에는 22~27℃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320~600mm인데 여름철에는 항상 한발음 겪게 된다.

산서

성은 태행산(太行山) 서쪽에 위치하여 '산서(山西)'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춘추시대 진(晉)나라 영토였다는 데서 '진'이라 약칭된다.

전체적으로 두터운 황토로 뒤덮인 고원 형태의 산지로 산서고원이라 통칭되는데, 땅의 모양새에 따라 동부산지, 중부산지, 서부고원의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산서성은 중국의 두 개 문명이 만나는 지역이다. 북방은 기마 민족인 몽고, 남방은 세계 4대 문명지의 하나인 황하문명과 마주하고 있는데, 그 중 남방은 진나라 이후 중국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곳이다.

산서성은 경작지가 성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황토고원의 수토(水土) 유실이 크고 삭풍과 모래의 침식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10년 중 9년의 가뭄이 들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광물자원에 있어서는 기원전 500년 전국(戰國) 시기에 이미 석탄을 채굴하여 철을 주조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산서성은 '석탄과 제철의 고향'이라 불린다. 특히 석탄과 알루미늄의 매장량은 각기 전국에서 제1위를 차지하며, 철광석, 동, 석회암 등의 매장량도 상당히 많다. 산서성은 이러한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기계, 자동차, 화학비료 등 중공업이 발달하였다.

산서 사람은 탁월한 상업적 재능과 대기업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재능이 많고 다소 약은 면이 있으나, 대체로 황토고원이 많고 동굴 속에 살아서인지 순박하고 소탈하다.

고풍스러운 신흥 공업도시 태원(太原)

태원은 산서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267만의 대도시이다. 2400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 북방의 고성(古城)이자, 한창 개발중인 신흥 공업도시로 고풍스러운 면서도 젊고 생기발랄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북방 기마 민족과 중원의 한족 사이의 국경 도시로서 군사 요새의 성격을 띄었으나, 근대 지하자원이 개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도시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시 전체에 1,600개에 달하는 공업기업이 있고, 그 중 중공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제련·기계·화학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고대 예술의 보고 대동(大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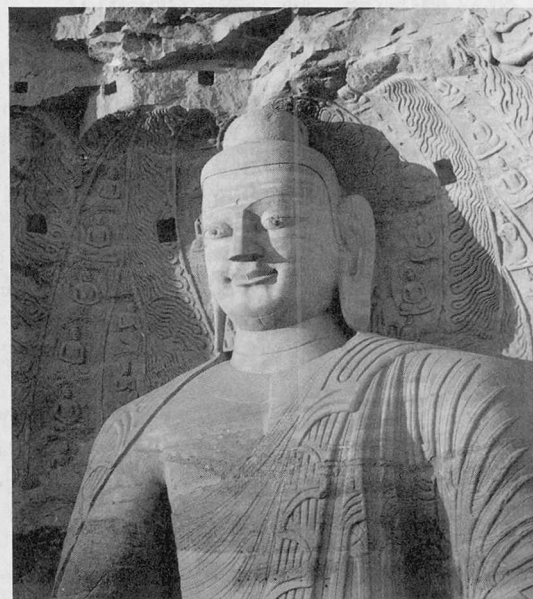
산서성의 북부, 만리장성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는 대동은 한때 북위(北魏) 왕조의 도읍으로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도시의 화려함은 찾아 볼 수 없는 수수한 도시이다. '석탄 도시'로서 시의 기간산업은 석탄 생산이다. 거대한 석굴과 절 등 문화 유적과, 2,200km²에 달하는 대규모의 대동탄전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시의 서쪽 16km에 위치한 운강석굴은 낙양의 용문석굴, 돈황의 막고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의 하나로, 53개의 주요 석굴 속에 약 5만 1천 개의 크고 작은 조각상이 있는 고대예술의 보고다.

불교 성지 오태산(五台山)

오태산은 불교의 4대 명산중 가장 손꼽히는 산으로, 세계 불교 5대 성지의 하나이다. 당(唐)대에는 360여 개의 절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현재는 47개의 절이 있으며 중국 각지로부터 신도들이 몰려들고 있다. 태원에서 24km 떨어진 산서성 북부에 위치하며,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5개의 산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한 여름에도 흰눈이 날려 서늘하고, 맑은 계곡물과 각종 화초가 만발하여 피서지로도 이름이 높다.



'원강(雲岡) 석굴'은 중국에 현존하는 최대 석굴군으로 산서성 대동시 무주산 남록(南麓)에 위치하고 있다. 북위(北魏) 때 최초로 만들어진 대규모 석굴이다.



산서성 혼원(渾源)현 남쪽 5km 부근, 항산(恒山) 아래 금룡구 서쪽 절벽 위에 세워진 사원 누각 40간.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서 있는 누각 같다.

기독교 역사

1877년~1879년 화북지역에 대기근이 들자, 중국내지 선교회(中國內地宣教會)가 구제사역과 더불어 산서의 복음화를 선도하였다. 이어 영국 침례회 등 다른 선교기관들도 뒤따라 들어 왔고, 특히 내지회와 영국 침례회는 협력하여 성경과 복음서를 판매하며 금연(아편)운동을 전개하였다.

1900년대 초에 일어난 의화단 봉기로, 산서성에서는 어림잡아 50명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수백 명의 중국인 신자들이 순교당했다. 이 때 복음의 불길은 다소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그 후 회복기를 거치며 복음사역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28년부터 송상절(宋尙節) 목사를 위시한 중국 전도인들의

사역으로 교회는 한층 부흥하기 시작했다.

1949년 이후, 문화대혁명 등 역사의 격랑 속에 또 한 번의 모진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성도들은 몰래 집회를 가졌다. 특히 유명한 왕명도(王明道) 목사는 1950년대에 공산주의자들의 요구를 따르기를 거부하다가, 이곳에서 2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였다.

1989년~1991년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산서성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발길 닿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세웠다. 많은 핍박과 희생이 따랐지만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갔다.

현재 산서성의 성도 수와 교회 부흥 상황은 다른 성에 비해 연약하지만, 핍박은 다른 성에 못지 않다.

섬서성(陝西, 陝, 秦, Shanxi)



위치: 서북부 내륙, 황하 중류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산서, 하남, 남으로는 호북과 사천, 서로는 감숙과 서북, 북으로는 영하, 내몽고와 접하고 있다.

면적: 205,600km²

인구: 3,405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166명/km²

민족: 한족이 전 성 인구의 99.53%를 점하고 있고, 회족, 만족, 몽고족, 장족, 티벳족 등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그중 회족이 가장 많다.

1인당 생산액: 2,364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省都)-서안(西安Xian)

· 4개 지급시-서안(西安), 보계(寶鷄), 함양(咸陽), 동천(銅川)

· 6개 지구 - 위남(渭南), 안강(安康), 한중(漢中), 상낙(商洛), 연안(延安), 유림(榆林)지구

· 그밖에 85개 현, 8개 현급시, 4개 민족(회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 대부분 아열대 계절풍 기후에 속하는데, 남북이 좁고 길기 때문에 기온 차이가 크다. 북부지역의 연평균기온은 7~12℃이고, 남부는 14~16℃이다. 1월 기온은 -35~-11℃이고, 7월 기온은 21~28℃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400~1,000mm로 대부분이 7~8월 사이에 집중된다

섬서

성은 춘추시기 진(秦)나라의 국토였는데서 '진'이라는 약칭을 가지고 있으며, 섬원(지금 하남성 섬현) 서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섬서(陝西)'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보통 '섬(陝)'이라 약칭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남북으로 좁고 길다. 북부는 두터운 황토층으로 뒤덮인 황토고원, 중부는 위하(渭河), 경하(涇河), 낙하(洛河) 등의 하류로 충적 형성된 관중평야(關中平野), 남부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섬서성은 황하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로, 오랜 세월 소위 중원(中原)으로 중국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어 왔다.

중국 서북지역 중 인구 및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며, 경제 또한 가장 발달했는데, 이는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석탄, 전력, 야금, 기계 등 중공업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중국 최초의 석유 채굴지역이기도 하고, 탄전이 연이어 있어 산서성과 함께 '검은 벨트'로 불리운다.

현재 중국은 섬서 개발에 관한 21개 중점항목 '일일삼사오육(一二三四五六)', 즉 현대적인 비행장 1개소, 컬러 텔레비전 공장 2개소, 철도간선 3개 노선, 대규모

탄전 4개소, 발전소 5개소, 대규모 원자재 공장 6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섬서 사람은 철도, 숫자, 무게 관념이 발달하여 금융업·경영면에서 뛰어난 자질을 보여 주고 있다.

천연역사박물관 서안(西安)

섬서성의 성도로 인구 610만의 서북지방 최대 도시이다. 역사상 주(周), 진(秦), 한(漢), 수(隨), 당(唐) 등 11개 왕조가 도읍을 정했던 지방인 동시에, 중국 현대사를 장식한 곳이다. 최고 번성기였던 당(唐)대에는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당의 멸망과 함께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후세 사람들이 이를 낮춰서 서안이라 불렀다.

신석기 시대 모계씨족사회 촌락인 반파(半坡)유적지,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진시황 병마용(兵馬俑) 전시관, 아방궁 유적, 1936년 국공합작의 계기가 된 서안사변의 무대 화청지(華清池) 등 수많은 고적과 명승지가 있는 '천연역사박물관'이다.

과거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기점이었으며, 지금은 북서부 지방의

진시황 병마용 전시관에 있는 기갑용의 모습.



경제사회 및 금융 중심지로 1992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내륙 개방도시로 지정되었다.

특히 1988년 신기술산업개발구(新技術產業開發區)가 들어서 항공, 정밀기기, 광통신 등 첨단기술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외에도 전자, 전기, 방직, 화학 등의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발구 내에는 서안교통대학, 서북공업대학 등 22개 대학교, 49개 대형 연구소, 200여개 대형 전문실험실이 집중되어 있으며, 총 5만 여명의 과학기술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혁명의 성지 연안(延安)

섬서성 북부 고원의 중간에 위치한 연안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 있는 황하 중류의 도시이다. 많은 사람들이 옛부터 황토산의 구릉이나 계곡에 굴을 뚫고 거주했는데, 이 동굴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한데다 습기도 적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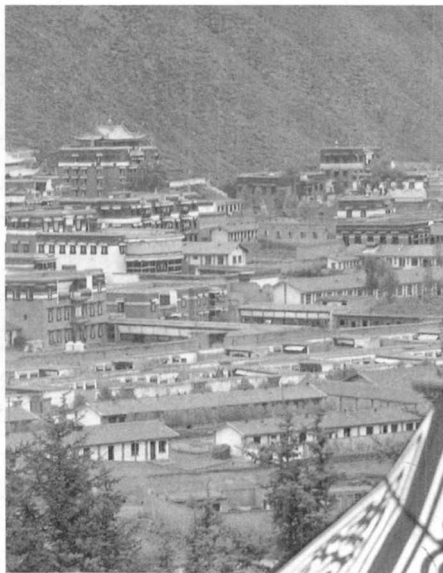
중국혁명사상, 모택동(毛澤東)이 주은래(周恩來), 주덕(朱德), 유소기(劉少奇), 팡덕회(彭德懷), 임표(林彪) 등과 함께 1937년 1월에서 1947년 3월까지 10년 2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어 중국공산당의 기틀을 잡은 유서 깊은 곳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누구나 서슴지 않고 이곳을 '혁명의 성지'라 부른다. 국공내전 당시 모택동이 거처했던 땅굴집 등 곳곳에 혁명유적지들이 있다.

현재 연안은 인구 22만의 도시로 철강, 석탄, 석유, 기계, 전력, 화공, 시멘트, 플라스틱, 유리 등 공업이 발달한 신흥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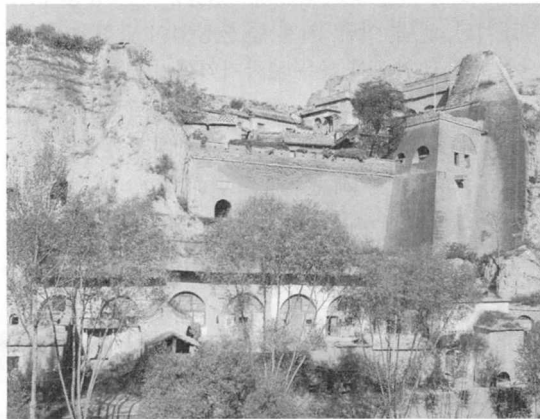
기독교 역사

섬서성은 중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유입된 성이다. 서안(西安)시 서쪽 70km 지점에서 출토된 한 비문에 의하면, '경교(景敎)'라는 이름의 기독교가 당나라 때 전래되어, 섬서와 감숙 및 전국 각지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경교가 쇠하고, 1876년 내지선교회가 구제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1900년 의화단 사건으로 100여 명의 신도와 150여 명의 전도인 및 그 자녀들이 살해되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주의 복음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나마 겨우 목숨을 부지한 성도들은 2~3년 후 재차 전도사역에 헌신하였다. 그 후 내지회, 침례회, 감리회 등



라마불교 사원 중 하나인 라부렁사



연안의 동굴벽집

에서 사역하였는데, 그 중 내지회가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한 사역을 진행했다. 초기에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금연(아편)운동으로서, 1907년까지 약 3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1949년 이후 교회는 또다시 박해를 당했다. 목사와 전도인들은 핍박과 투쟁을 당하고 노동개조로 보내졌으며, 성경은 모조리 몰수되어 불태워졌다. 만약 몰래 숨긴 것이 발각되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웠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순종과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안에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성경과 영적 서적의 결핍으로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없어, 이단을 분별함에 어려움이 있다.

감숙성(甘肅, 隴, Gansu)



위치: 중국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섬서, 남으로는 사천, 서로는 청해와 신강, 북으로는 영하 및 내몽고 자치구와 접하고 있다.

면적: 454,000km²

인구: 2,314만명('92년 현재)

인구밀도: 51명/km²

민족: 한족이 전 성 인구의 약 91.7%를 점하고 있으며, 회족, 티벳족, 동향족, 유고족, 보안족, 몽고족, 카자흐족, 토족 등 소수민족이 각 민족 자치주 및 자치현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1인당 생산액: 2,118원(元) ('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난주(蘭州:Lanzhou)

· 5개 지급시-난주(蘭州), 천수(天水), 백은(白銀), 금창(金昌), 가옥관(嘉峪關)

· 7개 지구-경양(慶陽), 평양(平涼), 룡남(隴南), 정서(定西), 무위(武威), 장액(張掖), 주천(酒泉)지구

· 2개 자치주-임하(臨夏), 감남(甘南)

· 이 외 60개 현, 8개 현급시, 7개 민족자치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 동서가 길고 좁은 관계로 유형이 아주 복잡하다. 습윤·반습윤·가물·반가물 및 고냉기후 지대가 혼재해 있다. 년 평균기온은 -1~15℃ 사이고 1월 기온이 -14~3℃, 7월 기온은 11~21℃사이이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는 가죽옷을 입고 점심에는 적삼을 입는다'는 속설이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30~860mm로 대부분 동남부에 집중되고 서북은 매우 건조하여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감주 (甘州)와 숙주(肅州) 두 지명의 첫 자를 따서 '감숙(甘肅)'이라 이름하며, 룡산(隴山) 서쪽에 위치해 '룡(隴)'이라 약칭된다.

감숙은 북쪽의 몽고고원, 동쪽의 황토고원, 남서의 티벳고원이 만나고 기련(祁連)산맥이 동서로 가로누워 있는 성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1천m 이상되는 고원산지에 속하며, 특히 동남쪽은 해발 4천m 이상의 만년설 지역이다.

감숙성은 과거, 중국 고대 서역으로 통하는 주요 상업교통 요지였다.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 아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로 통하는 '실크로드'가 개척되면서 감숙의 상업은 매우 번성하였다. 실크로드는 문화, 종교 등 유형·무형의 것들을 전해주었다. 또한 실크로드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및 여러 이민족 사이에 치열한 쟁탈전이 전개되었던 곳으로, 지금도 적지않은 회족, 몽고족, 티벳족 등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감숙은 역사적으로 '서수(西垂:서쪽 변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옛부터 거주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성이 되었다.

감숙성에는 비철금속·귀금속 및 희소금속 자원이 극히 풍부하며, 이미 개발된 수력 발전량이 충분하여 근거리에서 대량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같은 유리한 조건을 배경으로 감숙성은 원재료 공업을 주요 산업으로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숙 사람은 섬서 사람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데, 특히 매운 것을 잘 먹고 소박하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강하다.

황하 상류의 최대 도시 난주(蘭州)

감숙성의 성도이며 황하를 따라 건설된 가늘고 긴 모양새의 도시이다. 북방에서 유유히 흘러온 황하는 이곳에서 급선회하며 흐른다. 과거에는 배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으나, 지금은 황하철교와 대교가 놓여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다. 한족 외에 회족, 만주족, 티벳족, 몽고족 등 40%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으며 시내 곳곳



가옥관

에서 회족의 독특한 가옥을 볼 수 있다.

한(漢)대에는 금성(金城)이라 불리웠으며, 수(隨)·당(唐)대에 이르러 난주로 이름이 바뀌었다. 거리에 30여 종의 희귀한 과일나무가 있기 때문에 ‘과일의 도시(瓜果城)’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옛부터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번영했으며, 현재는 부근 옥문(玉門)유전의 풍부한 석유자원과 석탄, 수력 발전 등 에너지원의 혜택을 받아, 서북지역 최대 공업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작은 티벳 하하(夏河)

하하는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티벳 물결이 넘쳐 마차 티벳의 축소판같은 도시이다. 산꼭대기에는 기도문이 새겨진 색색의 깃발들이 나부끼고, 곳곳에 널려 있는 백색의 불탑들이 눈부시게 빛난다. 이 곳에 6대 라마 불교사원 중의 하나인 ‘라부령(拉卜楞)사’가 있는데, 도시 전체가 이 사원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라부령사에는 밀교 연구소, 중·고등 종교 심리학 연구소, 의약 연구소, 점성학 연구소와 법학 연구소 등 모두 여섯 개의 학술 연구소가 있다.

티벳인의 인구 점유율은 65%이고 회족, 사라족 등 이슬람교 신도도 10%를 넘고 있다.

만리장성의 서쪽 종점 가옥관(嘉峪關)

가옥관은 동으로 발해만 산해관을 기점으로 중국을 횡으로 가로질러 6,000km를 달려온 만리장성의 서쪽 종점이다. 시는 황량한 사막 위에 만리장성과 가옥관이 우뚝 서 있을 뿐이며, 현재 석유화학 중심의 공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요충지 둔황(敦煌)

둔황은 중국 역사상 특수한 지위를 가진 곳으로서 각 민족의 활동무대가 되기도 했고, 중국 왕실의 서역 진출 기지이기도 했다. 또한 실크로드상의 물자교역의 중심지요, 동서 각 민족문화의 화합지였다. 둔황(敦煌)의 둔은 대(大)를, 황은 성(盛)을 의미한다. 즉 ‘크게 번성한다’는 뜻으로 이름만으로도 그 화려한 과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600년의 역사와 492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둔황석굴(敦煌石窟)이 있으며, 이 밖에도 많은 중국 현대사상의 유적지들이 있다. 현재 이런 명승고적지는 전부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기독교 역사

1876년 내지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고, 뒤를 이어 여러 선교단체가 들어왔다. 그러나 라마불교와 회교의 세력이 크고, 민족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 동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복음사역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1922년까지 기독교인은 전 성을 통틀어 1,336명뿐이었다.

중일전쟁 후 많은 전도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고, 난주(蘭州)에 서북기독교연합대학(西北基督教聯合大學)이 건립되었다. 이 때부터 감숙성의 선교사역은 점점 흥성하기 시작했다.

1940년대에 들어 강소성과 상해의 침례교인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중국인 선교사를 파송했다. 중국 회중교회와 감숙 중부순복음주의회와 같은 단체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고했다.

감숙의 교회들은 문화혁명 당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대략 4~5명으로 구성된 기도모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날 감숙성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성 전체 인구의 1%로 추산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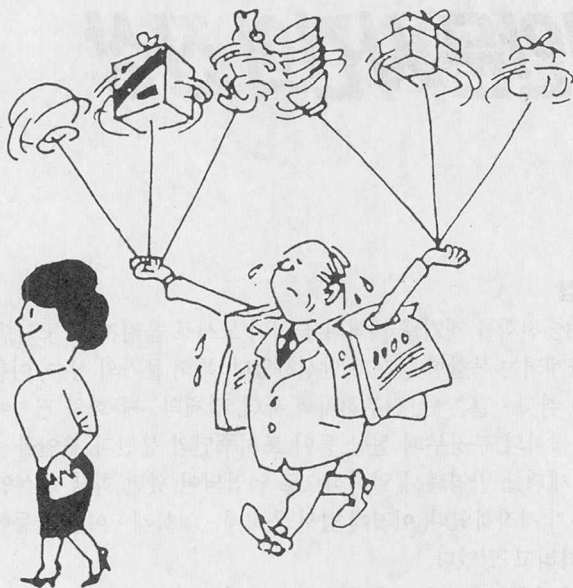
이 글의 지명·인명은 편의상 외래어 맞춤법 표기를 따르지 않았습
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일등남편

好在我有一個當雜技演員的好丈夫。

陳樹斌



중국 여성들은
장보기, 설거지, 세탁, 요리 등
여러 가지 가사일을 맡아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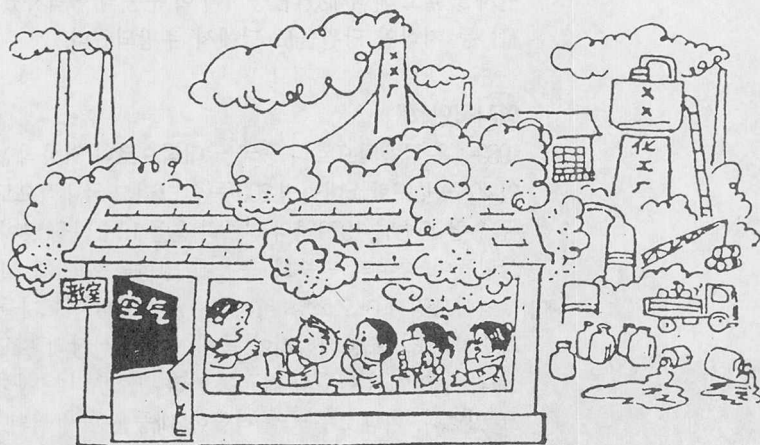
공기의 성분

空氣的成分是什麼?
工廠裏的臭氣。

선생님: 공기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陳景國



최근 개혁개방의 물결로, 경제특구로 설정된 각 지역마다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빚दै 풍자한 것이다.

6·4 천안문 사건의 전상

천안문 사건의 배경

1984년 10월, 12기 3중전회를 계기로 개혁의 중심이 도시로 옮겨지자, 도시주민의 경제, 사회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복잡한 상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물가의 상승,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주택·취직·결혼 난,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의 자유화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관료제도하에서의 부정부패 현상 등이 도시주민의 불만과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세태를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학생 지식인의 민주화 운동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에 앞서 문예계·영화계·예술계 등에서는 자유화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1986년 말 허페이(合肥)의 과학기술대학에서 발생한 학생운동이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당원·학자가 지도하거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운동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개혁의 급진화를 저지하려는 보수파는 이 운동을 부르주아 자유화에 의해 정신이 오염된 결과라고 해서, 이것을 용인해 온 개혁파의 당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의 책임을 추궁했다. 학생운동은 당내 권력투쟁까지 불러일으켰으나, 다음 해인 1987년 후야오방이 해임되자 후원자를 잃고 퇴색해갔다. 동시에 이 운동의 협력자였던 팡리즈(方勵之)·리우빈안(劉賓雁) 등 지식인 당원들도 당에서 추방되었다.

역사적인 해

1989년은 국제적으로나 중국 국내적으로나 역사적인 해였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 40주년, 프랑스대혁명 200주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5·4운동 70주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40주년, 1979년의 민주화 운동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상황들이 중국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당샤오팡과 자오쯔양(趙紫陽) 등 개혁파 지도자들은, 정치개혁도 '4개의 기본원칙(사회주의의 길, 프롤레타리아 독재, 중국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의 틀 안에서 헌법과 법규에 따라 위로부터 실행하는 민주화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격렬한 대중운동 방식의 민주화는 정치사회를 혼란시키고, 예전의 문혁과 같은 상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덩은 개인 발언에서도 거듭, "민주화를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초조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1989년 중국의 반체제 망명 과학자 팡리즈는 덩샤오팡에게, 10년 전에 체포된 웨이징

성(魏京生)의 특사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또한 2월 13일에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33명이 서명하여, 인민대회 상무위원회와 중앙에 공개서신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행동은 신속히 서양 통신사와 팩스를 통해 전세계로 발표되었고, 해외의 중국인들도 많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은 국무원 대변인을 통해 중국에 정치범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리펑(李鵬) 총리도 내외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들이 인권이란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고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4월 15일, 개혁파의 훌륭한 지도자로 비치면서 실각했던 후야오방이 갑자기 심장병 발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그가 1987년에 불공평하게 숙청되었다고 생각하는 일 반인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분노했다. 베이징 시민들은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사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천안문에 모여 후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민주 화 추진을 서로 다짐하였다. 4월 17일부터 베이징의 4천 명 학생들이 후를 애도하면서 49일 동안 계속된 시위활동에 들어갔다.

천안문 사건의 점화

1989년 4월 18일, 학생들은 천안문 광장에 모여 중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7개의 요구사항 을 제출하였다.

① 후야오방의 공적을 재평가할 것, ② 반자산계급 자유화 문제를 재평가할 것, ③ 고급간부의 수입과 재산을 공개할 것, ④ 민간에게 신문발행을 허가할 것, ⑤ 교육비를 증가할 것, ⑥ 후에 대한 애도활동을 객관적으로 보도할 것, ⑦ 1987년에 공포된 시위에 관한 10개 항 규정의 취소와 이붕 총리와의 대화 등이다.

4월 20일 이후에는 전국 각 도시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4월 21일 천안문 광장에 는 이미 학생과 시민 1만여 명이 모였고, 베이징의 학생들은 자치단체인 베이징대학 임시행동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당국에 진압할 구실을 주지 않으려 하였다. 4월 22일 예정대로 후의 장례식은 진행되었다. 인민대회당 밖에는 20만 명의 시위군중이 모였으나, 학생들의 자치조직으로 질서가 정연하였으며, 3천 명의 무장 경찰이 있었으나 쌍방은 충돌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도식이 끝나자 학생들은 학교를 단위로 광장을 떠났다. 그러나 베이징 이외의 도시는 사정이 달랐다. 22일 저녁 시안(西安)에서는 10여 량의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성 정부를 습격하고, 검찰청과 법원에 방화 하면서 중국공산당의 타도를 외쳤다.

후의 장례식 이후 전국의 학생운동은 순수한 정치 민주화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학생 들은 공개적으로 덩을 비판하고 그의 하야를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5월 4일 전국적인 동맹휴학을 준비하였다.

덩은 리펑과 만나 강경수단으로 이를 막도록 하면서, 이는 국가의 정치안정을 파괴하 는 혼란행위라고 하였다. 4월 26일자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사설에서는, 학생들의 항의 는 계획된 음모이며 반혁명적 동란(動亂)이라고 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베이징의 대학생 들은, 5·4운동 70주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대규모의 가두시위를 조직하였고, 민주화 요구의 실현을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자도 나타났다. 운동은 이 단식투쟁에 동정한 100만을 넘는 민중의 참가로 단숨에 고조되었다. 이 때에는 지방의 대학생들도 베이징으 로 올라와 참여하였다. 민주화 운동은 전국에 걸쳐 80여 개의 도시들로 번져갔다. 화물차 를 타고 공장의 노동자들이 광장에 도착했고 환호를 하며 시위에 가담했다. 심지어 학생들의 시위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군인들도 참여했다.



자오쯔양은 이 때부터 중앙과 학생들의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하여, 중앙통전부, 중앙선전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안배 아래 학생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덩이나 리펑의 강경책에 정식으로 반대되는 행동이었다. 학생들은 시위를 멈추고 수업을 시작하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 대표단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자오는 당으로부터 공격받기 시작했고, 5월 13일 당국의 대답이 없자 수천 명의 학생들은 천안문 광장으로 가 단식청원을 시작하였다. 이튿날 광장에서 단식을 하던 10여 명의 학생들이 기절하자, 당·정 지도자들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다. 단식 학생들이 생명의 위협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를 계기로 지식인들도 5·1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가 착오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였고, 신문들도 자오의 지지 아래 학생들의 단식 상황을 진실되게 보도하였다. 또한 이 상황은 소련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을 취재하러 온 세계 각국 기자들의 주시를 받았다.

피로 물든 천안문

학생들의 단식청원은 대중들의 동정과 지원을 받았다. 5월 16일 밤, 노동자, 학생, 시민 등 30만 명이 광장에 모여 중국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5월 17일 중·소 정상회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이상이 가두행진을 하고 덩과 리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와 표어가 도처에 나붙었다.

당시 중앙정부의 내부에는 덩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자오쯔양과 리펑의 권력 싸움이 전개되고 있을 때, 덩과 자오 사이에 학생운동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었다. 학생들의 시위를 애국으로 보아 정권 타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 보는 자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였다. 반면 덩은 강경한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것을 반혁명이라 보았다.

자오는 자신의 권력이 미치지 못함을 보고, 5월 19일 천안문 광장으로 가서 학생들을 만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 보수파는 이를 가리켜 자오가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면 공격, 결국 자오는 5월 19일 총서거직을 사임하였다.

5월 20일 국무원은 베이징의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계엄 첫날, 천안문 광장에 사람은 그런 대로 많았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시위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공장들은 휴업상태이고 베이징 주위에는 1백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여 계엄군의 입성을 저지하였다.

6월 초에 들어와 정부는 강압적으로 진압할 것을 결정하였고, 군대의 출동은 시간문제였다. 3일 밤 10시 30분에 군대가 탱크를 앞세우고 출동, 천안문 광장으로 들어가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그리고 4일 새벽 1시에 인민해방군은 천안문 광장으로 진입, 결국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천안문 광장을 점령했다. 대략 2천에서 3천 명의 인명이 살상되었다(1995년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건 당시 살상된 인명이 5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군부는 중국 전역의 평정을 재주장했다. 그러나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成都)와 몇몇 다른 도시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베이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자 학생과 시민들은 조용히 물러났다. 이렇게 하여 민주화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이를 6·4 사건, 또는 천안문 사건이라 부른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민주화 운동과 중국교회

“천안문 광장은 단식 투쟁으로 인하여 지쳤거나 또는 일사병으로 쓰러진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 출동하는 앰블런스의 경적 소리와 학생들의 노래 소리로 인하여 매우 시끄러웠다. 그러나 나는 그 와중에서 흘러 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들었다. 인민대회당 앞에 있는 수많은 깃발들 한 가운데에 십자가를 그린 깃발이 높이 들려 있었다. 크고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하얀 깃발에는 중국어로 “神愛世人(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이라고 쓰여 있었다.

자세히 보기 위해 나는 군중들을 헤치고 나갔다. 모두 그리스도인인 20여 명의 학생들이 깃발 아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찬송가 “십자가 군병들아”를 뜨겁게 부르고 있었다. 그러자 호기심을 가진 구경꾼들이 이 기이한 현상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만세반석 열리니”를 찬송하기 시작했다. 나도 같이 불렀다. …… 나는 베이징의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교 학생들이 “우주적 사랑” 등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천안문 광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목격했다.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의 중심지인 천안문 광장에서 가두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토니 램버트 「중국 교회의 부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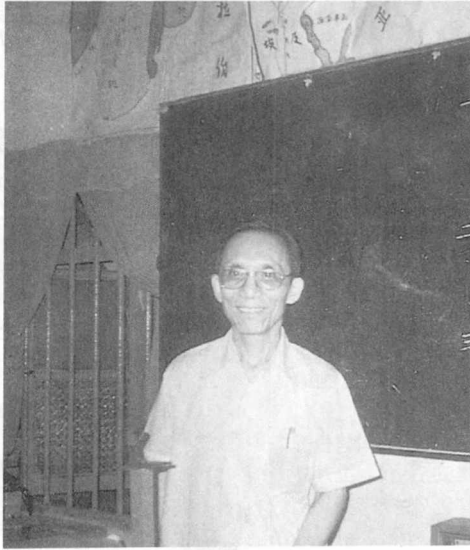


삼자교회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온 것으로 해외에 알려진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이 민주화 운동에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과는 반대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해온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지도자들과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의 학생들은 '89년의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1989년 5월 18일 덩광선(丁光訓) 주교는 학생들의 ‘애국적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5월 22일 그는 성명서에서, “나는 이 시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난징(南京)신학교 학생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5월 24일 덩 주교와 중국 인민정치협화회의의 회원이며 또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지도자인 몇몇 인사들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민회의의 비상소집을 요구하는 편지를 국가인민회의의 의장인 완리(萬里)에게 보냈다.

대부분의 난징신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난징에서 학생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또한 더 많은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다. 그들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도’(암 5:24)라는 성경 구절을 슬로건으로 적은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그들은 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2류 시민으로 취급되며, 또한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없다.’라는 포스터를 내걸었다. 상하이의 기독교학생들도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신학교 학생들의 개입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89년 천안문 광장에 모인 젊은 기독교인들이 '上帝愛世人(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이라는 말씀이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대표적인 가정교회 지도자 린셴가오 목사.

가정교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부분의 가정교회 신자들은 1989년의 민주화 운동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이 농촌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농민들은 그 당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시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자들이 정치 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는 점이다.

광저우(廣州)의 린셴가오(林獻羔) 목사가 담임하는 다마잔(大馬站)교회 신자들은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평상시에도 정부와 여러 관련 부서들이 우리에게 문제 삼을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들은 즉시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가정교회가 지나치게 경건하거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며, 또는 교회를 정치나 문화로부터 고립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기 쉽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민주화를 위한 정치 행위는 그다지 중요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의 비정치적 입장이 단지 하나의 자기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행동주의보다는 복음이 최종적으로 우월한 데 대한 깊은 신뢰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로마의 정치 세력과 대결하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로마 체국을 정신적으로 멸망시킨 천대받던 노예들과 사회 하위계층의 본보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문과 민주주의 여신상

「..... 주말인 5월 27일과 28일이 되자 천안문 광장의 분위기는 이미 맥이 빠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광장에서는 투표가 이루어졌다. 상당수의 지도자들은 시위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학생들은 그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천안문 광장의 지도자들은 자금성 동쪽에 위치한 중앙미술학원의 학생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왔다. 상하이에서 학생들이 ‘자유 여신상’의 복제품을 들고 행진하였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것을 속히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시위대가 붕괴할 것임을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유 여신상의 복제품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중국 민주주의의 여신’이 되어야 했다.

여신이 광장에 도착한 것은 29일 밤 10시 35분 무렵이었다. 학생들은 천안문 벽에 걸려있는 마오의 거대한 초상화 바로 정면에 6피트의 대좌를 설치하고 여신상을 세웠다.

이것이 마지막 시도였다. 여신상이 시위에 상승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은 시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월 30일 저녁이 되자 수천 명의 베이징 사람들이 다시 천안문으로 몰려 들었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여신상의 모습은 텔레비전 카메라를 통해 전세계에 방영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천안문의 시위는 살아 있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 정부의 관료들은 여신상으로부터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읽었다. 그것은 마침내 파국을 불러오는 마지막 불씨가 되었다. 광장을 청소할 준비를 서두르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민주주의 여신상’은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감에 빠진 학생 지도자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위 군중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다.

5월 29일과 30일에 천안문 근처의 거리에 군대를 호송하는 차량이 나타났다. ...」

(해리스 E. 솔즈베리 「새로운 황제들」 중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고 몇 주가 지난 뒤 나와 대화를 나눈 한 가정교회 신자는 기탄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은 이 운동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여신상’이란 우상이 천안문 광장에 세워지자마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평가가 너무 혹독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나도, 학생들에 의해 천안문 광장에 “인민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깃발이 세워져 나부꼈을 때 이 운동의 토대가 인본주의적이며 또한 세속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토니 램버트 「중국교회의 부활」 중에서)

열매 맺는 나무를 위하여

주성지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스런 봄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고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제게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귓가에는 선교사를 평한, 한 조선족 교포의 한마디 말이 생생하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기도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돈을 깔아요, 돈이 떨어져 돈 가지러 한국 갔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열렸고, 한국 교회의 선교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현장에는 ‘일꾼이 너무도 없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이니,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중국선교가 될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제가 1992년 평신도 사역자라는 명칭으로 이곳 사역지에 첫발을 디뎠던 그 해는, 6개월 간 한 명의 사역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따금 여행은 한국인을 만나도 고향 까마귀를 만난듯 반가웠는데, 지금은 곳곳에 한국인 사역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전파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역자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꾼이 집중된 곳에서는 선교방법의 차이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한국인 사역자가 중국어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게다가 중국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마도 조선족 대상의 선교와 돈으로 지원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조선족과는 일단 말이 통하고 한 동포라는 관점에서 함께 일은 시작하지만, 불과 몇 달이 못 가서, 그들 조선족이 가진 사고방식이 우리와 엄청나게 다른 것을 깨닫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벌여놓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지 못해 끌려가다 보면 피차 ‘불신의 벽’을 쌓아놓은 채 동역하는 현상을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돈이 관련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 요구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니, 피차 결국 선교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후회하게끔 됩니다.

조선족은 한정되어 있는데, 후원받는 교회나 개인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때로는 전문적으로 후원을 노리는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가, 아무 준비나 인도없이 들어와 ‘돈’만을 무기로, 조선족 교회를

결과적으로 그르치게 하는 사역자들의 개탄스러운 행태가 심심찮게 들려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극소수이긴 하나 묵묵히 인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우 활발하게 선교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격려를 받고 비전을 갖게 되었으며,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승원 그림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하에서, 중국의 법을 존중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고 봅니다. 북경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학생 수만도 3,5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기독교인 한국 유학생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교현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 중국 대학생들은 미래 중국의 지도자요, 중국을 변화시킬 자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중국은 구석구석 많은 평범한 헌신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무슨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는, 자기의 전답과 옥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진정한 '제자'입니다.

A라는 분은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선교가 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줄 '관리인'을 찾고 있습니다.

B는 중국에서 농산물 특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그의 사명입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문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C라는 분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헌신된 '요리사'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D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족 지도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분으로서 '중국어 강해설교'와 '중국어 찬양' 지도를 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실한 선교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선교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함께 일할 '전문인 사역자'들의 협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성도들의 이해와 후원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중국 현지에서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위한 사업체 운영이 정상궤도에 놓이기까지는, 아직도 그 중요성을

잘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전문인이 이처럼 중국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체를 세움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순결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한 사업은 속된 사업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지는 때가 이 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개혁개방 정책을 선택한 중국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열어주신 문으로 당당히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인도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1996년 부활절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주성지 선교사 올림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 차이나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02)594-8038

궁금합니다. 중국선교...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원에서 군복무중인 김△△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 제대하여 3학년으로 복학할 예정이며, 전공은 건축공학입니다.

중국선교에 대한 비전은 대학교 1학년 여름수련회에서 받았 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막연하게나마 자비량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그리고 중국에서 자비량 선교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김△△ 형제님, 이렇게 편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내에 형제님과 같은 젊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크게 언어·선교사 소양·후원 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사역 내내 부담감을 가질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도착해서, 현지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재학중에 1년씩 단기 언어연수를 다녀오는 풍조가 생기면서, 선교 후보생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님처럼 자비량 선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졸업 이후 일반 회사에 취직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언어 학습 기간을 별도로 갖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제님께서 제대 후 복학하기에 앞서 1년 정도 중국에 가서 언어연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교사 소양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소양에는 신학적 소양, 인격적 소양, 사역적 소양 등이 있는데, 평신도 선교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신학교와 선교 훈련원을 통해서 선교사 소양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평신도선교 내지 직업선교의 개념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면서, 선교사 소양 개발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전도단(YWAM)의 열방대학, OM 단기선교 훈련과정, GMF 산하 GMTC, 중국복음 선교회의 중국선교사 훈련원, 본 선교회의 중국선교훈련원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GMTC에서 제공하는 훈련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고, 강의도 토요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적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형제님이 군복무 중에

도 개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시간 체질화입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창의적 접근 지역, 즉 영적 쇄새 사회에서 사역할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자립능력이 요청됩니다. 의외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 초기에 이 영적 자립능력의 부족으로 고전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Q.T.교재를 이용하여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는 성경본문을 토대로 직접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도 영적 자립능력을 키우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후원 개발과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음 번에 말씀드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히 이루어질 것을 기원합니다.

◇ "궁금합니다...."에 참여하십시오.

중국선교에 관한 여러분들의 문의를 받습니다. 중국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나, 이미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역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편지나 팩스, PC 통신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팩스: 02) 599-2786

PC 통신 천리안 : SINIM

이요한/ 중국어문선교회 총무



중국 문화

중국인의 변신술 인장(印章)

인장 은 중국인의 변신술이다. 종이 위에다 정령처럼 기묘하게 변화시킨 것으로서 손오공의 요술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중국인은 신화소설에서 손오공을 창조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들고 입김을 불어, 자기와 똑같은 인물을 72개로 만들어 여러 곳에 동시에 출현시킨다. 중국인은 현실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분신술을 발명했다. 그것이 바로 인장이다.

종이 위에 새긴 영혼, 기능은 천만 가지

예로부터 물건에 도장을 찍는 것은 본인의 확신성을 입증해 주는 의미가 있었다. 오늘날은 컴퓨터가 문서 양식을 변화시켰고, 소비 시장에 진입한 신용카드에 싸인 한 번 함으로 신용을 표시하지만, 중국 사회에서 인장은 여전히 그 위력이 남아 있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각 정부 관원과 교체하는 정부기관의 하급 관원에 이르기까지, 공인(公人)의 상징물로 인장을 사용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적인 소송 절차를 밟을 때, 혹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구좌를 개설하고 물건을 찾으러 갈 때도, 인장을 찍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절차를 마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직접 가거나 또 신분증이 있어서 신분이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감 도장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보다 인장을 더 믿는,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현상은 중국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등록상표'라고 할 수 있다. 인장은 한 개인의 승락을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소유권을 표시한다. 그리고 화가나 문인들이 자기의 심정과 포부를 표시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서적의 마지막 면에 도장을 찍어서 누구 누구의 장서임을 표시한다. 옛 서화에 제관(齊館)을 찍어서 '이 물건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히는 것이다. 어떤 것은 '나 아무개는 이 작품이 진실하고 오류가 없음을 감정한다'고 선포한다.

이외에도 고대 문인들은 글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한 심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그런데 말을 안하자니 답답하기도 하여, 절충하는 방법으로 그 많은 마음 속의 말들을 몇 글자로 압축해서 인장을 새기고 서화에 낙인을 남기는 것이다.

한 나라 때 출현한 ‘急就章’(응급조치 도장)

전해오는 기록에 따르면, 인장은 이미 중국 고대 은(殷), 상(商) 시기에서 주(周)나라 때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인장은 또한 관인(官印), 사인(私印), 성명인(개인인감도장) 등으로 구분되었고, 진(秦)나라 이후에 비로소 관인을 엄격히 제정하였다. 인장의 재료, 길이, 글씨의 균형에 대한 규정이 있었기에 인장을 함부로 만들 수 없었다. 왕권 시대에는 관인이 권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장을 받으면 권리를 받은 것과 같았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문서를 전달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개봉되는 것을 피하려고 대나무를 사용해서 서신을 전달하였다. 이 때 봉니(封泥:왕복서함을 새끼로 묶고 그 매듭을 진흙으로 봉함. 그 위에 도장을 찍어 남이 함부로 개봉하지 못하게 했음-역자 주)에 도장을 찍었다.

현재 출토된 문자 가운데 ‘某某印信, 宜身至前, 迫事毋問, 願君自發, 印信封完’라는 글이 있다. 이 말은 ‘나 아무개는 본인이 친히 와야 하는데, 일이 있어 시간이 없으므로 편지를 당신이 스스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편지를 봉하여 내 도장을 찍습니다.’라는 뜻이다.

한나라 때는 관리가 직권을 행사할 때 평소에 도장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는데, 인장은 활자를 주조하는 주조기에 여러 번 주조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만일 군대에서 긴급하게 도장을 사용해야 할 때는 금속재료에 주조할 시간이 없으므로 곧 칼을 가지고 직접 인장 재료에 새겼다. 이것을 후에 ‘응급조치 인장

(急取章)’이라고 불렀다.

수(隋), 당(唐)나라 때 와서 종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후에야, 인장도 직접 문서 상에 인주를 발라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서명 낙인’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잘 아는 검은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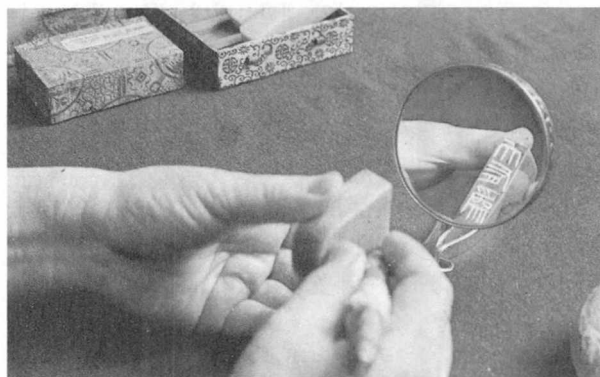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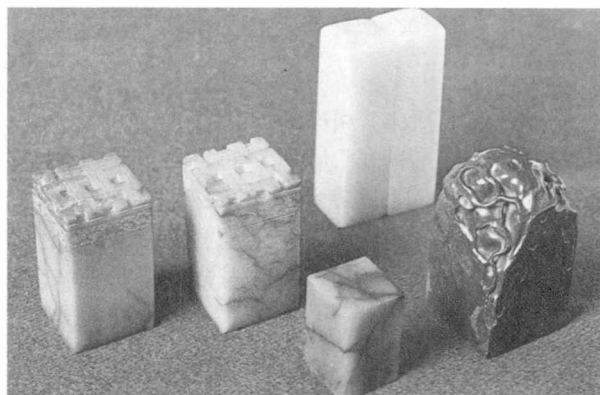
실용에서 예술까지

전각의 명가인 대만사범대 미술대학 부교수 왕베이웨(王北岳)는, 당나라 때 문예풍조가 전성기를 맞아 인장도 점차 실용적인 것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위 ‘놀이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장(閑章)’이 출현했다. 기년인(紀年印)과 제관인(齊館印)은 개인인감도장(姓名印)에서부터 한장이 있기까지의 과도기적 산물이다.

당태종(唐太宗)과 현종(玄宗)의 친서에는 공예가의 손으로 새겨진 정관(貞觀), 개원(開元)의 두 시대를 표시하는 인장이 찍혀 있다. 당대 이후부터 문인들이 서화에다 인장을 찍는 풍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찍이 인장을 만드는 작업은 공예가들이 손수 집행하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았고, 재질 역시 대부분 옥 또는 금, 동철 등 금속류였다.

원나라 말기에 왕멘(王冕)이 처음으로 화유석(花乳石: 연석의 일종)을 사용하여 각인하였다.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되어 인장의 재료는 더욱 다양화되고, 문인들이 직접 인장을 제조하는 데 선례를 남겼다.

돌의 재질은 경석, 연석 등으로 구분하는데, 경석은 마노나 호박 등이고, 연석은 청전석(靑田石:절강성 청전현에서 산출되는 납석-역자 주), 창화석(昌化石: 절강성 창화현에서 나는 매우 진귀한 돌로, 반투명하거나 붉은 점이 있는 것, 전체가 붉은 것 등이 있음-역자 주), 수산석(壽山石:복건성 민후(閩侯)현 수산(壽山)에서 산출되는 윤이 나고 깨끗하며 오색을 띠고 있는 미옥-역자 주)등이다. 경석은 칼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 미감을 표현하



기가 쉽지 않지만, 연석은 동과 옥이 새기기 쉽고, 도공의 필법이 보기에 좋아, 후대 전각가들이 즐겨 쓰는 재료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장을 예술적 영역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한 사람은, 명나라 때 원정명(文徵明)의 아들인 원평(文彭)이다. 왕배이월에 의하면, 명 나라 이전에 인장은 단지 서화의 일부분으로서 인식되었을 뿐이었지만, 원평의 창작으로 새로워졌고, 비로소 독립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예술적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원평이 처음으로 인장에 문장을 새 넣는 기술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 전, 진한 때 인장 위에 새겨진 문자는 자체(字體)와 필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용적 기능만 있었다. 예를 들면, 원나라 때는 문자체를 새기는 것이 섬세하고 어려웠으나, 서법의 기풍이 부족하여 예술적 가치를 논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원평은 한나라 때의 인장을 대가로 삼아 서법의 필의를 더욱 더 첨가했다. 동시에 성명제관인(姓名齊館印)에 만족하지 않고, 향상 시와 산문을 의미 심장하게 새겨서 인장의 내용을 넓혔다.”

왕배이월이 표현한 대로 원평 이전에도 비록 한장이 있었으나, 그가 제창하기 시작한 뒤부터 보편화됐으며, 또한 그는 인장 서화의 마지막 부분에 직인으로 남겼다.

청(淸)나라 때 크게 부흥했던 금석학(金石學)은 전각의 발전을 고무시켰다. 이러한 유파가 곳곳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전각예술은 더욱 광채가 빛나게 되었다

법령 제도와 문물 제도

인장과 중국인과의 인연은 이미 역사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또한 거기에는 우아하고 낭만적인 정서가 있다. 또한 이것을 통해 법령 제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인의 생명에 대한 가치 및 생활예술적 관점도 이해될 수 있으리라.

인장 발전사를 연구해보면, 각 시대의 법령 제도 및 사회 기풍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나라 때는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인장도 규격과 크기가 다 달랐고, 관인(官印)과 사인(私印)의 규정이 없었다. 전제정치가 행해진 진나라 때는 모든 책마다 같은 서체의

문자만을 사용했고, 수레바퀴의 폭도 전부 통일했다. 인장의 규격도 이때 제정되었다. 서체는 소전(小篆: 진(秦)의 이사(李斯)가 만든 서체)의 세밀한 문자를 사용하였다.

한나라는 소박하고 검소하여 꾸밈없는 것을 숭상했다. 인장의 문자 가운데 소전 문자는 비교적 풍부하고 고지식하며, 서투르지만 세밀한 데가 있고 깔끔하다. 당나라 때는 종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장이 낙관의 용도를 대신할 수 있었고, 형식과 제도 역시 눈에 띄게 방대해졌다.

인장으로 지위를 알다

요즘 사람들이 으레 유명상표로 신분과 지위 및 재산 등을 표현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인장으로 그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전에는 인장을 함을 봉하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심지어 관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신분을 나타내는 것 외에 영예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결론

예로부터 중국인의 인장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고 의사를 전달할 뿐 아니라, 마음의 말을 담아내는 도구였다. 또한 인장은 마치 종이 위에 영혼이 숨쉬듯, 세상 만물에 대한 중국인의 정과 가치관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흐르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인장에 대해 사라지지 않는 애정이 중국인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위 글은 대만 光華雜誌社의 〈中國人的註冊商標〉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번역/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한국 교회 미전도종족 선교대회

지난해 열렸던 세계선교대회(GCOWE'95)의 후속 사업으로
‘지역마다 교회를 사람마다 복음’(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이라고
 명명된 전략을 가지고, 최우선 미전도종족 선교대상으로 1,685종족,
 인구 22억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미전도 종족을 한국 교회내에서 구체적으로 입양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최소한 500여 종족이
 국내 교회에 입양되도록 한다.

강 사: 정진경, 김의환, 김준곤, 이동휘, 김상복, 홍정길, 강승삼 외
 대 상: 한국 교회
 주 최: 예정합동 외 11개 교단
 주 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일 시: 1996년 5월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1박 2일)
 (단, 경인지역은 출퇴근, 지방에서 참가하는 분들은 숙식 제공)
 장 소: 햇불선교센터
 문의처: 세계선교협의회(TEL. 02)363-7091)
 기독교21세기운동본부(TEL. 02)325-8767)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TEL. 02)402-4967)

푸른 연(藍風箏)

이창우



이 영화는 중국의 근대사 중 가장 격동기였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수난사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공산당 혁명 이후, 1953년부터 공산당 내의 대숙청, 1958년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1965년 문화대혁명 등 중국의 정치적 격변이 가장 심했던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아버지’, ‘아저씨’, ‘양아버지’라는 제목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가 시작되면 푸른 하늘에 연 하나가 날고 있는 모습이 비쳐지면서 노래가 흘러 나온다.

“까마귀는 높이 날지만 늙어서는 날지 못한다. 새끼들은 둥지에서 배고프다고 울지만...”

주인공의 독백이 들려오면서 화면 속에 사람들이 등장한다. 영화를 보고나면 이 노래가 중국의 상황을 빗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53년, 겨울, 강정이라는 마을에서 한참 결혼 준비를 하던 주인

공의 부모들은,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정치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해 결혼식을 뒤로 미루게 된다. 그리고 1년 후, 모택동의 초상화 앞에서 공산당가를 추가로 부르며 결혼식을 올린다. 이 모습 속에 중국 전통의 파괴와, 전통에 의해 서서히 통제되는 인민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가 선물로 가져온, 흙으로 만든 한 쌍의 말 중에서 숫말의 목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할 것을 암시한다.

장면이 바뀌어, 머리가 단단해서 ‘철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주인공 임대우가 태어난다. 아들이 태어남으로 행복한 임소룡과 진서연은 희망에 쌓이지만, 곧 대숙청이 시작되고 숙청 대상에 오른 임소룡이 변방으로 떠나면서 철두의 가정에 시련이 시작된다.

이 때 철두가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린다. 계속해서 영화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철두의 연이 나무에 걸린 모습을 보여 준

다. 텐장장(田壯壯) 감독은, 사상이나 통제에 의해 구속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무에 걸려 날지 못하는 연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 인민을 상징하고 있는 철두의 집안은 점차 무너져간다. 할머니의 가게가 몰수되고, 할머니가 삼촌을 위해 만든 만두가 지나치게 양이 많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작은삼촌의 애인은 당 간부의 파티 참석 요청을 거절하다 공장으로 쫓겨가고, 거기서 반동으로 몰려 죽게 된다. 또 삼촌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고, 마침 이 때 아버지의 죽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며, 철두는 현실을 이해하면서 점점 성장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친구와 재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폭죽을 터뜨리고 만두를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희망에 쌓이지만, 무리한 노동력 동원에 의해 병을 얻은 아저씨마저 죽음을 맞이한다. 이 때 대약진 운동의 부작용과 희생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철두의 연이 나무에 걸린다.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는 삼촌의 도움으로 지식층이며 당의 지도자인 나이 많은 양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철두는 거둬진 삶의 변화와 어머니의 결혼으로 인해 점차 반항아로 변해간다.

그리고 집안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작은삼촌은 실명하여 군에서 제대하고, 삼촌의 여자친구는 병이 든 채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삼촌은 마음에도 없지만, 출신 성분이 좋은 당 간부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서 삼촌은, 현실에 안주한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며 철두에게 나와 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한다.

철두는 새로운 아버지의 가족들과 대면하게 되고, 동생뻘 되는 조카와 연을 날리며 친하게 된다. 양아버지와 새 가족들과의 관계가 호전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곧 날리던 연이 나무에 걸린다. 문화대혁명의 회오리 속에 양아버지는 자본주의적 지식층이라는 죄명 속에 끌려가다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어머니는 노동개조 훈련소에 보내진다. 이 와중에 철두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체포원들과 싸움을 벌인다. 몰매를 맞고 쓰러진 철두의 눈에 나무에 걸려 찢어진 연의 모습이 보이며, 상황을 설명하는 철두의 독백으로 영화가 끝난다.

이전에 화면 속에 보여진 나무에 걸린 연들은 온전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연을 내려서 조금만 고치면 새로 날릴 수 있는 것을, 즉 잘못된 체제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조그만 변화가 중국인들의 삶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찢어진 연의 모습은 다시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모습, 즉 문화혁명에 대한 절망적 비판을 말한다.

하지만 영화 속에 자막이 올라오며, 다시 연을 날리는 모습을 통해, 이 영화는 철두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상처받아 그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중국의 미래는 자유롭게 날고 있는 연처럼 변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영화 속에서 '연'은 중국의 인민을, 또는 중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연을 날리는 사람은 정치 위정자를 상징하고 있다. 같은 시대를 다룬 영화 '인생(活着)'을 비교하여 본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아버지들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다. 6.25라는 동족 상잔의 이념 대립, 60, 70년대의 군사정치, 80년대의 문화적, 정치적 암흑기 등 우리 나라의 근대사 역시 중국과 비슷한 면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면,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상처받은 수많은 철두와 그 부모 형제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

이창우/ 중국복음선교회 회원

耶穌愛我歌

예수 사랑하심은

(찬 411장)

A. B. Warner, 1859
보통으로 ♩ =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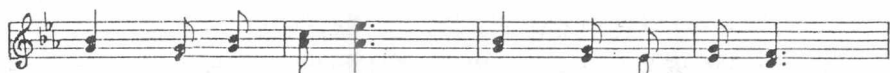
CHINA: 7.7.7.7 REF.
W. B. Bradbury, 1862



耶 穌 愛 我 萬 不 錯 因 有 聖 書 告 訴 我
Yē sū ài wǒ wàn bú cuò yīn yǒu shèng shū gào sù wǒ
예 수 아이 워 완 부 추오 인 요우 성 슈 까오쭈 워



凡 屬 我 主 衆 小 羊 雖 然 軟 弱 主 強 壯
fán shǔ wǒ zhǔ zhòng xiǎo yáng suī rán ruǎn ruò zhǔ qiáng zhuàng
판 슈 워 주 중 샤오 양 수이 란 루완 루오 주 치양 주앙



主 耶 穌 愛 我 主 耶 穌 愛 我
zhǔ yē sū ài wǒ zhǔ yē sū ài wǒ
주 예 수 아이 워 주 예 수 아이 워



主 耶 穌 愛 我 聖 書 上 告 訴 我 阿 們
zhǔ yē sū ài wǒ shèng shū shàng gào sù wǒ ā men
주 예수 아이 워 성 슈 상 까오쭈 워 아 먼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호부터 '중국어 찬송가'를 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배때 부르고 있는 찬송가를 주로 실을 예정입니다.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한어병음과 함께 한글 발음을 달았습니다(한글 발음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원발음과 유사한 음으로 표기했습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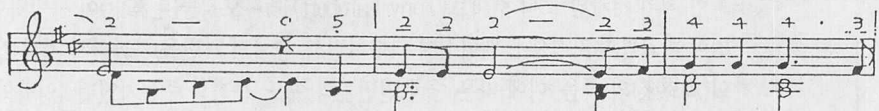
最大的事

가장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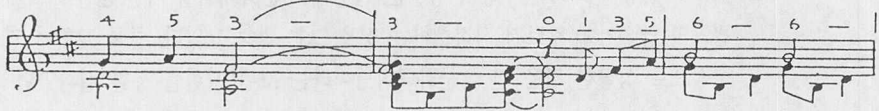
Words and Music by
Mark Rendengrass



在 一 生 中 最 大 的 事 是 認 識 祢*
Zài yī shēng zhōng zuì dà dì shì shì rèn shì nǐ
짜이 이 성 중 쩌이 따 디 스 스 런 스 니



在 一 生 中 最 大 的 事 是
Zài yī shēng zhōng zuì dà dì shì shì
짜이 이 성 중 쩌이 따 디 스 스



認 識 祢* 我 要 更 認 識
rèn shì nǐ Wǒ yào gèng rèn shì
런 스 니 위 야오 경 런 스



祢* 更 深 地 認 識 祢* 在
nǐ gèng shēn dì rèn shì nǐ Zài
니 경 셴 디 런 스 니 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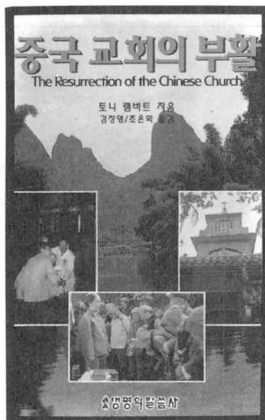
一 生 中 最 大 的 事 是 認 識 祢*
yī shēng zhōng zuì dà dì shì shì rèn shì nǐ
이 성 중 쩌이 따 디 스 스 런 스 니

우리말 내용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아는 것이네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아는 것이네
나 더욱 주를 알기 원하고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아는 것이네

*愛慕祢(주를 사모해)
ài mù nǐ
아이 무 니

*服事祢(주께 봉사해)
fú shì nǐ
푸 스 니



중국 교회의 부활

(The Resurrection of the Chinese Church)

“지난 10여 년에 걸친 중국 교회의 부활은 20세기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토니 램버트(Tony Lambert)는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하던 해인 1976년, 영국 외교관의 자격으로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중국의 격변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죽음, 이에 따른 중국 인민들의 애도, 문혁의 주동자였던 4인방의 몰락, 탕산(唐山) 대지진,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권력 부상과 함께 시작된 중국의 개방정책, 그리고 그 일환으로 문을 열기 시작한 중국 교회...

그러나 중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놀랍게도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교회에 가해진 처절한 핍박의 암흑기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다. 중국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숫적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문화대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통한 결과였던 것이다.

램버트는 홍콩으로 이주한 뒤에도, 정보 수집과 중국 그리스도인들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중국 교회의 변화를 상세히 살폈다. 그는, 정부의 종교정책에 관련된 각종 내부 문서와 가정교회 신자들로부터 받은 수 통의 편지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교회 신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얻은 생생한 자료들을 이 책에 담고 있다.

이 책은 여러 장에 걸쳐서 중국 공산당이 실시하고 있는 종교정책의 실상과 중국 교회의 성장과 생활, 또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핍박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1989년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종교 정책의 실상과 중국 교회의 위기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 속한 소위 삼자교회들과 가정교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주요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중국 그리스도인들과, 문화대혁명으로부터 천안문 사건까지의 정치적 격동기 가운데서도 중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 많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저자는 중국 교회가 서방의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중국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에 걸쳐 일어난 중국 교회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저자는 런던의 'The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중국학을 한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중국과 관련된 사역과 연구에 종사해왔다. 베이징 주재 영국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1982년 이래 홍콩 COMF의 중국 자문위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중국 교회의 부활 · 토니 램버트 저 · 김창영/조은화 옮김 · 생명의 말씀사 · 367쪽 · 6,800원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중국 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동양사상연구회
신국판 · 254쪽 · 6,000원
성지출판사

이 책은 '95년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중국기독교협회의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진, 장신대 학생들의 중국 신학교 방문 보고서이다. 공식초청인만큼 이들은 중국의 공인교회인 삼자교회와 각 지역(쓰촨, 산시, 베이징, 난징, 항저우, 상하이)의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한 글들로 펼쳐놓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신학생들의 여행 보고서와 소감, 그리고 여행 중에 가졌던 삼자교회 인사들과 신학생들과의 강연·좌담·토론회의 초록, 그리고 삼자교회 지도자 및 에데기교회 인사들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신학교를 방문하여 교수 및 신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신학교에 대해 소개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 책에는 철저히 삼자의 입장에서 보고 들은 중국 교회의 모습만이 들어 있다. 짧은 기간 중국의 일부분을 보고 쓴 것이기에, 오늘의 중국 교회에 대한 상세하고 깊은 분석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 삼자교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보고서는 좋은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었다

신형식 지음
신국판 · 299쪽 · 9,000원
솔출판사

“만주에 남아 있는 고구려·발해 유적을 찾아 우리 고대사의 복원을 꾀하려는 한 사학도의 집념 어린 답사가 되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단순히 가까운 이웃나라가 아니다. 반만 년 우리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이며, 또한 우리 나라 역시 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

고대사 연구가 신형식씨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쓴 이 책은, 단순히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멋과 맛으로 물들여진 지안(集安)과 연지(延吉)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만주에 남아 있는 고구려·발해의 유적지를 돌아보아 한국 고대사를 복원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었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지안 일대의 고구려 유적과 발해의 유적 등 우리 조상들이 남기고 간 여러 유적들의 사진과 지도를 통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곳을 여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20세기 중국사

히메다 미쓰요시 외 지음,
김순호 옮김
신국판 · 297쪽 · 7,800원
돌베개

이 책은 기존의 정치사 위주의 서술에서 벗어나, 역사의 전체에 걸쳐 두루 실린 글들을 모았다.

20세기 동안 세계 여러 나라는 제국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냉전체제로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또한 국제정치와 경제, 다양한 시민운동이 전개되면서 제 3세계 국가들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20세기는 이러한 세계의 변화속에서 고립된 채 자력갱생(自力更生)으로 일관해 온 터라, 오늘날에도 개방을 외치면서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대외정책에서 자력발전의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서구에 반발하여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 독립·통일의 국민국가를 형성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수용한 것도, ‘중화’ 민족주의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 외에 주변 여러 국가들의 시각으로 본 중국 근대를 비롯하여, 경제정책의 변화, 정치개혁을 물고 온 민주화운동 등 세계 속의 중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21세기에 더욱 비중있는 중국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자 하며, 중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세미나 스케치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중국선교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부설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
주최, 3월 정기세미나가 3월 14일(목) 오후 7시
에 한성교회 소강당에서 열렸다.

현재 대만 다오성신학원 원장인 천레이 목사가 '최근 중국 가정교회의 새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이번 세미나는, "중국은 변화가 급속하여, 중앙의 정책이 지방의 하부기관에 전달되고 시행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중앙에는 중앙의 정책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의 정책이 있다"며,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선교의 기회를 잘 잡기를 권하였다.

또한, 최근 장쩌민 총서기가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여 삼자교회에서는 신학도 사회주의에 걸맞는 통전(統戰)신학을 주창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상당수의 삼자교회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삼자교회를 떠나, 가정교회 혹은 이단으로 가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신학교를 건립하지 않는 등 중국의 종교정책을 반영하는 여러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현지의 가정교회 사역자와 어떻게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세미나 소식

'96 제1회 인천지역 선교세미나

주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행 13:47)

일시: 96년 5월 6일(월)~7일(화)

저녁 6:30~10:00

강사: 정민영 선교사(GBT), 이현종 목사(예수선교회), 각 회원 선교단체 실무자

문의 및 등록처: (032) 435-6777(JWM)

(032) 863-0681(GBT)

(032) 435-2886(GMP)

'96 전문인 선교세미나

일시: 96년 5월 17일(금) 오전 10:00~오후 5:40

장소: 햇불회관

문의: TEL. 02)522-6355 FAX. 3471-3044

담당간사 조금희, 임동희

GMF 선교사 재교육 세미나

주제: 선교와 교육

일시: 96년 5월 6일~5월 10일

장소: 목산침례교회

등록비: 일반인 10만 원, 학생단체회원 5만 원

자세한 문의로는 한국선교정보연구센타로

TEL. 02)557-2088, 569-0716

훈련받을 일꾼을 모집합니다.

중국복음선교회 농가선교를 위한 특별 모임

일반인들에게 중국어 수화를 가르치며 농가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동시에, 중국 농가선교에 관심있는 한국 농아인들에게 중국어 수화와 한자를 가르친다.

자세한 문의로는 선교사역부로

TEL. 02)318-3956(임갈렐 선교사)

GWM '96 여름 북방 단기 사역

<갈릴리세계선교회>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탐선교, 바울과 같은 교회개척 및 선교지 교회 후원선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선교, 각자의 달란트를 통한 팀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기간: 96년 8월 12일~8월 2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팀사역,

토요일 저녁부터 3박 4일간 선교대회)

장소: 홍콩

사역분야: 의료, 어린이 전도, 드라마, 이·미용

자세한 문의는 GWM(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420-1450, 424-1144, 1244

FAX. 02)421-1425

GWM '96 구소련 11차 단기사역

의료사역 및 이·미용, 어린이 사역, 전도 등 각종 달란트를 가지고 구소련에서 사역할 일꾼을 모집한다.

사역지: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알마타, 침켄트,

타쉬켄트, 굴리스탄, 양기울

일정: 1996년 5월 30일~6월 8일

모집 인원: 각 팀별 5명 이상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420-1450, 424-1144, 424-1244

(담당간사: 노은주)

GMF 도시선교 및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캠프 여호수아

GMF에서는 일주간의 강의와 일주간의 민속학적 인터뷰 실습 및 J-Walk의 내용으로 캠프를 연다.

장소: 필리핀 마닐라 소재 GCMC

기간: 96년 6월 24일~7월 6일

지원마감: 1차-4월 30일 오후 5시까지

2차-5월 15일 오후 5시까지

자세한 문의는 KRIIM 사무실로

TEL. 02)569-0716, 557-2088 FAX. 563-6950

GMTC 제13,14기 선교훈련생 모집

GMTC에서는 전 가족이 입주하여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을 훈련생을 모집한다.

훈련기간: 96년 8월~11월(13기)

97년 1월~7월(14기)

장소: 양천구 목동 소재 본 훈련원

지원마감: 96년 5월 말(13기), 9월 말(14기)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훈련원>으로

TEL. 02)649-3197 FAX. 647-7675

GMP '96 터키 여름 단기선교 훈련생 모집

타문화권 적응훈련, 이슬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 이슬람의 선교사역의 원칙 및 전략 연구,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필요한 준비사항 등의 내용으로 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 96년 7월 말부터 8월 중 3주간 실시

훈련인원: A팀-터키, 불가리아(15명, 170만 원)

B팀-터키, 아제르바이잔(15명, 190만 원)

신청마감: 96년 5월 31일

신청금: 15만 원

자세한 문의는 <개척선교부>로

TEL. 02)556-9138, 565-6792

제10기 한국 전문인선교훈련원 훈련생 모집

일반전문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훈련생을 모집한다.

대상: 대학(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나

경력 소유자이며 전도 및 제자훈련이 된 자

훈련기간: 96년 8월말~97년 8월 말(최소한 1년)

훈련비: 독신 65만 원, 부부 120만 원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담임목사 추천서, 참고인 의견서(소정양식)

배부 및 접수기간: 수시

장소: 서초동 영화교회 교육관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

TEL. 02)537-2043, 594-3438 FAX. 595-7809

바울선교회 제15기 선교사 모집

1987년 필리핀에 선교사 훈련원을 설립한 <바울선교회>가 선교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역에 협력하고자 하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서류접수 및 장소: 96년 8월 17일까지,

바울선교회(전주, 서울)

시험일자: 96년 8월 26일 오전 10시

시험장소: 바울선교회(전주)

시험과목: 영어, 기독교론, 면접(부부 함께)

자세한 문의는 <바울선교회>로

TEL. 02)3672-2037 FAX. 3672-2036



오늘날의 세계 기아

10/40 창문지역의 미전도종족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날마다 3만 5천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래리 워드가 국제기아대책기구(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를 설립했고, 1989년에는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가 설립되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당신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구호아래,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동구권에서 굶주린 지구촌 이웃들의 생존과 자립을 위해, 긴급 식량 원조와 각종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구호단체로서 복음과 삶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기억하는 것

기아선상에 있는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 대해 다룰 때, 특별히 아직 접촉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접근은 상당히 복음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언 31: 8~9)’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삶 속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에 대한 말씀이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공급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의 통해 전해주시고 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베드로와 예루살렘교회로부터 부탁받은 말씀이 있었다.



바로 가난한 자를 돌아봐 달라는 것이었고, 이에 바울은 자기도 힘써 애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인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세계에서는 매초에 두 명씩 죽어가고 있다. 그것은 1분에 24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 24명 가운데 18명이 어린이들이다. 한 시간에 40명, 하루에 3만 5천 명, 1년에 천3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은 기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기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3만 5천 명의 숫자는 매일 100대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수치는 미국에서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에 기아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왜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가? 그것은 기아라는 문제가 너무나 조용한 재앙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전세계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흩어져 조용히 누워 있는 모습은 오늘날 뉴스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아의 문제는 지상에 늘 존재해 왔으나, 기아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3만 5천 명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늘날 현대 산업구조는 전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식량과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식량 과학자들이 ‘Super rice’라는 엄청나게 굵은 알곡의 곡식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여, 식량 생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대미문의 해였다고 한다. 사실상 생산되는 식량의 양으로 따진다면, 기아문제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전세계적인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다. 기아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적어도 죽어가는 어린이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기아의 여러 형태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비타민이나 칼로리가 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기아의 한 유형이며, 개발도상국 국민의 약 1/3 이상이 이러한 영양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

영양결핍

영양이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 못해서 야윈다거나 하는 외적인 표시는 나지 않을 수 있다. 몸이 심하게 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여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만약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면 설명한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매년 25만 명의 어린이들이 비타민A 결핍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적절한 흡수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몸 안에 어떤 세균이 침투했거나 신체의 구조에 이상이 있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긴 하지만 흡수되지 않은 채 설사로 나가는 상황도 있다.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종류의 기아는, 흔히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한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에 감염되기도 한다.

계절적인 영양부족

문자 그대로 일년 중 어떤 기간 동안에 음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기아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있어 추수 바로 직전이 음식이 가장 결핍된 시기이다. 작년에 추수해서 먹고 남은 것으로 씨를 뿌리고, 남은 곡물이 그 다음 추수기까지 충분치 못한, 옛날 우리 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기를 말한다.

어떤 나라는 정기적인 홍수가 범람하여 먹을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전형적인 예는 방글라데시인데, 몬순 시기에 나라의 1/3이 물 속에 가라앉는다. 또한 가뭄이 계절적인 영양 부족상태를 만들기도 한다.

기근

‘기근’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지진이나 가뭄, 홍수같은 자연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인재(人災)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이 오고 있다. 국가나 부족간의 전쟁으로 인해 이런 기근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단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백만 명 이상이 전쟁에서 죽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따른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

기아는 삶의 황폐화

‘배고픔’이란 단순한 식욕의 문제가 아니다. 기아(배고픔)란 황폐함이며, 몹시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삶의 황폐화와 고통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아문제는 자기들의 생명이 놓여 있는, 생사의 문제이다.

개인적인 영향

기아는 한 개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한 개인에게 단백질이나 비타민, 적절한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주 사소한 질병조차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설사가 굶주린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며,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설사가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잠시 불편할 뿐이어서 약을 먹고 잠시 쉬면



치료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기아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도덕적 문제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배고픈 사람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배고픔이 그들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충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다 허물어버린다.

배고픔은 한 사람의 생산 문제를 둔화시킨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못 쓰고 점점 약해지게 된다. 음식도 먹지 않은 채 뭔가 일을 계속해야 할 때, 그 일의 생산성은 그만큼 저하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그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게으른 이유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배고프고 힘이 없어 활동적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난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기아로 죽어가는 것은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아주 장시간의 고통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볼 때, 기아는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사람이 외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몸 자체를 소화해 나간다. 처음에는 지방질을, 그 후에는 근육질을 다 섭취해 갈 것이다. 근육질이 다 소모된 후에는 생명도 꺼져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수주간에 걸쳐 일어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빠르게 몸이 약해지고 죽어간다.

사회적인 영향

기아는 가족의 구성요소를 파괴한다.

어떤 경우, 부모는 음식을 살 돈을 얻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노예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한다.

사람들 안에 분열과 적개심을 심어준다.

배고픈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 남기 위해, 도둑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회는 여러 가지 분열과 불신으로 분열될 것이다. 또한 기아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를 하루아침에 파멸시킬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경제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성공하고 있다. 만약 오직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럴 때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 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는 한 나라의 정부와 전세계의 체제를 뒤흔들어 놓게 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우리들은 공산주의가 무너져내린 것에 대해 몹시 흥분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자본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확신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계속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를 뒤엎어서 다시 공산주의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까지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기아문제가 한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증거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아는 인간의 존엄성을 깎아버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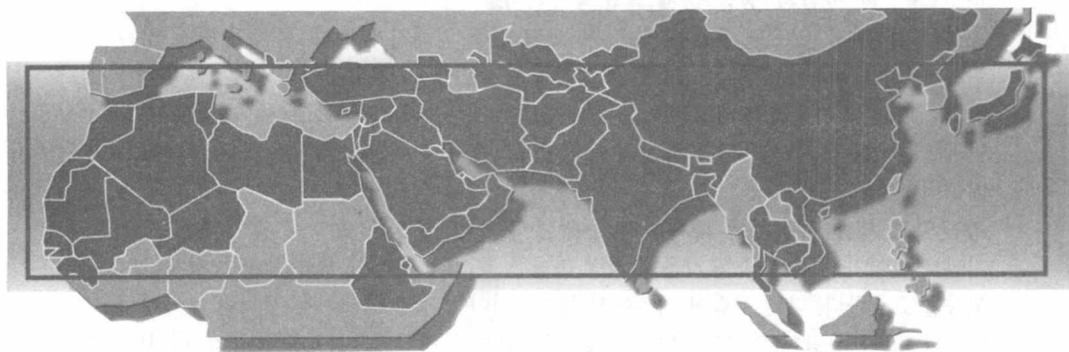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10/40 창과 선교전략

다음은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명이 짧고, 유아 사망률과 문맹률은 높은 나라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 나라들은 아프리카의 대부분과 인도, 아라비아반도에 걸쳐 있는 나라들임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나 미국, 한국에는 기아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어느 나라나 기아문제를 갖고 있다. 이 지역도 우리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기아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위에 언급한 이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을 북위 10~40°의 창문 속에 들어있는 나라라고 말한다. 선교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 선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나라들이 바로 이 10/40° 창문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 미전도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면, 이 10/40인 창문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있는 이 지역이, 특별히 극심한 가난 속에 허덕이는 나라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10/40 창문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 보면, 기아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해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과 함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전략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아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1세기를 향한 선교전략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힘쓰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대만 총선 이후 양안(兩岸)의 향방

중국의 엄청난 군사적 압력 속에서, 대만 총통선거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대만 최초의 직선제(直選制) 총통 선거일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최고통치자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직접 선거에 의한 리덩후이의 재집권은 대만의 정치발전과 민주화의 획기적 성과를 의미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만의 대륙정책이나 양안관계의 발전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문제는 앞으로 4년간 리총통이 대만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양안(兩岸)관계다. 리총통은 그동안 추진해온, 대만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 소위 탄성(彈性)외교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내관계에 속했던 양안관계가 국제관계로 확대되어 가면서, 양안간의 대립과 갈등도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한 정통성 시비에서 '독립과 반독립'의 대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좌시(坐視)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이번 선거가 대만의 현재 지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대만은 계속 중국영토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안관계는 앞으로도 험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장쩌민(江澤民) 체제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후계 체제로 공고화되어 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우선주의 경향으로, 대만과 타협할 여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 체제를 공고히 하고 내적 결속력을 강화함에 있어, 대만과의 일정한 긴장관계는 대단히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양안은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 양안간의 긴장 상태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양안간의 인적·경제적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양안은 여러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3. 24), 중앙일보(3. 26)>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정치·외교

국제사회, 대중 핵실험 중단 압력 가중

중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안을 협의하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앞으로 핵실험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았다. 중국은 올해에도 신장(新疆)성에서 두 차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2. 2)

대만해협 긴장

중국 인민해방군은 2월 10일부터 1주일 간 푸젠(福建)성 연해지역에서 3군 합동 훈련을 할 것이며, 이번 훈련에는 4만~5만 명의 병력이 참가할 것이라고 명바오(明報)가 보도했다. 대만도 지난 5~6일 양일간, 동부 화롄(華連) 연해지역과 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단행했으며, 곧 개시될 중국군의 군사훈련 정보수집과 정찰에 나섰다.

(조선일보 2. 7)

장쩌민, 신년 8대 당면과제 제시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은 지난 1년간의 개혁운동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적 문제가 많이 있다면서, 국가경제구조의 전환 추진, 사회안정 확립,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확립, 당내부 및 당과 인민들간의 관계강화,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건설, 군

의 현대화와 개혁, 대만과 홍콩, 마카오의 반환 확보, 중국의 외교관계 확대 등을 신년에 추진할 8대 과제라고 천명했다.

(조선일보 2. 17)

양안관계 개선 4개항 제의

롄잔(連戰) 대만총리는, 양안관계가 ▲이해증진 ▲상호이익 추구 ▲교류 확대 ▲실무협상이라는 순서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상호 군사 투명도를 제고함으로써 오판에 의한 군사위기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2. 17)

장쩌민, 덩 자녀들에 합구령

장쩌민 중국 총서기는 최근 당중앙 판공청 명의의 문건을 통해, 막후 지도자 덩샤오핑의 자녀들이 그의 교시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덩의 자녀들은 앞으로 외국 귀빈이나 기업인들을 접견할 때, “아버지가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없게 됐으며, 국내의 정책에 관한 그의 교시들은 장쩌민만이 인용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 2. 27)

계엄법 정식 공포

중국은 최고 실력자 덩샤오핑의 사망 후 예상되는 군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헌법상의 계엄령 관련 법규를 보완한 비상 계엄법을 새로 제정, 1일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

장쩌민 주석이 공포한 이 법안은 폭동·소요 발생 때 경찰조직인 공안당국이 계엄임무를 수행하되, 필요시 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3. 2)

영국, 홍콩주민 무비자입국 허용

홍콩 주민들은 내년 7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뒤 비자없이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4일 홍콩을 방문한 존 메이저 영국 총리가 밝혔다.

(동아일보 3. 4)

중국, 대만 향해 미사일 발사

중국은 8일 M9미사일을 가오슝(高雄) 서쪽에 2발, 지룽(基隆) 동쪽에 1발을 발사하여, 1주일 간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대만군은 진먼(金門)·마주(馬祖)섬에 대해 비상경계 태세를 발동했고, 원유·식량 등 전시물자 비축에 들어갔다. 또한 미국·일본 등 주변국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 미 제7함대 항공모함 인디펜던스·벙커일 호 등이 대만 해역을 향해 북상 중이다.

(중앙일보 3. 9)

홍콩 반환 후도 1국 2통화제 유지

중국은 97년 7월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의 통화·금융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1국 2통화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3. 15)

대만해협 긴장 계속 고조

중국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대만 영토에서 불과 18.5km 떨어진 최근접 지역에서 대규모의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만도 중국의 잇단 군사훈련에 대해 해, 총통선거를 전후해 2개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3. 16)

제4차 전인대(全人大) 폐막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4차 전체회의가, 17일 경제개혁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안건 처리를 끝으로



리덩후이 총통 당선 경축행사.

13일 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됐다.
(동아일보 3. 18)

주하이시 72시간 무비자입국 허용

마카오에 인접한 중국 주하이(珠海)시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에게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3. 23)

리덩후이 총통 당선

23일 실시된 대만 역사상 최초의 총통 직접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의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53.42%의 압도적 득표율로 제9대 총통에 당선됐다. 대만은 지난 연말의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으로 정치민주화를 이룩하게 됐으며, 리 총통은 지난 88년 총통직을 승계한 이래 12년 연속 집권하게 됐다.
(동아일보 3. 24)

중국-대만 화해국면, 긴장완화 움직임 가속

중국은 대만의 민주주의에 반대하지 않으며, 대만과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히는 등,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긴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대만도 관계 개선을 위해 협상을 재개하자고 중국측에 촉구하는 등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3. 26)

경제

대만, 대중 자유무역지대 설립 제의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안간 직접 교역이 가능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2. 3)

중국 사기업 60만 개 돌파

지난해 말 중국의 사기업은 60만 개 사를 돌파했으며, 종업원은 9백만 명에 이른다고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밝혔다. 또 도시 및 농촌의 개인사업자는 2천 5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2. 9)

위성적재 로켓, 발사 직후 폭발

국제산업통신위성기구(인텔셋)의 통신위성을 적재한 중국 로켓이 중국 남서부의 발사대에서 발사된 후 수초 만에 폭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월 미국제 위성 폭발사고 이후 1년 남짓 만에 일어난 것으로,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중국의 우주산업은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었다.
(중앙일보 2. 15)

올해 경제성장률 9% 예상

중국은 과열 경기의 진정을 위해 수출 및 무역흑자폭을 줄여, 올해 경제성장률을 95년의 10.2%에 못미치는 9%선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 9차 5개년 계획(95 계획)의 첫해인 올해 안에 지난해 14%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을 10% 이내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2. 15)

국방예산 10.6% 증액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0.6% 늘어난 6백98억 위엔(약 635천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증가액의 대부분은 무기구입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지난 89년 이후 매년 12~20%씩 늘어난 중국 국방예산이 올해 이처럼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을 무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베이징 주재 국방보석

가들이 밝혔다.
(조선일보 2. 27)

2천년까지 경제특구 세금특혜, 전부 취소키로

중국 국무원은 96년부터 5년 간에 걸쳐 5대 경제특구의 세금특혜들을 점차로 줄여나다가, 오는 2,000년에는 전부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3. 2)

중-대만 작년 교역량 2백10억 달러

지난해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교역량이 전년에 비해 27.1% 늘어난 2백9억 9천만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일보 3. 2)

상하이, 세계 최대의 건축붐

세계 최대의 건축붐이 일고 있는 중국 상하이 시에, 올해 40개의 주요 기간산업 프로젝트가 시작 또는 완공 단계에 있다.
(조선일보 3. 8)

베이징에 3년째 심각한 가뭄

베이징 일대에 올해 3년 연속 심각한 가뭄이 닥쳐, 작년 가을 이후 강우량이 4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가뭄으로 밀 생산과 봄 경작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산악지역의 경우 심각한 지하수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조선일보 3. 18)



농지 감소, 이농현상 등으로 중국의 곡물생산이 갈수록 줄고 있다.

사회

대형 폭발사고로 1백여 명 사망, 4백여 명 부상

중국 남부 후난(湖南)성의 성도 창사(長沙)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샤오양(邵陽) 근교 폭발물 보관창고에서, 1월 31일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 100여 명이 죽고 400여 명이 부상했다. (동아일보 2. 2)

원난성 지진 사망자 228명

2월 3일 오후 중국 원난(雲南)성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모두 228명이 사망하고 약 3,700명이 부상하는 한편,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중국은 왕성한 지진 활동기에 처해 있다. (조선일보 2. 4)

인터넷 사용 규제조례 공포

중국인 인터넷 및 기타 국제 컴퓨터망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할 목적으로, 중국 내의 모든 컴퓨터 정보망이 앞으로 국제 컴퓨터망과 연결하려면 우전부(郵電部)가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해야만 하며, 우전부·전자공업부·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과학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새 조례를 공포했다. (중앙일보 2. 6)

중국 가짜상품 구입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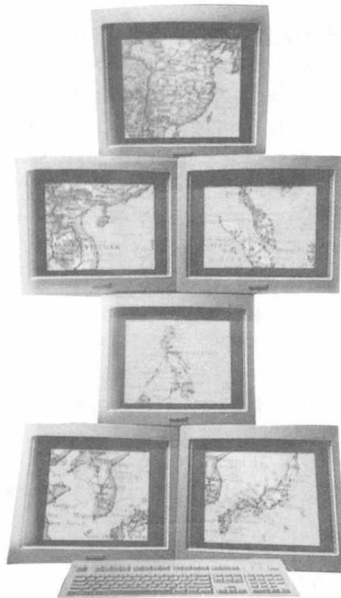
가짜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입가격의 몇 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타먹는 기발한 착상의 '왕하이(王海) 현상'이 중국을 강타하고 있다. 왕하이씨는 바로 이같은 '가짜상품 구입, 배상금 청구(購假索賠)'운동을 시작한 주인공이다. (중앙일보 2. 7)

과학자들 인터넷 이용 활발

중국 정부가 컴퓨터를 통한 외국과의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과학자들은 인터넷을 이용, 세계 각국 학자들과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동아일보 2. 7)

인터넷 가입자 경찰 등록 의무화

중국은 기존의 인터넷 사용자와 신규가입 신청자들에게,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같은 지시는 중국 공안부 계산기관리감찰사가 유해한 정보를 막고 범죄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린 것이다. (중앙일보 2. 15)



전체 인구 12억 7백78만 명 추산

중국의 전체 인구는 지난해 10월 1일 현재 12억 7백78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소수민족의 수는 9.98%인 1억 8백46만 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신화통신이 국가통계국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동아일보 2. 15)

춘절 15억 대이동

중국의 공식적인 춘절(春節·설) 연휴 중 이동 예상 인원은 15억 2천만 명이고, 이들 중 13억 3천만여 명은 도로교통 수단을, 1억 4천여만 명은 철도를 이용하며,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숫자만도 6백만 명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9일까지 50일간을 춘절 특별 운송기간으로 선포, 대이동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 (동아일보 2. 17)

청하이성 주민 10만 명 기아 직면

지난해 11월부터 사상 최악의 눈보라가 중국 북서부 청하이(靑海)성을 강타해, 주민 1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이 오는 7월 해빙기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1백만 달러 이상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시닝(西寧)시 관계자들이 밝혔다. (동아일보 2. 29)

중국 10대들 "부도가 제일 싫어"

중국의 많은 10대 학생들은 '공부해라, 남보다 뛰어나라'는 요구를 일삼는 부모를 첫째 가는 '적'으로 간주한다. 반면, 무조건 사랑해주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서 위안을 찾는 것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동아일보 3. 7)

춘절 기간 중 폭죽으로 76명 사망

중국의 춘절 기간에 폭죽이 터지는 사고로 76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하는 한편, 3천2백만 위엔(미화 3백90만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아일보 3. 9)

중국 지하철-버스 승객 격감

베이징(北京)시는 금년부터 종전 기본요금 1자오(角·한화 10원)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1자오씩 추가하던 버스요금을 무조건 기본요금 5자오로 바꾸었고, 지하철요금은 종전의 5자오에서 무려 4배인 2위엔(元·한화 2백 원)으로 올렸다. 또 상하이(上海)시는 한달에 25 위엔짜리 월표만 사면 무한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월표가 폐지되고 버스를 탈 때마다 5자오를 내고 표를 끊게 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승객이 격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동아일보 3. 14)

밀수와의 전쟁 선언

리펑(李鵬) 중국 총리는 밀수와의 전쟁은 정치적 투쟁이자 반부패 투쟁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밀수 행위를 비호하는 지도자들은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3. 21)

베이징, 전화번호 8자리수로 변경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가 오는 5월 8일부터 시내 전화번호를 7자리수에서 8자리수로 상향조정 한다. 이러한 전화번호의 상향조정은 베이징의 모든 가정이 오는 2,000년까지 전화를 갖도록 하려는, 베이징시 당국 캠페인의 일환이다. (중앙일보 3. 25)

한·중관계

조선족 유학생 몰려온다

신일전문대에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조선족 학생 34명이 입학, 이번 학기부터 2년 간 공부하게 된다. 선양시에서 고교를 마쳤거나 대학을 졸업한 이 학생들은 안경광학, 조리, 판매관리과 등 8개 과에 입학하며, 학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중앙일보 2. 12)

북한 난민 수천 명 중국 유입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난민 수천 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와, 중국이 난민을 북한으로 송환할 계획이나,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북한과 중국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다. (조선일보 2. 24)

국내 외국인연수생 직장이탈률, 중국인 1위

올 1월 말 현재 12개국 전체 4만 4천5백 97명의 연수생 이탈 현상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 1만 1천8백16명 중 4천9백71명(이탈률 42.1%)이 이탈해, 당초 예정된 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2. 26)

위변조 여권 사용, 중국인 적발 급증
법무부 김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위변조여권을 갖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적발된 중국인은 모두 304명으로, 94년의 123명에 비해 147.1%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분실된 여권에 사진을 붙이는 종래의 수법에서 발전,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는 수법의 위법여권

이 자주 적발되고 있다. (조선일보 3. 15)

엔벤과기대(延邊科技大) 「민족도서관」 추진

중국 엔벤에 있는 엔벤과학기술대학에 「민족도서관」이 건립된다. 이 민족도서관은 오는 7월 착공, 98년 완공될 예정이며 영어와 한글서적 50만 권을 수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도서관 건립에 들어가는 총경비는 한화로 약 80억원이다.

엔벤과기대 후원회 서울 연락처
02)561-2445
(동아일보 2. 29)

북한 국적 중국 교포 영주 귀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출신으로 중국에 거주해 온, 북한 국적 정학수 할머니의 국내 영주 귀국을 허가했다. (조선일보 3. 5)

엔지 체류 한국인, 북남치 테러 공포
성혜림씨 서방탈출 사건 이후, 중국내 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보복 납치 움직임에 대비해 북한과 인접한 엔지(延吉), 단둥(丹東) 등지의 한국인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 3. 20)

중국 '남북대화 중재'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 "중국이 할 수 있는



엔벤과기대 전경.



엔벤과기대 민족도서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혀 중국이 남북 대화 재개에 중재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아일보 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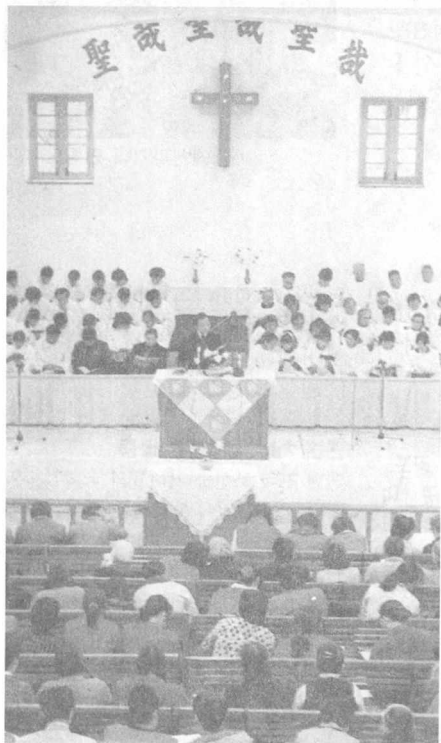
엔벤 처녀 국제결혼 급증

엔벤 지역 조선족 처녀들의 국제결혼은 지난 90년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0월 초에 이미 1천4백여 건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결혼 대상의 70% 정도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약 20% 정도가 파탄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3. 24)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보전기독교당(莆田基督教堂) 설립 80주년을 기념하며

이 글은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위치한 보전기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팸플렛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보전기교회는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깊은 교회인데, 문화혁명 이후 공산정부에 의해 교회 건물을 빼앗겼다가, 1994년 다시 건물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교회 건물을 완전히 다 찾지 못하여,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중국의 교회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실로 준비했다.



보전당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중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문화혁명'이라는 특별히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내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응답하사 종교정책이 원만히 실현되게 하셨고 정부 관련 기관의 후원아래 1984년 보전당을 교회에 돌려주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예비해 주셨다.

그 동안 모아진 현금, 기부금 등이 약 7만 위엔(한화 약 7백만원)이었으며, 1985년에 예배당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옛모습을 되찾았다. 마침내 1986년 3월 9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날 3천여 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뻐 뛰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였다.

보전당의 환원으로 감리교, 성공회, 참예수교회 등 타종파 성도들이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교회의 각종 봉사활동도 회복되었다.

◀보전기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찬 신도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경을 공부하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창립 80주년을 감사하며

鄭玉佩 목사

하나 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팔순이 다된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의 부흥을 친히 목도하게 된 것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보전당은 지난 80년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모든 신도들의 정성어린 기도로 사역자들이 환난을 이기고 찬란한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몸소 복음을 홍왕케 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날로날로 더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역자의 결핍시대에 -중국 교회는 문화혁명 전후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 중년층의 사역자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청년 사역자들을 보내사, 이 교회를 건립케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과 마음을 다해 성실과 믿음으로 일했고, 노년 사역자들의 뒤를 이어 복음의 진리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가치있는 것은 많은 신도들이 사역자들의 복음 사역을 묵묵히, 또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일학교와 청년 성경공부, 기도회, 재무회, 심방모임, 성가대, 관현악단, 접대 등 다양한 자리에서 일하는 이들의 사역이 비록 힘이 들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1986년부터 보전당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본 교회의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권면, 그리고 물질적인 관심과 도움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남은 힘과 열정을 다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늘 우리 맘 속에 거하시길 원하며 이 땅에서 보전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복음을 널리 전하자

吳文學 목사

보전

당은 8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긴 역사에 비해 분명히 짧은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당은 80년 동안 심한 세상의 변화와 우환을 두루 경험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넓으신 은혜를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보전 기독교당이 오늘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와 지팡이와 주 예수의 의로운 손이 인도하였으며,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지칠줄 모르고 뛰어다녔던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 도시에 우뚝서게 하였고, 또한 십자가의 빛을 더욱더 밝고 찬란하게 비출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은은한 종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 그들을 되살아 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로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현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장래의 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을 합해 복음을 널리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높이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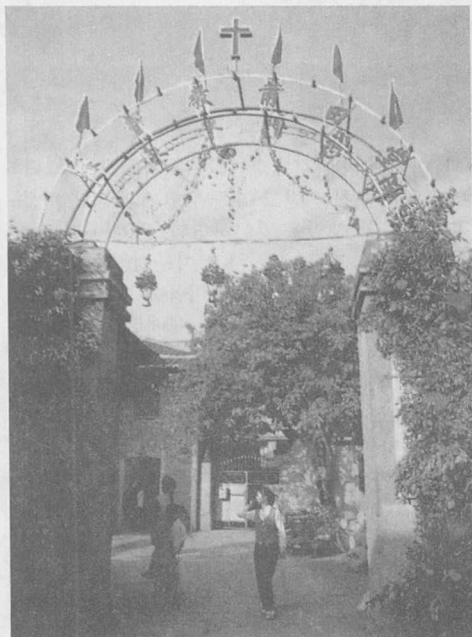
마음과 뜻을 합하는 것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끊임없는 사역 중에서 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부활의 생명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새롭게 변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성령의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 마음 속에 깊이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우러러보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거나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합해 서로 화목하기를 인내와 화평의 하나님처럼 하면 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옛일을 회상하고 현실을 둘러보며 담대하게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마음 속에서 아름답게 울려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합해 복음을 널리 전하라.”



보전(莆田)기독교회 역사

기독교 감리회는 1864년에 처음 흥화(興化) 지역에 들어왔고, 1867년에 흥화 목회구역(牧區)을 설립했다. 1872년에 교구를 설립했는데 복주연의회(福州年議會)에 소속되었다. 1896년 복주연의회에서 분리되어 흥화연의회를 단독설립했다. 보전기독교대교당(莆田基督教大教堂)의 원래 이름은 천도당(天道堂)으로 흥화연의회의 총당(總堂)이었다.

흥화 목구의 설립 배경은 18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보전 남일도(南日島) 초호촌(草湖村) 촌민 임진진(林振珍)이 복주(福州)에 친척방문차 갔다가 감리교 소영당(小嶺堂)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였다. 12월 21일, 그는 세례를 받고 거듭나 일생 주의 일에 헌신하였고, 후에 초호(草湖)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1865년 8월 임진진이 손사천(孫四川)과 양득권(楊得權)을 이끌고 보성(莆城) 동문 밖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했는데 이것이 보성에 들어온 첫 복음의 소리였다. 1867년 흥화 목구가 정식으로 성립되자 임진진은 초대 목사가 되었고 교회는 시내 용문(龍門) 아래 세위

졌다가 얼마 후 시내 남쪽 '십팔장조(十八張厝)'로 옮겼다. 1870년 허파미(許播美) 목사가 뒤를 이은 후, 이듬해 교회를 방항(坊巷) 태자방(太子坊) 동쪽 주가(周家)로 옮겼다.

1872년에 교구를 설립했고 복주연의회에 소속되었다. 신도가 증가해 회당이 비좁아지자 1894년 방항에서 '변세금자(變世金紫)' 고적지를 사들여 새 예배당 '천도당'을 지었고 이로써 10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비용이 4천여 금(金)에 달했는데, 미국 국적 신도 가운연(柯運捐)이 2천 5백 금(金)을 부담하였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본 교회 신도들이 헌납하였다. 1896년 흥화연의회가 성립되어 부성(府城), 함강(涵江), 황석(黃石), 홀석(笏石), 선유(仙遊) 다섯 개 교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신도수가 끊임없이 증가하자 천도당에도 앉을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고, 또 다른 예배당을 지어야 했다. 이를 위하여 포노사(蒲魯士)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 모금을 하였고, 중국에서는 신도인 감(甘)야곱, 감다윗 형제가 아버지 감백능(甘伯勒)을 기념하기 위해 1만 달러를 헌금하였다. 이로써 대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흥화연의회 총당을 짓기 위해 1915년 마대리(馬臺里)에 땅 4무(畝)를 샀고 그해 10월, 기초석을 세우고 3년이라는 시공기간을 거쳐 1918년 준공하였다. 1920년 1

월 정식으로 헌당예배를 드렸다. 대 예배당의 건축비용으로 총 5만 원이 들었는데 감씨 형제가 1만 원을 헌금한 것 외에 나머지 액수는 홍화현의회의 5개 교구 교목과 신도들이 헌금하였다. 대 예배당은 건축면적 1572㎡로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과학적인 설계와 동·서양이 조화된 건축양식으로 장엄하고 위풍있어 동남아 4대 교회당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대 예배당 건립 후, 입구에 돌 4개를 세워 그 위에 5원 이상 헌금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새겼으나 안타깝게도 문화혁명 기간에 그 중 2개가 파손되었다.

1937년 4월 대 부흥사 송상절(宋相節) 박사가 대 예배당에서 8일 동안 부흥집회를 인도했다. 이때 홍화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대의 교회 신도까지 와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회중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보전교회 사상 영원히 기념할만한 대사건이었다.

1939년 항일전쟁기간 중 일본의 폭격기 3대가 보전을 습격했다. 5월 25일 대 예배당을 주요 목표로 하여 폭탄 3개가 연이어 투하되었고 교회 부근의 함익(咸益)여중 교사(校舍)가 초토화 되었다. 다행히 교사와 학생들이 일찍 대피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면할 수 있었고, 대 예배당 역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였다.

1949년 10월 신중국이 성립되었을 때, 대 예배당은 여전히 많은 신도들이 왕래하는 성지이자 예배 중심지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대 예배당은 장기간 회의장, 학습장, 극장 등 공공장소로 차용당하였다. 교육관에서 드리던 예배는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계속되다가 그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종교정책의 진일보한 실행과 개혁개방 정책으로 말미암아 보전당은 1984년 다시 교회로 환원되었다. 신도들이 다시 모여 들었고 7만여 원의 헌금을 모아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했다. 1년 후 예배당의 면모는 크게 달라졌고 1986년 3월 9일 드디어 정식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때 보전기독교당(莆田基督教堂)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보전당이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초기에, 노목사 서승가(徐崇軻)가 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게 되자 교회 업무는 진소훈(陳紹勛) 목사가 맡게 되었다. 정옥패(鄭玉佩), 오문거(吳文學) 등의 동역자들이 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겼다. 어떤 때는 진옥제(陳玉志), 황진화(黃振華), 여옥성(余玉成) 목사 등이 초청되어 신도들의 세례, 성찬, 설교 등을 도왔다.

최근 10년간 연합예배를 드려온 보전당은, 지금까지 매주 9차례의 정기 예배나 기타 활동 외에도 국내 교회 및 각 방면의 인사 1백여 단체 2천여 명을 접대하였다. 또한 해외 신도, 해외 동포, 원철리(原哲理)중학과 함익여중의 신자 및 각국의 우호 인사 등도 보전당을 방문했는데 그 수는 90여 단체 800여 명이다. 그 중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포노사의 딸이자 미국 우호인사인 만둔(曼頓) 박사의 모친 포후은(蒲厚恩)은, 보전에서 출생하여 성장했기 때문에 유창한 홍화말을 구사할 수 있

며 보전과 대예배당에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988년 포후은은 초청을 받고 아들과 함께 보전을 방문하여 이곳에서 85세 생일을 맞이하였다. 1992년 인도네시아의 화교, 역보(力寶) 그룹 사장 이문정(李文正) 선생이 보전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 인민폐 10만 원을 헌금하여 예배당 건설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같은 해 중국기독교협회 부회장겸 총무 심이번(沈以藩) 주교와 금릉협화신학원 부교장 진택민(陳澤民) 목사가 보전당을 방문하여 교회 업무를 순시하였다. 그들은 보전당 동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사역하고, 신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보고는 매우 흡족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모두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94년 홍콩 건남재무(建南財務)유한공사 총재 여진만(呂振萬) 선생이 보전당에 자동차 한 대를 기증하여 사랑을 표했다. 보전대교당의 열성 성도였던 임심향(林心香)의 손자 임국경(林國慶), 임국양(林國樑) 형제도 보전당에 관악기와 마이크 시설을 헌납하여 선친의 뜻을 이어 감사를 잊지 않았다.

1993년 6월 보전당은 시급(市級) 문물보호 단위로 반포되어 성황리에 기념비 개막식을 거행했다.

예배당을 복구한 이후 보전당은 끊임없이 부흥, 발전하여 매 주일 대예배 회중이 이미 천 명을 넘어섰다. 구원받는 자가 매주 더하여 1992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세례교인만 562명에 달한다. 1995년 2월 정국치(鄭國治) 박사가 부인과 함께 보전당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 이 때 약 2천 명의 신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1995년초 보전당 주임 목사 정금찬(鄭金燦)이 복건성 기독교협회 목사 방문단 일행 9명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다. 이것은 중국 교회의 첫 공식 대만방문이었다. 같은 해 7월 대만기독교 방문단 일행 20명이 답방(答訪)하였고 이때부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역자주) 교회 교류의 황금교량이 세워져 삼통(三通:통신(通信), 통상(通商), 통항(通航)-역자주)을 앞당겨 실현한 것으로 조국평화통일을 촉진하는 데 일조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영원토록 보전당에 비치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송상절(宋尙節) 박사 추모사

송상절 박사는 보전당 제14대, 제22대 주임목사를 역임한 송학연(宋學連)의 둘째아들로 보전현 항북촌 사람이다. 1901년 9월 27일 오후 4시 보전 봉술촌에서 태어난 그의 처음 이름은 '천은(天恩)'이었다. 5세 때 아버지 송 목사가 홍화복음서원의 부교장으로 임명되어 전 가족이 보전성으로 이사하였다.

천은은 어려서부터 가훈을 이어받아 전도에 열심이였으며 영특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12세 때는 아버지를 따라 농촌에 가서 담대하고 유창하게 전도를 하여 사람들은 그를 '작은 목사'라 불렀다. 그때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기도의 경험을 하였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천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그의 평생이 복음사역에 쓰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

또한 1909년의 홍화 대부홍회의 영적 감동이 어린 심령에 깊이 심어졌다. 1919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간 송상절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4년 과정의 대학을 3년 만에 마쳤다. 웨슬리 대학에서 영예의 학사 학위와 상급, 메달을 받은 그는 1923년 다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진학,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9개월만에 학위를 받은 그에게 미국 과학회에서는 금열쇠를 수여하였다. 이것은 아주 보기 드문 특별한 영예였다. 또 1년 9개월의 연구를 거쳐 1926년 3월에 화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9월 그는 뉴욕협화신학원에서 1년 동안 3년의 신학과정을 수료하였다.

1927년 2월 10일 거듭난 그는 '요한'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40번 통독하였다. 그해 10월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중 배가 중국에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상자안에 있던 금열쇠와 영예의 메달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박사학위만 남겨 두었다가 부모님께 드렸다. 고국에 돌아온 후, 처음에는 고향에서 전도를 하였으며 4년 후 상해로 가서 세계적인 보터리 전도단과 협력하여 국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2년 후에는 보터리에서 독립,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의 전도사역은 화동에서 동북으로, 화남에서 화북으로, 나중에는 해외로까지 이어졌다.

남양군도, 말레이시아 등 많은 지역에는 송 박사가 복음을 전한 흔적이 남아있다. 1938년 5월 5일 오전 9시에 복주 천안당에서 송상절은 목사안수를 받고 홍화연 의회에 소속되었다. 미의회는 그를 '전국 부흥사'로 파견하였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박사는 몇 차례 바다를 건너 남양군도, 미안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훈련 사역에 깊이 몰입하였다. 여러 해 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940년 1월, 송 박사는 병을 무릅쓰고 상해로 돌아왔다. 몸이 약해져서 긴 여행은 할 수 없었으나 북경의 향산(香山)에 수련원을 설립하여 젊은 청년 남녀들을 훈련하여 복음의 힘있는 증거자로 키워냈다. 1944년 8월 18일 북경에서 향년 44세로 소천하였다.

박사는 1937년 4월 귀향하여 8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였을 때 매 집회마다 3천 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전도자가 되기로 헌신한 자, 믿음으로 병을 낫게 된 자가 허다했으며 127개의 전도팀이 조직되었다. 송상절 박사가 국내외 곳곳에서 주관했던 부흥회의 역사는 보전당에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보전당(莆田堂) 5층 건물 회수 문제에 관한 요청서

보전현(莆田縣) 인민정부 문서('89) 제48호 <기독교 보전당의 남아있는 교회 재산의 회수를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개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 보전당은 국내외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이다. 1979년 보전현 보선극단(莆仙戲團:복건성(福建省) 보전현 선유현 지역의 지방극을 하는 극단-역자 주)이 보전당안에 5층 기숙사 건물을 지었고 1985년에는 보전당의 식당건물 위에 극단의 무대 연습실을 증축했는데, 이 두 건물이 아직까지 보전당에 귀환되지 않아 신도들의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원 종교사무국 제 457호 문서('83)에 의거하여 상술한 두 건물은 마땅히 철야야 한다...”

종교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이 재산문제는 적절히 해결되어야 한다. 1986년초 복건성 정협(政協) 주석 장학도(蔣學道)는 성 정부협회의 종교문제 처리팀과 함께 보전에 와서 이 일을 조사했다. 1989년 3월 9일에는 성정협 부주석 고호(高胡), 성 종교국국장 여험봉(余險峰), 보전현 현장 임문양(林文揚), 현 위원회 부서기 허배원(許培元) 등 시·현의 관련부문 지도자들을 소집해 보전당 현장에서 사무를 보며 보전당의 책임자와 협상을 통해 의견일치를 보았고 이에 따른 공문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가 현재 보선극단의 5층 기숙사 건물에 상당하는 건축비를 지불하거나 또는 같은 면적과 같은 수준의 건물을 주어 재산권을 교환하도록 한다. 새로 지어질 건물 부지는 보선극단이 건축계획에 따라 신청을 하고, 시 위원 통전부(統戰部)에서 빠른 시일내에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주소는 시 토지국에서 구획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은 보전현이 부담한다... 보

전당은 보선극단이 건물을 지을 때 베어버린 용안수(龍眼樹:과일나무의 일종-일종)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기로 한다. 보선극단은 1985년에 지어진 2층짜리 무대 연습장을 5층 건물의 수리비 조로 보전당에 돌려준다.”

상술한 공문에서 각급 당정 지도자들이 종교정책을 철저히 실행코자하는 의도를 잘 살펴볼 수 있다. 또한 5층 건물과 2층 연습장을 회수하려는 교회의 의사를 존중하며, 단호한 태도와 구체적인 대책으로 관련부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협상한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문이 발송되지 5, 6년이 지나도록 이 두 건물은 보전당에 반환되지 않고 여전히 보선극단이 쓰고 있다. 구체적인 원인은 경비의 부족 때문이다. 보전당이 이 두 건물에 상응하는 건축비를 지불해야만 건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공문은 규정했다. 경비를 산출해보면 1평방미터당 시가 550원(한화 5만 5천원)으로 총면적 1000평방미터인 5층 건물을 회수하는 데는 55만 원(한화 5천5백만 원)이 필요하다. 거기다 수리비 15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70만 원이 있어야 이 건물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5층 건물을 회수하면, 극단에서 무대연습장으로 썼던 2층 건물의 회수도 가능하다.

건물 두 채를 회수할 경우, 본 교회는 그 건물을 아래와 같은 사역과 자선사업의 용도로 계획하고 있다.

목회자 숙소 건립

본 교회는 원래 목사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없어졌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86년 본 교회를 돌려받은 뒤에는 교회의 땅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건물을 지을 땅이 없게 되었다. 목회자들은 성전 2층에서 잠시 기거하거나 교회의 담에 초라한 단층 건물을 지어 살거나 혹은 세를 들어 살기도 했다. 5층의 방 10칸을 목회자 숙소로 이용할 계획이다.

유아원 설립

국가의 ‘한 자녀 낳고 잘 기르기’ 정책에 따라 생활이 비교적 부유해져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유아원에 보내고 싶어한다. 게다가 가족을 따라 외부에서 유입된 아이들이 많아져 이 지역의 유아원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입학하기도 어렵고 수업료와 기타 비용도 지나치게 비싸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아원에 보낼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 함강당(涵江堂)은 몇해 전부터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좋은 평을 받아오고 있다. 해마다 계속 발전하여, 현재는 350명의 원생을 두고 있다. 현재 모든 유아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회수하는 건물 1, 2층의 400㎡를 5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유아원으로 쓸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주일예배와도 이어져 주일학교를 운영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병원 설립

현재 의료비가 비싼데다 병원마다 초만원이다. 일부 병



보전당 건물 전경

원의 의사 및 간호사들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의 결여로 인해 그야말로 병에 걸리는 것은 ‘재앙’이다.

본 교회에서는 병원을 설립, 기독교 의료인들을 초빙해 신도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하는 동시에 덕망 있는 의술을 널리 펴고자 한다. 3층의 방 10칸(200㎡)을 진료실과 약방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4층의 방 10칸(200㎡)을 접대실, 열람실, 기도실 및 교회의 각종 부서 사무실로 개방코자 한다. 또한 무대연습장으로 쓰던 곳은 양육반, 성가대, 관현악단, 청년부 등의 대형 집회장소로 쓸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5층 건물과 2층 건물을 하루빨리 회수하는 것은 본 교회의 매우 시급한 사항이다. 공문이 발표된 이후 본 교회의 목회자와 모든 신도들은 이 일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으며, 각종 활동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여 6년 동안 10만 원을 모았다. 그러나 아직도 60만 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건물 두 채는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본 교회의 80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내외의 형제자매들에게 삼가 부탁드리고자 한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벽돌과 기와 한 장씩 보태는 마음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은 본 교회에 연락주시길 바란다. 하루속히 본 교회의 건물이 회수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각종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기독교보전당당무회(基督教莆田堂堂務會)

1995년 5월 14일

주소: 福建省 莆田市 城內 倉邊巷 14號 莆田堂

전화: 0594-239-5447

번역 / 신호정·김현주·김은희

중국복음선교회 중국어 찬양 테이프

“제 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역대하 20:26)

중국복음선교회 브라가 찬양팀이
중국선교 및 국내 중국인 전도를
위해 제작한 중국어 찬양 및 복음성
가 테이프를 판매합니다.



1집/ 是愛(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약속, 응답, 헌신의 내용이 담긴 일반 복음성가와 성가

▶ 가격 3,000원



2집/ 耶和華是我的牧者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와 성가곡.

화교인 소프라노 진귀옥(陳貴玉) 이대 교수가, 모든 화교들과 중국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독창집

▶ 가격 4,000원



3집/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복음성가와 찬송가 편곡

강한 중국인의 마음과 열정적 선교 헌신, 그러면서도 편안함과 경쾌함이
어우러진 대중적인 내용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테이프에 수록된
「我的中國心」이란 노래는 중국인이란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다.

▶ 가격 4,500원

보 급/ 중국복음선교회

판매처/ 중국복음선교회(☎ 778-3626)

중국어문선교회(☎ 535-4255 교육부)

중국선교 적응훈련

제 9 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상

-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 10명 내외.

선 발 :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 생활중국어와 선교 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96년 6월 1일~6월 29일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 - 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 원서대금 1,000원, 접수비 10,000원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96년 9월 2일(월) 오후 1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훈련내용

언어(선교중국어 집중훈련)

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 1학기(8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 2학기(6주) 중국어성경,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중국어 특강, 청력 훈련

연구

중국문화 및 선교 연구세미나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세미나 주제

중국선교개관, 중국고대사상, 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교회 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역사, 유교사상의 이해,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근대 중국선교사와 선교방법론, 한국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선교, 산둥선교의 경험과 교훈, 중국의 종교정책, 중국의 교육제도, 중국선교사역에 임하는 자세, 조선족 현황,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등

합숙

중국어 공동체훈련

1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충격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현지 연수과정 및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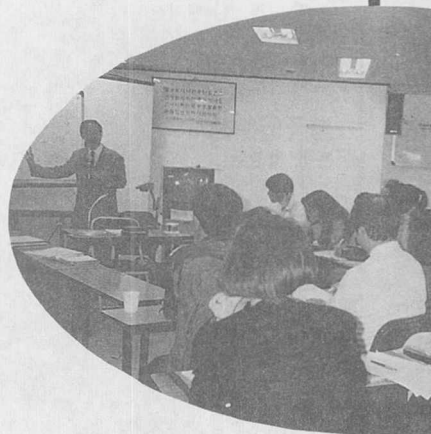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6년 12월 중에 9주간에 걸쳐서 현지언어연수(8주) 및 답사(1주)를 실시.

훈련기간

1996년 9월 2일~1997년 2월 28일(6개월)

일 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문의/ 중국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TEL : 02-535-4255, 594-8083

FAX :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문화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회(대표: 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제 10 기 훈련은 97년 3월에 개강합니다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6년 5·6월호(통권39호)

발행처/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 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권수영
이민선·김현주·김은희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홍보/ 김정하이준석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6년 4월 10일
인쇄처/ 신구인쇄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전화: 637-4163

값/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533-5497, 592-0132
팩스: 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 535-4255
팩스: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보내주시시오

천리안 ID / Sinim

Tel. 533-5497, 592-0132
Fax. 599-2786



중국선교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

지난해 5, 6월호 <중국을주께로>에 “중국의 조선족”이란 제목의 특집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저희는 다시 “조선족 교회와 선교”라는 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조선족선교를 바라보는 특집의 글들이, 사실 우리들이 스스로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지적들이기에, 어떤 분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따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 6월호 편집을 마친 지금, 저희에게 두려움과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북삼성에서 힘들게 조선족선교 사역에 몸담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떠올리면서, 이런 부담감은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내용의 기사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뜰이나 선교비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 ‘선교 냉소주의’를 심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관된 교훈과 반성을 통해, 올바른 중국선교, 조선족선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과거 아편전쟁과 함께 중국에 들어갔던 서양선교사들의 잘못된 선교가, 오늘날 대다수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선교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들 가운데 오히려 기독교 복음전파를 막는 촉매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후 중국의 기독교사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지 사뭇 궁금합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의 조선족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본 그대로 역사는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자들입니다. 과거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가 아닌, 진정 그들을 섬기고 토착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선교의 역사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족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숙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겸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조선족 교회를 위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 4. 1-1998. 3. 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 4. 1-1998. 3. 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02-533-5497, 02-592-0132, 담당자 정광숙 간사)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제로 독자카드(1996년 5, 6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객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전화신청 및 문의: 정광숙 간사 Tel.02-533-5497, 02-592-0132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 신규구독 ☐ 재구독 ☐ 주소변경
-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 1년 21,000(6권) ☐ 2년 42,000(12권) ☐ 3년 63,000(18권)
2. 신청인 이름 (남, 여)
- 생년월일
- 배달주소(우 -)
- 전화: (집) (직장) 팩스:
- 교회명 직분
- 기타 요망사항
3. 주소변경: 성명 전화
- 변경주소(우 -)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 정기세미나
(’96년 6월)

조선족 교회 육성전략

조선족 교회가 살아야

북한선교도 중국선교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조선족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지금껏 무엇을 해 왔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족 교회가 “자치, 자양, 자전” 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새롭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조선족선교에 관심있는 교회, 선교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 제: 조선족 교회 육성전략

일 시: 1996년 6월 24일(월) 오후 7시~9시

강 사: 인병국 목사(한동교회)

장 소: 이수성결교회(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대 상: 중국선교 관심자

참가비: 없음

문 의: Tel.533-5497, 592-0132 Fax.599-2786

주 최: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가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정.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주님!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